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김 구

2020년 8월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임 화 순

김 구

이 논문을 관광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8월

김 구의 관광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⑩

위 원 _____ ⑩

위 원 _____ ⑩

위 원 _____ ⑩

위 원 _____ ⑩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0년 8월

A Study on Evaluation Indicator for Development Potential of Tourism Resources

Goo Kim

(Supervised by professor Hwa-Soon L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Tourism

2020. 8.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연구의 방법	4
1. 연구방법	4
2. 연구의 구성	5
제 2 장 이론적 고찰	7
제1절 관광자원	7
1. 관광자원의 개념과 유형	7
2. 관광자원 유형	11
3. 관광자원 개발의 환경요인	14
제2절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	16
1. 개발 잠재력	16
2.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21
3.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	34
제3절 Delphi 기법과 AHP	38
1. Delphi 기법	38
2. 계층적 의사결정방법	41
제 3 장 연구설계	46
제1절 연구설계	46

1. 연구설계	46
2.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 개발 과정	48
제2절 전문가 집단 선정	49
1. 델파이 조사 전문가 집단 선정	49
2. 계층적 의사결정방법 조사 전문가 집단 선정	52
3. 응답자의 특성	54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55
1. 델파이 기법 단계 및 자료수집	55
2.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 분석단계 및 자료수집	57
3. 자료분석방법	58
제 4 장 연구결과	59
제1절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평가지표 도출	59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59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62
3.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70
4. 최종 관광개발 잠재력 평가지표	76
제2절 AHP 조사결과	79
1. 상위차원 상대적 가중치 및 우선순위	80
2. 평가지표 상대적 가중치 및 우선순위	81
3. 하위속성 상대적 가중치 및 우선순위	82
제3절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 활용방안	84
1. 평가지표 측정방법	85
2. 평가진단 체계	91

제 5 장 결 론	92
제1절 연구결과 요약	92
1.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상위차원과 평가지표 도출	94
2.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 도출	96
3.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 상대적 가중치와 우선순위	97
제2절 연구결과 논의와 시사점	98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98
2. 시사점	99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100
참고문헌	103
ABSTRACT	113
<부록 1> 1차 델파이 설문지	117
<부록 2> 2차 델파이 설문지	119
<부록 3> 3차 델파이 설문지	126

표 목 차

<표 2-1> 관광자원의 개념과 정의	8
<표 2-2> 관광자원의 유형	10
<표 2-3> 관광자원 잠재력 관련 선행연구	18
<표 2-4> Ritchie & Crouch(2003)의 관광지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모델 ..	20
<표 2-5>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상위차원과 평가지표	37
<표 2-6> AHP 기법 적용 절차	42
<표 2-7> AHP 쌍대비교 중요도 정의	43
<표 3-1> 델파이 단계별 전문가 집단 선정 및 응답 수	50
<표 3-2> 델파이 조사 전문가 집단 리스트	51
<표 3-3> 계층적 의사결정방법 전문가 집단 선정과 응답 수	52
<표 3-4> 계층적 의사결정방법 전문가 집단 리스트	53
<표 3-5> 계층적 의사결정방법 최종 응답인원 선정	53
<표 3-6> 델파이 조사와 AHP 응답자 특성	55
<표 3-7> 델파이 조사 응답률	57
<표 4-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60
<표 4-2> 공간중심적 접근차원의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63
<표 4-3> 자원중심적 접근차원의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64
<표 4-4> 수요중심적 접근차원의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66
<표 4-5> 관리중심적 접근차원의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67
<표 4-6> 2차 델파이 조사결과 항목 수	69
<표 4-7> 공간중심적 접근차원의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70
<표 4-8> 자원중심적 접근차원의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71
<표 4-9> 수요중심적 접근차원의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72
<표 4-10> 관리중심적 접근차원의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73
<표 4-11> 3차 델파이 조사결과 항목 수	75
<표 4-12> 최종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	77

<표 4-13>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 의사결정 계층도	79
<표 4-14> 상위차원 우선순위 및 전체 대비 상대적 가중치	80
<표 4-15> 평가지표 상대적 가중치 및 우선순위	81
<표 4-16> 평가요인 우선순위 및 상위개념 대비 상대적 가중치	83
<표 4-17>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의 적용	84
<표 4-18> 자원중심적 접근의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 적용	85
<표 4-19> 수요중심적 접근의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 적용	87
<표 4-20> 관리중심적 접근의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 적용	89
<표 4-21> 공간중심적 접근의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 적용	90
<표 4-22>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 진단체계	91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구성	6
[그림 3-1] 델파이기법과 계층적 의사결정방법을 적용한 연구설계	47
[그림 3-2]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 개발 과정	49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가 발표한 '2018년 국제관광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의 전 세계 관광객 수는 14억 명이며, 세계 관광수입은 1조 7천억 달러로서 세계 경제 성장률(3.6%)보다 더 높은 4.4% 증가율을 보였고 2017년도 기준 국제관광 수출액은 전 세계 수출액의 7% 수준인 1조 5,860억 달러로서 세계 3대 수출 품목으로 자리를 잡았다(이자영, 2019). 또한, 세계여행관광협의회(WTTC: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에서는 여행·관광산업이 전 세계 GDP의 10.4%를 차지하고, 3억 3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였다(곽서희, 2020).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관광산업은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주요한 외화획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수지 개선과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국가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광산업을 외화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는데, 과거에는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양적으로는 관광산업이 발전하였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지역주민 참여도 배제하면서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정남식, 2018: 1). 하지만,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어 정착되어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다양한 관광정책들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다양한 자원들을 개발하고 관광자원화하면서 지역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호성, 2019: 1).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관광산업에 대한 기대와 효과가 크며(장효천·박구원, 2007), 관광산업 조건이 비슷한 지역간에는 관광목적지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의 공간 장소성을 활용한 독특한 관광자원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영주·최승단, 2004). 이렇게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관광자원 개발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개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임화순·남윤섭, 2019: 1852).

관광자원은 관광산업에 있어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관광객에게는 즐거움과 가치를 줄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한다(최용복·부창산·김민철, 2012: 380). 이러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광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하는 상품화가 중요하며, 관광객들은 더욱 특별한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공자원, 2011: 3).

관광목적지 선점을 위한 관광자원의 독특성을 개발하는 경쟁력을 설명하는 유사한 개념으로는 잠재력이 있으며, 잠재력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경쟁력 모델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 모델로는 Crouch & Ritchie(1999)의 관광 경쟁력의 잠정 및 지속가능 모델, Ritchie & Crouch(1993)의 켈거리 국제관광 경쟁력 모델, Dwyer & Kim의 관광목적지 경쟁력 결정모델, 공자원(2011)의 도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 잠재력 개발 평가모델, 이상민(2014)의 지역관광 잠재력 지표모델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관광자원에 대한 잠재력 연구는 관광자원이 지닌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고, 해당 자원의 특성과 가치를 분석하여, 관광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관광자원 잠재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역사문화자원이나 도시관광자원 연구에 치중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관광자원 잠재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공자원, 2011: 4). 또한 관광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관광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관광자원들은 많지만, 관광자원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개발이나 효용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봉구·이익수, 2006). 특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지역적인 독특성을 갖춘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고 유명 관광자원과 비슷한 형태로 개발하면서 관광자원의 낭비와 함께 국가 관광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으로 관광자원 개발의 주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지역의 관광개발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명확한 잠재력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타 지역과 해외사례를 그대로 옮겨오으로써 지역의 독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관광자원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강원도의 정선에서 처음 시작한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는 전국적으로 레일바이크 붐을 만들었으나, 철도가 없는 지역에서까지 새로운 철로를 만들어 레일바이크를 만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제주의 올레길 열풍으로 시작된 도보여행은 없었던 길도 새로 만드는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독특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관광자원 개발잠재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지역관광 잠재력 평가지표, 도시경쟁력지표, 도시 관광잠재력 지표 개발 등과 같이 도시

관광과 문화관광 중심으로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며, 실질적인 관광자원 잠재력을 해석하는 모델이나 지표를 개발하려는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이상민, 2014: 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어 왔던 역사문화자원과 도시 관광자원과 같은 인문관광자원에 치중되었던 연구 분야를 자연관광자원에까지 확대하여 전체적인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관련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세부항목을 파악한 후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 우선순위와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가 어떻게 구성되며, 어떠한 지표가 중요한 지표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서 관광자원 개발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 세부항목을 도출하고 우선순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관광자원에 대한 개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광자원 개발 경쟁이 심화되면서 관광자원에 대한 훼손과 중복개발 우려는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평가 지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관광자원을 개발할 때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표는 무엇인지? 중요한 지표들은 어떠한 수준에서 요구되고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의 상위차원과 평가지표를 정립하고 이에 따른 하위속성과 세부항목을 도출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관광자원 개발전략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과 함께 향후 확장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관광자원과 개발잠재력에 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광자원 개발정책 의사결정 연구와 기업의 관광산업

투자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개발 전문가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여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델파이 조사는 반복되는 조사와 피드백을 통해 평가요인을 유형화하는데 유용한 기법으로서 켈달 W 검증을 이용한 일치도 검증과 평균 중요도를 활용한 정제화 과정을 통해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도출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을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을 이용하여 속성별 가중치를 살펴봄으로써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AHP는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전문가 집단을 이용한 AHP분석을 이용하여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의 상위차원과 평가지표, 하위속성과 세부항목간의 위계를 정립하고 평가지표와 하위속성간의 상대적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로 도출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의 가중치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관광자원 개발전략 수립의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델파이 기법과 AHP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관광자원과 개발잠재력에 대한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해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상위차원과 평가지표를 도출함으로써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에 대한 학문적 토대를 구축한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상위차원과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전문

가 집단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으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의 하위속성과 세부항목을 1차 조사한다. 1차 델파이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항목을 정제화한 후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을 유형화하고 전문가 집단들에게 피드백함으로써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 세부항목을 도출한다.

셋째, 델파이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 세부항목을 유형화한 폐쇄형 2차 설문을 작성한 후 델파이 2차 조사를 실시한다. 2차 조사결과는 일치도 검증과 정제화를 거친 후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지표와 하위속성, 세부항목을 정리한다.

넷째, 2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평가지표와 하위속성, 세부항목으로 폐쇄형 3차 델파이 설문을 새롭게 작성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3차 조사를 실시하고, 3차 조사결과도 일치도 검증과 정제화 과정,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정리하여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 세부항목을 최종 확정한다.

다섯째, 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확정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들에 대해 AHP 기법을 이용하여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여섯째, 델파이 조사와 AHP를 통해 도출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에 대한 가중치를 통해 관광자원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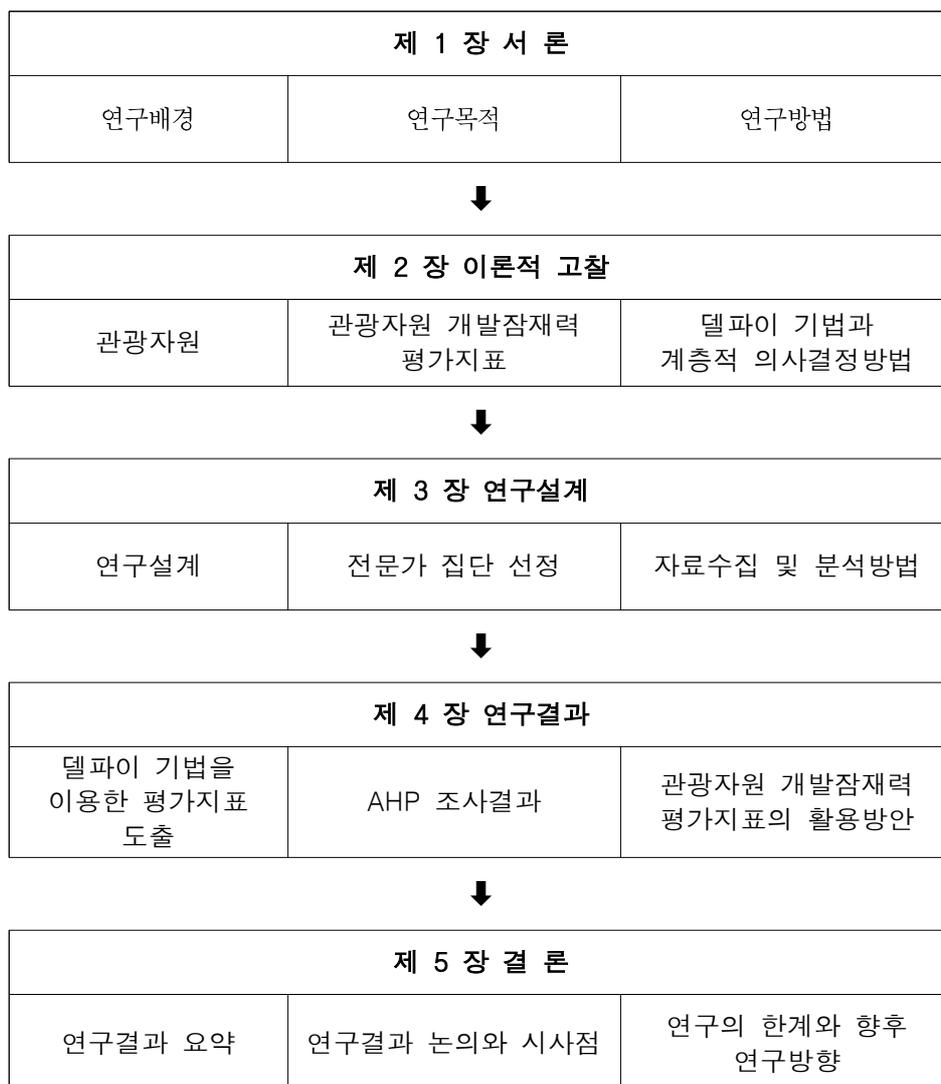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고문헌과 부록으로 설문지가 수록되어 있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 [그림 1-1]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제2장은 이론적 고찰로서 관광자원과 개발 잠재력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여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상위차원과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델파이 기법과 AHP기법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구 설계로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설계, 전문가 집단 선정,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등을 제시하였으며, 제4장은 연구결과로서 델파이 조사 결과와 AHP 기법을 이용한 우선순위 도출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점, 향후 연구를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구성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관광자원

1. 관광자원의 개념과 유형

인간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물건이나 에너지를 의미하는 자원(resources)은 자산을 만드는 재료와 사물로서 노동력을 포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정석중·이미혜, 2002). 즉, 자원은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의 발달과 소득의 증가에 따라 변화하며, 양적·질적·기술적 측면에서 경제성을 지니고 인간의 욕구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박석희, 1997). 따라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산에 이용되고 자연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되기도 하고, 기후와 지형과 같이 소비되지 않는 자원도 존재한다(황창윤·박명희, 2013).

관광자원(tourism resources)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다양하고 할 수 있는데, 관광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자원도 관광자의 욕구 변화와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가치를 지니게 되면서 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이와는 반대로 유명한 관광자원이었으나 점차 그 매력성을 상실해가는 관광자원도 있을 수 있다(박종찬·김성동, 2006). 이러한 점에서 관광자원은 관광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관광자를 관광목적지로 유인하고 이를 통해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경제성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광자원의 개념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 관광대상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관광자원은 다양한 유형의 관광자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관광동기나 관광행동을 유발시키거나 충족시켜줄 수 있는 매력성과 유인성을 지닌 유·무형의 자연적인 관광대상과 인문적인 관광대상으로 정의되고 있다(최규환, 2004).

이와 같은 관광자원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광자의 관광욕구와 동기를 유발시키는 매력성이 있는 관광대상으로서 관광행동을 유발시키는 유인력으로 가치를 높이는 유·무형의 모든

것”으로 관광자원을 정의하고자 한다.

〈표 2-1〉 관광자원의 개념과 정의

연구자	관광자원 개념 및 정의
김성기(1988)	관광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울러 관광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제반요인과 요소들의 총체
김병문(1990)	관광자의 여행 목적물로서 지역의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 행사와 무형의 전통적 풍속이나 관습의 총칭이며, 관광자를 주체로 생각할 때 주체가 장소이동의 목적물이 되는 객체인 대상물
김홍운(1994)	관광자의 욕구나 동기를 일으키는 매력성과 관광 행동을 유발시키는 유인성을 갖고 있으며, 개발을 통해 관광대상이 되고,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동시에, 자연·인문자원과 유·무형의 자원으로 범위가 넓으며, 사회구조와 시대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 보호와 보존이 필요한 것
이장춘(1997)	관광 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생태계 내의 유·무형의 자원으로 보호 또는 보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치와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 자원
박석희(1997)	매력성과 유인성으로 관광자의 관광동기나 관광행동을 유발하여 관광자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유무형의 소재로써 관광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요소
정석중·이미혜(2002)	관광자 욕구충족과 동기를 유발시키는 관광대상으로서, 자원의 특성상 보호·보존·보전이 필요한 동시에, 자원가치가 시간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용특성상 현장성과 장소성을 지닌 것
김영준·최승묵(2004)	법·제도적 측면의 관광자원은 주로 개발 또는 관리수단의 활용을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 관광특구,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과 자연공원법상의 국립공원, 온천법의 온천 등과 같이 법·제도적으로 명문화된 절차에 의해 개발·이용·관리·보전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경우
윤대순(2005)	인간의 관광욕구 대상이 되고, 관광행동을 유발시키는 가치를 지닌 유무형의 모든 것
박종찬·김성동(2006)	인간에게 가치를 지닌 모든 유·무형의 존재들을 자원이라고 한다면, 이 자원이 관광분야에 이용되면서 관광자를 유인하고,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산업성을 가지고 있는 것
본 연구	관광자의 관광욕구와 동기를 유발시키는 매력성이 있는 관광대상으로서 관광행동을 유발시키는 유인력으로 가치를 높이는 유무형의 모든 것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정리.

관광자원 개발은 1980년대 이전의 우리나라에서도 외화획득의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제주 중문관광단지과 경주 보문관광단지과 같이 정부 주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개발 전략으로 사용해왔다. 1984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개최를 통해 해외 여행자유회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민간의 관광자원 개발 사업 참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199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관광자원 개발정책이 지방자치단체로 일부 이양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관광개발이 이루어고 있다(정남식, 2018: 8-9). 2020년대 이후부터는 중앙정부가 관광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농촌, 해양(섬), 산악, 문화, 생태, 도시, 지역산업, 융복합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자원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김향자·최자은, 2017).

이렇게 지방자치제가 정착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각종 관광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지역의 역사성, 다양성, 문화성 및 개성 등을 이용하여 지역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광자원화하면서 지역발전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호성, 2019: 1). 이러한 관광자원에 대한 개발은 관광자의 욕구 충족과 지역 주민의 소득 및 복지향상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이환봉, 2007: 8). 도시지역은 문화역사자원을 중심으로, 농어촌지역은 농어촌 어메니티를 중심으로, 생태지역은 생태자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관광자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관광자원은 원래 그 자체에 문화역사, 어메니티, 생태 등과 같은 관광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광개발이라는 인공적인 수단이 추가되면 매력적인 관광대상으로 진화한다. 관광자원이 거의 없는 낙도지역에서도 인공적인 수단을 활용한 관광자원이 개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문화와 같이 상당한 관광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원을 개발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이 관광자원 유형에 따라 자연자원과 인문자원 등 2개의 자원만을 관광자원으로 보는 관점이 있으며, 관광자원의 가치와 유인력을 높이기 위해 수반되는 제반요소도 포함시키는 관점도 있다(양광호, 2009).

관광자원의 유형에 대해 연구목적 및 자원의 성격, 이용수준, 토지이용단위, 자원입지 등에 따라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며, 크게 자원입지, 이용수준, 자원의 성격에 따른 분류로 요약할 수 있다(박석희, 1997: 51). 자원입지에 따른 분류는 관광·위락활동이 발생하는 장소를 자원중심형, 중간형 지역, 이용자 중심형으로 구분하는 것이며(Shaw & Williams, 1994), 이용수준에 따른 분류는 어떠한 관광활동을 통하여 어느 정도 다양한 관광경험이 제공되고 있는가에 따

라 분류하는 방식이다(박석희, 1997: 53). 자원의 성격에 따른 분류는 자원의 어떠한 특성에 의존하여 관광매력을 보유하게 되는가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으로서 자연적인가, 문화적인가, 인공적인가로 구분하고 여기에 토지이용 단위를 기준으로 자연자원 의존형과 문화자원 의존형, 인공시설자원 의존형으로 나뉜다(Gunn, 1994). 이상과 같은 분류 외에도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자원의 성격에 따른 유형분류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관광시장의 다양화와 연구목적에 따라 사회적 자원과 산업적 자원 등이 추가되어 분류되는 실무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김영준·최승묵, 2004).

이상과 같은 관광자원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관광자원의 유형

연구자	관광자원 유형
Jafari(1974)	자연자원 의존형, 문화자원 의존형, 인공시설 의존형
Gunn(1994)	자연의존형, 문화자원 의존형, 인공시설 의존형
김사헌(1997)	자연자원과 인문자원
이장춘(1997)	자연관광자원, 인문관광자원, 인적관광자원, 비인적 관광자원
이후석(1999)	자연관광지, 문화관광지, 복합형 관광지, 위락형 관광지
정석중·이미혜(2002)	자연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 산업자원
김철원(1999)	문화자원 의존형, 자연의존형, 인공시설 의존형
Melian-Gonzalez & Garcia-Falcon(2003)	자연관광자원, 문화관광자원, 인적관광자원
이현중(2007)	자연·휴양형, 사회형, 역사문화형, 위락형
김정준(2010)	자연중심형, 문화중심형
본 연구	자연중심형, 인문중심형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정리.

본 연구에서는 관광자원의 내포하고 있는 가치와 성격을 감안하여 관광자원의 유형을 자원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의 가치와 유인력을 높이는 인적자원이나 인공시설들은 자원의 특성과 성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뉴욕의 자유여신상이나 555m의 서울롯데월드타워와 같은 인공시설물은 자원의 특성이 미국과 프랑스의 역사, 그리고

현대사회의 고층 문화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인문관광자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센터와 같은 인공시설물은 자원의 성격이 세계자연유산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자연관광자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관광자원의 유형을 김사현(1997)과 김정준(2010)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연중심형 관광자원'과 '인문중심형 관광자원'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렇게 자연중심형 관광자원과 인문중심형 관광자원으로 분류하는 것은 관광자원을 구성하고 있는 사물, 즉, 각종 환경요인 및 주변 요소를 활용하여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평가할 객관적인 단위와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을 효율적으로 측정하려는 데에 있다(공자원, 2011: 20).

2. 관광자원 유형

1) 자연중심형 관광자원

자연중심형 관광자원은 지형과 생태, 자연현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형에는 산악, 고원, 호수, 계곡, 폭포, 섬, 해안, 온천, 화산, 동굴 등을 포함하고 생태에는 동물과 식물, 자연현상은 일몰과 일출, 별자리, 오로라, 신기루 등 자연현상을 포함하여 분류할 수 있다(이광우, 2003: 11). 일반적인 자연자원은 산악, 호수, 계곡, 폭포, 하천, 해안, 섬, 온천, 화산, 동굴, 동식물 등 다양한 자원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자연자원과 자연중심형 관광자원은 가치의 부여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가치 부여 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인 자연자원은 인간에게 효용가치가 있으면서 기술을 매체로 한 경제적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서 인간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경제자원(economic resources)이 구체적인 대상이 된다(남극식, 1997: 16). 반면, 자연중심형 관광자원은 관광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소와 관광 재화로서의 가치가 함유된 물질이어야 하는데, 관광자의 소비에 의해 비로소 그 가치가 결정되므로 이의 상관관계에 따라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다(이상춘, 1999: 18).

이러한 가치부여 문제와 관련하여 자연자원과 자연중심형 관광자원간의 차이는 자연자원이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를 모두 고려하는 반면에 자연중심형 관광자원의 경우에는 이용가치만으로 한정된 가치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자연자원은 광물, 산림, 수자원 등

과 같은 생산요소로서 원자재가 되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생산과정에서 생산물을 생산하고 소비해 버리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연중심형 관광자원은 이용하거나 소비함으로써 원형이 없어지거나 형태가 달라지지 않는지만 잘못 이용하게 되면 파괴되고 손실될 우려가 있는 대상을 말하며 이와 같은 의미에서 자연중심형 관광자원은 포괄적인 의미의 자연자원과는 그 성격상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김중은, 1988: 146). 그러나 일반적 의미의 자연자원을 자연중심형 관광자원과 비교한다면 자원에 대한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의 문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연은 아름다운 경관과 옥외 위락 그리고 동식물의 존재가 가져다주는 가치를 인간에게 제공하지만 개발에 따른 자연의 파괴로 말미암아 자연중심형 관광자원은 점차 양이 감소하고 질도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파괴 현상은 경제 성장에 따른 불가피한 비용으로 간주되어왔으며 자연은 일단 파괴되어 버릴 경우에는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는 자연환경의 비가역성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자연관광자원 개발에서의 과제는 자연자원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금까지의 개발 방식을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성장 정책을 수행하면서 자연자원과 환경의 중요성과 역할에 관해서는 거의 관심을 쏟지 않고 기술과 인적자본의 개발만을 중시하였다(신의순, 1992: 11-16).

자연중심형 관광자원에 대한 사회적 최적 이용이 왜곡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연중심형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간의 의사결정 문제를 시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사회적·환경적인 부정적 효과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개발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중심형 관광자원을 “관광자의 관광욕구와 동기를 유발시키는 자연적 매력성이 있는 관광대상으로서 관광행동을 유발시키는 유인력으로 가치를 높이는 자연지형과 생태, 자연현상이 포함된 유무형의 자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인문중심형 관광자원

현대인의 문화에 대한 소비 증대는 인문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인문자원을 보존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것을 인문자원의 관광자원화라고 할 수 있다. 인문자원은 문화유산을 지칭하는 협의의 정의에서부터 인간의 생활 문화 모두를 의미하는 광범위한 정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인문자원이 관광자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인문자원이 학습, 성찰, 체험의 측면에서 관광상품화 될 때 비로소 인문중심형 관광자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문중심형 관광자원은 문화유산으로서 국민들이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고, 관광매력을 지닐 수 있는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을 총칭하는데, 연구자들마다 인문중심형 관광자원을 포함시키는 범위가 다양하고, 인문중심형 관광자원의 종류 및 영역을 분류하는 기준도 매우 다양하다.

유럽 지역전통문화센터(ECTARC: European Centre for Traditional and Regional Cultures)에서는 관광자들이 방문할 수 있는 인문중심형 관광자원을 유산·유물, 건축물, 예술, 축제·이벤트, 음악·춤, 드라마, 언어·문헌연구, 여행·성지참배, 완전·하위문화라고 하였다(Richards, 2000). 이러한 특징들은 상위문화(high culture)로서의 인문중심형 관광자원에 대한 개념 및 문화과정의 참여보다는 문화상품 소비에 방향을 맞춘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문화관광의 대상이 유적지와 기념물을 찾아가는 것, 혹은 과거의 유물과 예술, 전통공예 등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을 관광하는 것으로부터 일반적인 생활양식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공자원, 2011: 20). 그리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에서는 서울시에 분포하는 모든 인문자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화자원의 범주를 문화재, 성곽 및 옛 도시경관, 근대문화 유산, 박물관으로 크게 나누고, 각각의 종류 및 분포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문화재 중 특정한 범위를 점유하고 있는 문화재로는 국보, 보물, 사적, 지방문화재, 등록문화재로 나뉘는데,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문화재의 가치에 따른 것이다. 즉, 주요 문화재 중 유물처럼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공간)를 차지하고 있는 문화재도 포함한다(백선희, 2007).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인문중심형 관광자원은 문화자원의 형태 및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같은 문화자원이라도 자원의 속성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인문중심형 관광자원을 “관광자의 관광욕구와 동기를 유발시키는 인문적 매력성이 있는 관광대상으로서 관광행동을 유발시키는 유인력으로 가치를 높이는 문화적·사회적·산업적으로 포함된 유·무형의 자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문중심형 관광자원을 문화적·사회적·산업적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문화적 관광자원은 유·무형 문화재와 민속자료, 공예품, 건축물 등과 같은 문화유산을 포함하며, 사회적 관광자원은 사회제도와 풍속, 생활양식, 의식주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산업적

관광자원은 공장시설과 농장, 목장 등 공업과 상업, 농수산업 관련시설 등을 포함한다(이광우, 2003: 11).

3. 관광자원 개발의 환경요인

관광자원 개발은 국토개발, 지역사회, 주변상황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해가는데 그 변화과정을 분석하면 일정한 형태를 보이며, 그 변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박석희, 1997).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그 범위도 넓고 수도 많기 때문에 환경을 막연하게 전체를 보는 것보다는 유형화함으로써 관광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하고 환경에 대한 예측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오상훈·고계성, 2000; 장병권, 1995: 115).

Coffey & Athos(1975)는 조직론의 관점에서 환경을 외부환경(external environment)과 내부환경(internal environment)으로 나누었으며, Starling(1988)은 기업경영적 차원에서 환경을 거시환경(macro-environment)과 근접환경(intermediate environment)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Liu(1994)는 국가관광발전 측면에서 관광환경을 내부환경(internal environment), 운영환경(operating environment), 그리고 거시환경(macro-environment)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교통개발연구원(1990: 19)에서는 관광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국제적 환경과 국내적 환경으로 크게 나누고 다시 이들 각각을 정치, 경제, 사회·지역, 시장, 산업, 기업, 기술적 환경으로 세분하여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기준을 토대로 관광자원 개발 환경에 대해 구분하면, 내적환경과 외적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석희, 1997).

1) 내적환경요인

내적환경요인은 자원요인과 지역사회요인, 마케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원요인으로는 관광자원의 매력성과 쾌적성이 있는데, 매력이 없는 곳에는 관광자원이 존재할 수 없고 그 곳에는 특별한 교통수단이나 숙박시설, 시장전략 등은 필요가 없다. 관광객이 어떤 지역을 방문하게끔 끌어들이는 힘은 숙박시설 또는 값싼 교통편에 있기 보다는 그 관광자원의 관광 산출물 즉, 관광서비스가 제공되는 매력의 복합체이다. 따라서 관광서비스는 이와 같이 관광자원의

매력에 크게 의존한다(Hawkins, 1980: 311-2).

그리고 관광자원이 아무리 매력적이더라도 관광객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쾌적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그곳의 관광잠재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쾌적한 숙박시설과 식음시설을 의미하며, 교통시설 및 유흥시설도 포함하게 되며, 쾌적성은 그곳의 매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Holloway, 1983: 10-1). 다음은 마케팅으로서 관광시장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주시하면서 부단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어야 한다. 관리 담당자는 신문과 잡지도 보고, 경쟁 관광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 시장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때 효과적인 방법은 상품과 시장의 확장 매트릭스를 짜볼 수 있다. 즉, 4가지 마케팅 활동단계로 구분하여 작성함으로써 적절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Kotler, 1983: 34-5). 마지막은 지역사회요인으로 지역 내의 인구, 연령구조, 소득수준, 산업구조, 토지이용현황 등이 관광자원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2) 외적환경요인

외적환경요인으로는 시장요인과 교통요인, 보완·결합요인, 외부정책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장요인은 관광자원이 속해 있는 관광목적지의 인구, 소득, 여가시간, 선호도 등에 의해 산정되는 잠재수요가 관광자원 유형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활동에 따라 관광목적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활동을 가정하여 시장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교통요인은 관광자원에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관광자원까지의 접근성의 용이함이다. 불편을 감내하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러 가는 곳이라면 아무리 매력성이 뛰어나더라도 교통편이 편리하여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한 그곳은 관광자들을 불러들이기 어렵다.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은 시간적 거리와 요금의 적정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규적이고도 편리한 교통수단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통이 너무 좋은 곳은 방문객들이 너무 많이 몰려 혼잡을 빚어냄으로써 관광자원의 매력을 오히려 떨어뜨리게 된다(Holloway, 1983: 11).

다음은 보완권과 경험권 내의 숙박시설 유형과 수이다. 숙박시설의 형태변화는 방문객 수의 증대에 따른 것으로 그 증대는 지명도 상승, 새로운 관광시설의 정비, 도로조건의 변화 등에 의해 일어난다. 숙박시설은 대개 민간인이 경험하는 것으로서 그 정비와 건설은 특정한 규제 지역 외에서는 자유로이 행해진다. 따라서 계획적인 발전을 거치기가 어렵고 그 지역 특성과

는 상반된 형태로 발전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숙박업의 경우에는 보통 타지역의 사람들이 오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관광자원의 발전에 대해 숙박시설 자체는 오히려 관광자원의 매력을 저하시키는 경우도 있다.

보완권 또는 경합권 내의 관광시설과 유형 및 수도 관광자원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관광자원의 형태에 특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시설의 잠재력이다. 예를 들어 스키장 설치가 가능하고 공원 건설도 가능하다면 이 지역은 당연히 장래에 어떤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시설의 설치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그대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며, 그 설치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현상 등과 같이 관광자원의 형태 변화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환경 요인이다. 관광자원이 속한 지역 또는 국가의 시책이 지역 관광발전에 상위개념으로 적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 또는 위락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한 관광산업은 특성상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는 특성이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정치·외교·경제적 관계에 의해 다양한 결정과 변화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국가마다 정치·행정적인 차이와 문화적인 이질성에 의해 관광산업이 다르게 조성되고 탐구되고 있지만 관광이라는 하나의 산업 특성에 맞추어서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김태훈, 2019: 39).

제2절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

1. 개발 잠재력

잠재력은 사전적 의미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힘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에서 ‘잠재력’이란 단어는 영어의 ‘potentiality’나 ‘capacity’ 또는 ‘capability’로 대체될 수 있다. 이들 중 ‘potentiality’는 성장이나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내재된 능력(inherent ability or capacity) 또는 성장이나 발전을 위한 능력(capacity)으로 해석된다. ‘capacity’는 성장이나 발전 또는 성취를 위한 타고난 잠재력으로 해석되며, ‘capability’는 개발이나 활용을 위한 잠재능력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활용되거나 개발될 수 있는 역량(capacity)으로 해석될 수 있다(김태

환, 2004). 따라서 이러한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이들 세 단어는 모두 잠재력이란 용어로 표현될 수 있으나, 실제로 학자들 역시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개념상으로도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고 있다(한호성, 2019: 34).

관광잠재력은 관광을 형성하는 다양한 구성요인이 특정한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힘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관광자원 잠재력 평가는 관광자원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여 그 자원을 보호하려는 조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그 효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엄수원, 1998). 이때, 잠재력이라는 것은 한 지역이 지니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활용으로 발전 내지 성장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현재의 내적 소지 또는 가능성의 정도를 뜻한다(박현정, 2000). 따라서 잠재력은 개발 이전의 잠재적 상태로서 관광자와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심미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문화의 고유성과 근본적인 생태계 과정, 그리고 생물학적 다양성 등과 같은 환경보전체계를 유지하면서 관광자원을 계획·개발·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장래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소지라고 할 수 있다(임상택·야은숙, 1997; 장성수, 1998: 12).

이러한 의미에서 관광자원의 잠재력 평가는 관광자원의 가치와 성격을 분석하여 잠재력의 효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현상을 살펴보면, 관광자원의 잠재적인 가치를 분석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는 관광자원 잠재력의 효용에 대한 무관심에서 기인한 것으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관광자원 잠재력에 대한 중요성과 한계를 인식하고 개발대상 자원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공자원, 2011: 40). 즉, 관광개발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개발대상 지역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차이와 관광객의 요구에 관한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고려된 가운데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특성의 차이는 결국 관광자원 개발 가능성을 측정함에 있어 절대적인 이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기법 도입이 필요하다(박석희, 1997). 그러나 관련 연구와 문헌들을 살펴보면, 관광자원에 대한 실제적인 잠재력을 분석하는 모델이나 지표개발 연구는 빈약한 실정이다. 많은 선행 연구와 문헌들에서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언급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관광자원에 대한 개발 잠재력을 분석하는 모델이나 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표 2-3〉 관광자원 잠재력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관광자원 잠재력 선행연구
장병익·이수동(1997)	울산의 관광산업 수급 문제점 분석 및 제기를 위해 울산을 5개 관광권역으로 나누어 이들 지역의 개발방법을 제시
임상택·야은숙(1997)	관광특구의 관광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한 이태원지역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함. 관광수용시설 분석,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 안내체계 및 관광광고, 접근성 및 입지, 관광제도 및 행정, 인적서비스를 중심으로 이태원관광특구의 관광잠재력을 분석함
엄수원(1998)	지역별 관광잠재력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상에서의 공간적 분포패턴의 국토공간을 살펴보고 각 지역 특성별 관광자원의 관광잠재력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방법을 적용함
장성수(1998)	관광지 개발잠재력 평가요인과 투자결정 경로 연구를 통해 관광지 개발잠재력 평가요인을 수요적 측면, 공급적 측면,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측면, 투자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박구원·김홍식(2002)	경기도의 관광자원 특화, 관광자원 체계화에 대한 개발잠재력을 검토함. 조사대상 지역의 15개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의 이용특성, 이용행태, 체류 및 소비행태를 조사함
박진권(2004)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이용객 지각에 대한 연구를 실시함. 관광 개발잠재력에 대한 항목으로 정책 입안자의 능력, 지역주민 의식, 민간투자 의욕, 관광자원 잠재력, 개발전망에 대해 조사함.
김종택(2005)	안면도의 관광잠재력을 분석함. 접근성(지역내, 지역간, 국제교통적 여건), 지역특성,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관광시설(기반시설 및 숙박), 관광서비스 체계(관광안내 서비스체계, 연계관광 서비스 체계, 관광서비스 생산관리 체계)로 나누어 분석함.
민동규(2005)	신행정 수도의 지역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관광잠재력에 선행연구를 통한 수요관련, 공급관련 잠재력 평가와 외부환경 관련 잠재력 평가요인별 세부적인 평가요인을 제시함
지봉구·이익수(2006)	충북지역 관광잠재력을 평가함. 자연환경적 잠재력(지리적 여건, 기후여건, 지형적 여건, 생물적 여건), 인문환경적 잠재력(교통여건, 관광시장성, 역사문화적 특성), 관광환경적 잠재력(관광자원, 관광상품, 관광시설, 관광전문인력, 관광자원 시스템)으로 나누어 분석함.
이상철(2006)	한반도 관광컨벤션 잠재력 분석을 위한 인문, 자연환경적 잠재력 분석
김대식·최현정(2007)	농촌마을의 관광잠재력 평가기법을 연구함. 인적자원, 마을 어메니티 자원 및 평가항목을 이용한 기법 개발

(표 계속)

연구자	관광자원 잠재력 선행연구
김철원(2010)	도시 관광경쟁력 지표를 개발하면서, 관광환경과 인프라, 관광가격 가치, 도시화, 관광 거버넌스, 관광 지식자원, 관광 인적자원 등 총 6개 지표를 도출
공자원(2011)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 잠재력 개발 평가지표 연구를 수행하면서 공간요인, 인적요인, 관광자원 요인, 정책요인 등 4가지 요인을 도출함.
이상민(2014)	지역관광 잠재력 평가 지표 개발 연구를 수행하면서 자원, 지원, 접근성 등 3개의 요인을 도출함.
이진식(2015)	도시관광 경쟁력 평가모델을 개발하면서 지자체 역량, 인적자원, 지적자원, 관광인프라, 창조문화 역량, 관광성과 등 총 6개 지표 도출
한호성(2019)	경기도 부천시의 도시관광 잠재력 평가지표를 연구함. 관광목적지의 공간구조 중심, 인적특성 중심, 자원중심, 지자체 역량 중심으로 분석함.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정리.

관광자원 잠재력에 대해 Burkart & Medlik(1981)은 접근성(accessibility), 매력성(attractiveness), 이미지(image), 관광시설(tourism facilities), 하부구조(infrastructure)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접근성은 관광자의 거주지에서부터 관광지까지의 근접성, 매력성은 관광자를 유인할 수 있는 흡인요인으로, 이미지는 여행참여를 유도하는 직접적 요인, 관광시설은 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여주는 요소, 하부구조는 관광객에게 기초적 편의를 제공하는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Ritchie & Crouch(2003)는 핵심자원과 매력요인(core resources and attractors), 지원 요인 및 자원(supporting factors and resources)을 기초로 관광지 관리(destination management), 관광정책, 계획 및 개발(destination policy, planning and development)이 이루어지며, 자격 부여와 매력증폭의 결정요인(qualifying and amplifying determinants)을 바탕으로 하여 관광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결정이 된다고 하였다. 핵심자원과 매력요인은 관광목적지 방문의 주요 동기가 되며, 타 요소들은 성공과 수익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핵심자원과 매력요인은 자연지리와 기후(physiography and climate), 문화와 역사(culture and history), 시장연계(marketties), 활동믹스(mix of activities), 특별이벤트(special events),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상부구조(superstructure) 등의 6개 범주로 나뉜다. 지원 요인 및 자원은 관광산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 설립이 가능케 함으로써 핵심자원과 매력요인에 비해 부차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요인들을 말한다. 여기에는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접근성(accessibility), 촉진자원(facilitating resources), 환대산업(hospitality),

기업(enterprise) 등이 있다. 이러한 핵심자원과 지원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관광지 관리를 수행하게 되는데, 관광지 관리는 핵심자원 및 매력요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지원요소 및 자원의 품질과 효과를 강화한다. 관광지 관리에는 자원관리(resource stewardship), 마케팅(marketing), 재무/벤처 자금(finance and venture capital), 조직(organization),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정보/조사(information/research),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방문객 관리(visitor management) 등의 8개 범주가 있다.

Ritchie & Crouch(2003)의 관광지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광정책(tourism policy)'이다. 관광정책이란 관광목적지에서 수행되는 관광개발과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집단과 개인의 의사결정 내에서의 체계를 제공해 주는 법령, 규칙, 가이드라인, 지시, 개발/프로모션 목적과 전략의 집합을 의미한다. 관광정책, 계획 및 개발에는 시스템 정의(system definition), 철학(philosophy), 비전(vision), 감시(audit), 포지셔닝(positioning), 개발(development), 경쟁적/협력적 분석(competitive/collaborative analysis), 모니터링/평가(monitoring/evaluation) 등의 8개 범주가 있다.

〈표 2-4〉 Ritchie & Crouch(2003)의 관광지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모델

핵심자원과 매력요인	자연지리와 기후, 문화와 역사, 시장연계, 활동믹스, 특별 이벤트, 엔터테인먼트, 상부구조
지원 요인 및 자원	사회기반시설, 접근성, 촉진자원, 환대산업, 기업
관광지 관리	자원관리, 마케팅, 재무/벤처 자금, 조직, 인적자원개발, 정보/조사, 서비스 품질, 방문객 관리
관광정책 계획 및 개발	시스템 정의, 철학, 비전, 감시, 포지셔닝, 개발, 경쟁적/협력적 분석, 모니터링/평가
자격부여와 매력증폭	위치, 상호의존성, 안전/보안, 인지/이미지/브랜드, 비용/가치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정리.

최종적으로 관광목적지가 관광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격 부여와 매력 증폭의 결정요인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상황적 조건(situational conditions)이라고 한다. 위치(location),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ies), 안전/보안(safety/security), 인지/이미지/브

랜드(awareness/image/brand), 비용/가치(cost/value) 등이 자격부여와 매력증폭의 결정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Ritchie & Crouch(2003)의 모델은 관광경쟁력의 개념에 대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이지만, 범주의 세부적 항목이 명확히 도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쟁력 분석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이진식, 2015). 앞의 선행연구를 통해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요인들을 파악해 보았다. Burkart & Medlike(1987)은 관광자원을 접근성(accessibility), 매력성(attractiveness), 이미지(image), 관광시설(tourism facilities), 하부구조(infrastructure)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접근성은 관광자의 거주지에서부터 관광지까지의 근접성, 매력성은 관광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흡인요인으로, 이미지는 여행참여를 유도하는 직접적 요인, 관광시설은 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여주는 요소, 하부구조는 관광객에게 기초적 편의를 제공하는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Ritchie & Crouch(2003)는 핵심자원과 매력요인(core resources and attractors), 지원 요인 및 자원(supporting factors and resources)을 기초로 관광지 관리(destination management), 관광정책, 계획 및 개발(destination policy, planning and development)이 이루어지며, 자격 부여와 매력증폭의 결정요인(qualifying and amplifying determinants)을 바탕으로 하여 관광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한호성(2019), 이상민(2014), 공자원(2011) 등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의 상위차원을 공간중심, 자원중심, 수요중심, 관리중심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의 상위차원을 공간중심적 접근차원과 자원중심적 접근차원, 수요중심적 접근차원, 관리중심적 접근차원으로 구분하였다.

2.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1) 공간중심적 접근방법

관광개발은 자연공간에 인간이 접근하여 그 지역이 지닌 관광자원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관광자에 대한 견인력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관광공간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공간중심의 접근

은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평가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장성수, 1998: 22).

공간중심적 접근방법은 관광자원의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관광자원의 공간배치에 따른 개발 잠재력의 차이를 중시한다(Ryan, 1991). 즉, 동일한 공간조건이 주어진다고 해도 관광욕구나 관광대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광공간 분포의 집적 정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Hanson, 1980). 따라서 관광자원의 접근성과 매력성에 따라 어느 위치에서 개발할 것인지, 혹은 관광자원 개발의 혜택을 가능한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주변 관광인프라와 연계하여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Lavety & Doren, 1990).

관광자원의 잠재력 평가에 있어서 공간을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광수요 시장의 변화, 관광대상의 변화, 그리고 관광자원 자체의 독특한 공급요소의 재개발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를 거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이봉석·심인보·이미혜·김창수·송재호, 2010). 이러한 공간중심적 접근에 대해 공자원(2011)은 접근성, 주변경관 및 연계관광자원, 관광지원·편의시설을 중요 속성으로 선정하였으며, 한호성(2019)은 공간잠재력 속성을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 관광인프라, 안전을 포함한 것을 공간적 속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간중심적 접근의 평가지표를 접근성과 관광인프라로 설정하였다.

(1) 접근성

접근성과 관련된 관광연구들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측면에서 다양한 교통 및 통행과 관련된 요인들을 중요시하면서 접근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Gunn(1979)은 관광자원의 평가항목에 있어서 접근성의 교통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였고, Gold(1980)는 여행교통수단과 비용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접근성은 관광이동을 위한 의사결정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써 주로 입지이론, 교통계획,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이용되며 발전하였다. 또한, 접근성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시각적·공간적 편의성으로 판단하기도 한다(손정열·오수정, 2007).

Kwan & Weber(2003)은 접근성을 ‘장소의 접근성(place accessibility)’과 ‘사람의 접근성(individual accessibility)’으로 분류하고, 각각 특정 장소가 다른 장소에 얼마나 가까운가? 혹은 접근하기 쉬운가?와 각 개인이 얼마나 도시공간에 분포하는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노정현과 류재영(1994)은 접근성이란 어떤 부류의 개인이 주어진 위치에서 어떤 특별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발생된 기회와 관련이 있으며, 접근성의 개념을 각

중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교통과 토지이용체계에 의해 제공되는 기회 또는 잠재력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접근성은 공간에 대한 배려가 더해져 공간 접근성이라는 개념으로 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측면에서 적용되고 있다(장우석, 2013: 17).

이상민(2014)도 접근성(accessibility)을 지역의 잠재적인 접근성과 현실화한 접근성을 포함하며 각종 관광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잠재력 또는 기회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김광식(1987)은 접근성 측정의 개념을 교통공학, 교통계획, 도시경제학, 도시계획, 교통지리학 등 5가지 학문분야에 따라 분류하면서, 접근성은 하나의 종합적인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측정치가 아니라 연구분야에 따라 매우 다양한 개념과 정의로 인해 모호하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접근성의 개념을 정리하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정일호·강동진, 2002), 첫째는 지역간 공간분리도(degree of spatial separation)이다. 어느 한 지점의 접근성은 다른 지점으로부터의 공간적 입지 함수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간 거리 또는 통행비용, 시간 등으로 상대적 근접성을 설명할 수 있다(Muraco, 1972). 이러한 개념은 교통체계상 통행비용에 의한 그 지역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정도의 역수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Savigear(1967), Zakaria(1974), Kundsén & Kanafani(1974)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최창식, 2004: 14-5).

둘째는 개인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기 위한 기회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Hansen(1959)은 고용에 대한 기회의 크기에 따라 인구의 공간적 분포가 결정된다고 언급하면서, 지역의 접근성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경제활동의 크기, 즉 고용이나 기타 서비스에 대한 토지이용상의 입지조건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Wachs & Kumagai(1972), Dalvi & Martin(1976)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까지의 통행비용 크기에 따른 활동기회의 감소를 고려함으로써, 접근성에 토지이용과 교통요소를 동시에 포함한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념은 지역 활동모형 개발의 기초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통·토지이용 체계를 통해 얻어지는 소비자 잉여(consumer's surplus) 또는 순편익(net benefit)이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상품으로부터 얻는 총 편익과 상품에 대해 지불한 총액과의 차이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접근성 개념은 교통·토지이용 체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총 편익이 그 상품에 대하여 교통비용으로 지출한 화폐가치보다 큰 경우 얻게 되는 초과효용을 의미한다. 이는 Williams(1976), Leonadi(1978) 등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노정현·류재영,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접근성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은 지역간 거리와 통행비용, 시간 등과

같은 공간적 거리정도, 활동 기회의 크기, 교통비용과 상품비용에 따른 초과효용 등으로 구분하였다.

(2) 연계자원

다음으로 공간중심적 접근차원의 평가지표인 연계자원이다. 공간요소 중에 관광자원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계되는 자원들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관광자원이라는 속성을 고려할 때 관광자원이 위치한 관광목적지의 쇼핑과 숙박, 음식, 교통 등의 소비적 기능을 고려한 관광 관련시설도 연계자원에 포함된다. 이러한 관광 관련시설들은 관광자를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한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정형기, 2007: 45).

연계자원은 이와 같은 관광관련 시설 외에 도로, 공항,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처리 시설, 경찰, 소방서 등과 같은 지원시설도 포함된다(김향자, 2008). Gold(1980)는 대안관광 자원의 이용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해당 관광자원과 그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주요 관광자원들의 특성, 해당 관광자원까지의 거리, 이동가능 정도 등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연계자원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은 관광자원 주변의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의 관광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공항, 도로, 경찰, 소방서 등과 같은 사회지원시설도 포함되며, 이러한 시설의 수와 특성, 이동가능 정도 등이 포함된다고 하겠다.

2) 자원중심적 접근방법

자원중심적 접근방법은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해당 자원의 자체 특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법으로서(한호성, 2019), 관광자원 스스로의 힘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끌어당기고, 이로 인해 관광자와 투자의 집적기회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자원 자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접근방법이다(장성수, 1998). 따라서 관광자원이 인적·물적 자원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관광자원의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관광자원의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를 정확히 측정하여 개발과 보전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가치는 중요한 평가지표라고 하겠다(한범수, 1996).

또한, 관광자원 개념에서 관광자원은 관광자의 관광욕구와 동기를 유발시키는 매력성이 있

는 관광대상으로서 관광행동을 유발시키는 유인력으로 가치를 높이는 유무형의 모든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여기에서 관광자원의 가장 큰 특성인 매력성과 유인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Swarbrooke(1995: 27)는 인적 자원보다 관광자원이 보유하고 있는 매력물을 중심으로 자원의 성격과 특징, 적용대상과 범위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관광자원의 매력성 또한 자원중심적 접근차원의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가치

관광자원은 관광자의 주관에 따라 관광가치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범위도 광범위하고 경제성을 띠고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김종은, 1998: 146). 이러한 관광자원이 제공하는 가치는 이용가치(usevalue)와 비이용가치(non-usevalue)의 합이며, 이용가치는 실제로 소비함으로써 누리는 편익을 의미하는데, 직접 이용가치와 간접 이용가치로 구분된다(이광우, 2003: 13). 비이용가치는 관광자원의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이용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관광자원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발생하는 가치를 의미한다(김승우, 2000: 104).

관광자원과 같은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대표적인 평가방법은 대리시장 정보를 이용한 여행비용법(TCM), 잠재가격을 통해 추정하는 헤도닉가격 결정법(HPM), 수혜자가 직접 설문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등이 있다(최나리·김재원, 2009). 이 중 여행비용법과 조건부 가치평가법을 중심으로 관광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CVM이 주를 이루고 있다(신종일, 2017).

비이용가치는 보전가치(preservation value)라고도 하는데, 선택가치(option value), 존재가치(existence value), 유산가치(bequest value)로 구분되며, 선택가치는 관광자원을 이용한 경험은 없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관광자원의 보존을 위해 부여하는 가치를 의미하며, 존재가치는 현재도, 앞으로도 이용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관광자원이지만, 존재하고 있음에 만족감을 느끼며 보존하고자 하는 의사에 대한 가치이다(정연정·공기서, 2007). 유산가치는 현재 이용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미래에도 이용할 수는 없지만 후손들이 즐길 수 있도록 보존해야 하는 유산에 대해 느끼는 가치이다(김학용,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치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에는 입장료와 같은 이용가치외에 비이용가치인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도 포함하였다.

(2) 매력성

관광의 매력성은 관광현상 요소 중의 하나로서 타 지역이나 타 국가의 경관이나 문물 등을 구경하고 견문하려는 욕구를 가진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박석희, 1990: 481) 관광객의 관광행동을 유발하고 여행하면서 즐기면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대상물을 모두 포함한다(김용상외 7인, 2004: 41). Gunn(1972)은 관광 매력이란 볼거리 이상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관광지지의 어떤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 볼거리, 대상, 이벤트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이것의 가치가 사람을 즐겁게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정의하였다. 관광자원의 매력성은 폭력, 정치적 불안정, 자연재해, 환경파괴, 과밀인구 등으로 인하여 쇠퇴할 수 있기에, 지속적인 매력창출과 관리를 통한 전략이 요구된다(Kotler & Makens, 1998: 652). 따라서 소득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해 증가되는 관광객의 즐거움을 창조해야 하기 때문에 관광자원의 매력성이 사회 전반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한 창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김정준, 2009: 46). 따라서 관광자원에서 일정한 주제를 찾아내어 이것을 관광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연출 구성요소인 연기, 장치, 조명, 음향, 의상 등을 일정한 주제와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관광자원 연출을 통한 매력성을 창조하고 있다(박석희, 1990).

이러한 관광자원의 매력성 구성요소는 연구자마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 매우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으며, 매력 속성은 관광자원의 존재 의미를 갖게 하는 관광객의 유인 요인을 의미한다(윤설민·박진아·이충기, 2012). 관광자원의 매력속성은 사례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누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속성들은 관광객에게 매력을 주는 공통요소로 제시되어 있다(권종현·정익준, 2007). 관광객 입장에서 관광자원의 매력성은 크게 Getz(1991)가 제시한 필수 서비스, 일반적 편익, 표적편익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유영심, 2008: 30), 필수 서비스는 어떤 여행에 참여하거나 영구적인 관광자원을 관리 운영할 경우에 수반되는 서비스로서 안정성, 접근성, 안락성, 식음료, 정보제공, 의사전달 등이 포함된 일반적인 관점의 편익이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편익은 관광상품의 구성요소 중 여타의 관광상품과의 차이성을 지닌 관광자원을 관광객의 요구에 맞추어 결합시킨 속성들로서 사실성, 유희성, 경관성, 의례성이 포함된다. 그리고 표적 편익은 표적화된 편익을 통해 원거리에 있는 관광자를 유인할 수 있는 독특성과 활동성, 유희성, 상품화와 같은 특수성을 가진 매력속성이다.

박석희(2000)는 관광지의 매력성을 서비스, 위락성, 편의성 등 3개의 요인으로 설정하여 관광지의 안전, 기후, 환경, 친절, 역사 유적지의 흥미도, 문화자원의 흥미도, 자연경관의 아름다

음, 다양한 볼거리, 편의시설, 음식, 숙박시설, 비용 등으로 구성된 13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이외 선행연구들을 보면, 매력성 측정 요인은 교육성, 특이성, 진정성, 고유성, 역사성, 문화성, 안락성, 신기성, 편리성 등이 포함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매력성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에는 Getz(1991)가 제시한 필수 서비스, 일반적 편의, 표적편익을 포함하였다.

3) 수요중심적 접근방법

수요중심적 접근방법은 관광자원의 잠재력 평가에 있어서 시장과 관광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으로, 자원성이 풍부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공급중심형 개발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원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수요중심의 다원화된 시각이 필요하다는 접근 방법이다(공자원, 2011: 45). 수요자인 관광객들은 점차 자연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교통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 상승과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학습 욕구 상승 등으로 선호도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만족과 경제적 타당성 추구, 여건변화에의 대처 등과 같은 수요 중심의 방향으로 개발 잠재력 평가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요도 고려해야 한다(엄서호, 1994).

이와 같이 수요중심적 관점은 관광자원 개발의 목표를 순편익의 극대화로 보고 질 높은 관광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하며, 관광자원 잠재력 평가의 전략도 지역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감안하여, 관광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을 피해가는 차원에서 마련된 품질우위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표성수·장혜숙, 1994: 187). 따라서 이러한 수요중심적 접근은 현재의 수요자와 시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미래의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자와 시장성도 포함하여 평가하고 자원중심적 접근과 공간적 접근도 연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요중심적 접근에서 수요자와 시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광객들이 인식하고 있는 관광자원과 관광목적지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최근 코로나 유행병의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목적지의 안전에 대한 평가지표도 수요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요중심적 접근차원의 평가지표에는 이미지와 관광안전을 포함하였다.

(1) 이미지

관광 이미지는 주관적인 의견이나 판단으로 대체된 객관적인 정보나 사실로서 객관적인 혹은 물리적인 대상의 속성에 대한 지각적 평가, 대상에 대한 지식 및 신념을 의미하는 인지적 이미지와 대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과 느낌인 정서적 이미지로 구분할 수 있다(정지심, 2016). 이장주(1998)는 관광지를 방문하기 전에 획득한 여러 정보나 관광지에서 실제 경험을 통해 형성된 관광지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이라고 하였으며, 엄서호(1998)는 잠재관광객이 가지는 잠재된 행동욕구와 관광자원의 물리적 속성이 결합된 결과라고 하였다. 박석희·김상원(2000)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다양한 자극을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여 지각이라는 정신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김충기·이준혁(2000)은 관광자원의 여러 가지 연상들에 의해 결합된 관광자원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박의서(2006)는 관광자원 방문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지 변화 매개체를 통하여 형성되는 관광자원에 대한 인지적·정서적인 지각현상이라고 하였다. 관광객들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심리적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한 최승담·박경렬(2007)은 관광자의 이미지를 크게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로 나누고, 인지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관광매력, 자연환경, 경제적요인, 접근성, 문화적 요인, 상징적 요인을 추출하였고, 정서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역동성, 전통성, 독특성, 쾌적성, 시각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인지적 이미지는 날씨, 온도, 일조량, 기후 등과 같은 자연환경, 문화자원 및 활동, 도로 및 교통 등 기반시설, 이벤트와 축제 등 관광활동, 주차 및 교통정보 등 접근성, 비용과 가치, 주민의 친절과 서비스 등 환대성, 깨끗함과 이국성 등과 같은 분위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서적 이미지는 분노, 슬픔, 혐오, 외로움, 공포, 수치심 등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와 기쁨, 만족감, 사랑, 평온함, 부러움, 놀람, 흥분, 자부심 등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로 구분하고 있다(정지심, 2016).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평가지표에는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를 하위속성으로 하고, 인지적 이미지에 대해 공간적 접근과 자원적 접근, 관리적 접근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분위기와 자연환경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정서적 이미지에는 부정적 이미지와 긍정적 이미지를 포함하였다.

(2) 관광안전성

안전은 불안전이나 위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편안하고 온전하여 걱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에서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단순한 위험 요인이나 사고 방지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 존중의 개념을 포함하고, 원치 않는 상황으로부터 해방되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안전(Tourism Safety)은 관광자가 관광목적지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치 않는 상황이나 사회가 수용할 만한 수준 이상의 위험에서 해방되어 평안한 상태를 의미한다(염명하, 2009). 최근의 코로나 유행병에서 나타났듯이 안전한 관광목적지와 관광자원에 대한 이미지는 관광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관광 안전은 Maslow의 5단계 인간행동 욕구 이론 중 안전의 욕구(safety needs)는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이며, 안전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면 관광객들은 대체로 확실한 것, 익숙한 것, 안정적인 것을 선호한다(한호성, 2019). 따라서 관광안전은 관광객들이 공간 안에서 안전하게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 어떤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위협을 예방 및 처리하는 작용 또는 상태라 할 수 있다(김낙수, 2014).

관광안전관리체계는 관광안전 위협요인과 관광안전 관리조직, 관광안전 관리절차, 관광안전 관리정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광안전 위협요인으로는 정치적 불안과 범죄, 질병, 사고 등으로 구성되며, 관광안전 관리조직은 정부와 공기업, 관광기업, 관련단체로 구성된다. 관광안전 관리절차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서 관광객들이 관광목적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원치 않는 상황이나 위험발생 전·후에 행해지는 관광안전 관리에 대한 업무이다. 예방은 재난발생 억제를 위해 예방활동, 제도 마련이 포함되며, 대비는 매뉴얼에 의한 안전을 위한 사전조치, 대응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홍보와 사실공개, 신속한 대처, 긴급구조능력 강화 등이고, 복구는 피해복구를 위한 피해조사, 새로운 전략수립과 시장개척, 사후평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염명하,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관광안전성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에는 관광안전 위협요인과 관광안전 관리조직, 관광안전 관리절차, 관광안전 관리정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4) 관리중심적 접근방법

정보기술의 발달과 기업과 지역의 글로벌화, 지식경영시대 도래로 인해 오늘날에는 다양한 분야의 조직에서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김헌수, 2013: 6).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을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보는 전략적 시각보다는 비용과 잘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김성수, 2006). 이러한 관광자원 관리는 주로 인적자원 관리 연구에서 세부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이 필요한 인력을 수급·개발·유지하여 이를 활용하고, 조직구성원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황보작, 2012: 5). 관광산업에서 인적 의존도가 큰 이유는 인적자원의 가치성과 희소성, 모방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며, 관광자원 잠재력의 인적자원은 크게 기반인력, 종사원, 관광고용으로 나눌 수 있다(김철원, 2000).

또한, 관광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과도한 이용은 관광자원의 훼손을 가져오고 환경이 관광을 위해서 관광자원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광목적지의 주민들은 관광자원을 파괴하지 않고 관광자원 개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느끼지 않으면서 관광자를 만족시키면서 유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장성수, 1998: 29).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는 관광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 간의 신뢰 관계가 낮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냉소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정승훈, 2019). 따라서 인적자원 평가지표에는 관광목적지 주민들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지역주민에 대한 인적자원도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관리중심적 접근은 관광수용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관광수용력은 관광자원의 원상 회복력과 평균적 이용률에 기초하고 관광자원의 이용 및 남용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며, 관광자원의 고갈 없이 관광자 만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양을 결정하기 때문이다(Knudson, 1984). 관광수요시장에 대한 예측이 어렵지만 적정이용 수준을 유지하는 관광수용력의 최적화가 필수적이며, 물리적·생태적 수용력, 관리지향적 수용력, 심리적 수용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 등도 관리중심적 접근방법의 주요한 평가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관리중심적 접근차원의 평가지표에는 인적자원관리와 수용력으로 구분하였다.

(1)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관광고용과 행정 및 정책역량, 성과관리 및 예산, 경영 환경으로 구분된다. 관광고용은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이 상대방이 원하는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이 고용방식으로 나타난다. 즉, 한 국가의 고용수준은 잠재력에 관한 연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박홍철, 2013). 이진식(2015)은 도시 관광경쟁력 지표연구에서 인적자원 지표를 대분류로 분류하고 중분류는 기반인력, 종사자, 관광고용으로 나누었다. 세부항목으로는 관광산업 종사자의 인력 규모 및 비중, 관련 대학 정원 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 이수자이며, 종사자로는 통역안내사와 해설사, 쇼핑 종사자 및 관광안내소 수와 관광해설사 서비스 및 숙박 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수준으로 구분하여 관광 고용항목으로는 고용지수 및 고용비율, 노동 생산성 및 고용 성장률로 구분하였다. 종사원은 주로 도시의 쇼핑 시설과 관광안내소, 숙박 시설 등의 서비스 수준을 말한다. 관광관련 종사자 측면에서는 주로 관광객들을 직접 응대하는 사람들로써 방문한 관광자원에 대한 인식까지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Murphy, 1982). 그러나 이제까지의 지표들을 보면 관광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평가하는 항목은 많이 부족하다. WEF(World Economic Forum, 2009)는 주로 인적자원 및 노동시장에 대한 개념을 중위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부요인으로는 기초교육 등록률, 중등교육 등록률, 기업의 직원훈련 정도, 고객 지향도 등을 포함하였다.

한편, 지자체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철원(2000)은 관광산업 경쟁력 평가모델 연구에서 계량 평가지표의 정부예산 지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였으며, 일차적 경쟁 원천의 주체 부분에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Dwyer & Kim(2003)은 관광목적지의 경쟁력 모델과 지표연구에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심원섭(2007)은 관광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결정요인 부분을 관광관련 및 자원요소에서의 정부역할을 언급하였다. 또한, 공자원(2011)은 지역잠재력 연구에서 역사문화자원의 정책요인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상민(2014)은 지방정부의 지역잠재력 관광계획의 수립, 계획 평가, 비전 수립, 재정자립도, 지역관광에 투자비율을 세부지표로 언급하였으며, 이진식(2015)은 도시 관광경쟁력을 지방정부에 필요한 예산 및 관광조직 수, 중장기 발전 방향, 투자 및 세금 분야, 관광홍보 분야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조직역량은 지방정부 조직이 독특하게 갖고 있는 생활양식의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자체의 조직 문화란 한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 및 기

술체계, 상징, 관습, 전통, 행위규범, 행동 양식, 가치관, 신념, 인지 등을 일컫는 것으로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이규홍, 2017: 7). 따라서 조직역량은 관광목적지 내의 주민의 참여와 관광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관광 관련 외부전문가 참여도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역량은 정치와 행정이라는 배경으로 자원의 분배를 경쟁과 타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책은 의제설정과 정책 결정, 정책집행 및 정책평가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합리적인 운영이 정해진다(김병국·김필두, 2006: 1). 지방자치의 성공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지역현안 문제에서부터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수렴되어야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양덕순·강영순, 2008: 91). 따라서 지자체의 관광정책은 지자체의 행정을 운영하면서 민간의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지자체의 관광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자에게 만족을 주며, 지역주민들에게는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혜택을 공유하기 위한 활동과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김태진, 2010).

성과관리는 지자체의 잠재력 역량 중 주로 인적자원들의 성과에 대해 해석되는 부분과 우선순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성과의 개념은 연구자들의 대응성, 공공성, 효율성, 생산성, 능률성, 효과성 등 비슷한 개념과 상위개념으로도 파악하기도 한다(이윤식·김지희, 2004). 예산에 대해서는 신무섭(2009)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경영은 중앙정부와 깊은 관계를 가지며, 중앙정부가 거시적 예산운영(macro-budgeting)인 국가 차원의 세입·세출 그리고 적자 규모를 정하여 재원분배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동시에 미시적 예산운영인(micro-budgeting) 국제적 재원분배 우선순위 틀 안에서 중앙부처가 정책과 사업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다(LeLoup, 1988). 예산운영은 서로 별개이지만 서로 연계된 의사결정(decision)으로 나누어 상호 영향을 받는데, 주로 세입, 세출, 균형, 집행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홍순규, 2012: 7), 지자체의 관광에 대한 예산은 주로 관광예산 지출 비중과 규모, 홍보예산의 비중으로 나눌 수 있다.

경영환경은 주로 기업의 환경을 말하는데, 기업의 유리한 경영환경이 경영의 세계화, 기업의 국제화, 기술의 변화, 경쟁자 출현 등에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되고 기업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정보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최선의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이규홍, 2017). 이윤원·권순석·이충섭(2010)은 불확실한 경쟁이 오늘날 시장 환경에서 외부환경에 얼마나 적응하느냐 하는 것이 기업 성장의 중요한 문제이며, 김철(2016)은 환경 불확

실성이 기업의 조직구조 프로세스와 경영구조에 기회와 위협을 초래한 변화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경영환경은 관광기업이 지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경영환경 연구에서는 지역투자 환경, 법적/규제 환경, 세금 감면 환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관광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광사업자들과 관계자들간의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인적자원관리 평가 지표의 하위속성에는 인적자원관리와 행정역량으로 구분하고 인적자원관리에는 기반인력과 종사원, 관광고용이 포함되며, 행정역량에는 계획, 비전, 예산, 주민역량, 공무원 전문성, 외부전문가 참여도가 포함된다.

(2) 수용력

수용력(carrying capacity)은 일정한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역이 지탱할 수 있는 인간활동의 범위로서, 인구밀도, 수용 가능한 관광객 수, 일정지역의 개발 속도와 규모 등을 설정하는 것이고, 한계용량(marginal capacity)은 자연환경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절대적인 조건 하에서 자연능력의 한계로서 지하수 공급 가능량, 자연자원의 최대 이용능력, 환경기준 등을 설정하는 것이다(김선희, 1999). 따라서 수용력에 대한 유형분류와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물리적(시설) 수용력, 환경·생태적 수용력, 사회·심리적(제도) 수용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오규식·정연우·이동근·이왕기, 2002).

물리적 수용력은 비생물적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공간 내에 입장시키거나 통제할 수 있는 최대인원 또는 인공 시설물의 최적 공간 규모를 의미하는데, 특히 옥내 공간 규모 설정에 많이 적용되며 특정 장소내에서 특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문객의 최대 허용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휴양활동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규모인 물리적 수용력의 지표는 단위면적당의 사람 수와 밀도,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 야영장 등과 같은 시설의 이용자수, 각종 시설의 점유율, 시설을 이용할 때 기다리는 대기시간, 탐방객과 관리요원의 비율 등이 대표적으로 활용된다(김선희, 2005: 328-9).

생태적 수용력은 자연생태계에서 자기 회복능력이나 정화능력의 한계 내에서 인간 활동을 흡수하고 지탱할 수 있는 최대의 위락활동의 범위와 밀도를 뜻한다. 이는 자연생태계에서 동식물의 비율과 개체 수, 수질, 토양의 침식정도 등과 함께 폐기물 정화와 자원생산에 요구되는 토지 및 수변 생태계의 면적, 녹지비율, 식재밀도 등과 같은 요인들이 거론된다(지봉구, 1997).

사회심리적 수용력은 인간이 일정 수준의 이용경험의 질을 유지하고 만족을 느끼기 위해 필요로 하는 환경적 조건을 의미하며, 일정 지역에서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이용밀도에 대한 가치판단적인 수준을 말한다. 환경 이용수준, 이용자의 행태, 환경의 질과 악영향에 대한 인식, 그리고 혼잡도에 대한 인내수준과 경관에 대한 질적 최저수준 등이 다양한 측면에서 거론되고 있다(정연우, 2004).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용력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에 대해 물리적 수용력, 생태적 수용력, 사회심리적 수용력으로 구분하였다.

3.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

'지표'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어떤 기준이나 목적, 방향 등을 나타내는 표지로 정의되고 있으며, 우리의 현재 위치(where we are)와 진행정도(how we are progressing), 목표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 for achievement of goals)을 표현하는 주요 지침으로 우리가 바라는 욕구 수준을 비교한 현재 상태를 반영한 표라고 할 수 있다(최승담·박기홍, 1996).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은 지표가 지수(index), 기준(criterion), 표준(standard), 규범(norm)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으며, 지수는 한 가지 이상의 변수로 결합되어 환경상태의 합성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 가지의 기본적인 변수의 상태와 존재를 반영해주는 지표와는 그 의미가 다르고, 기준은 판단이나 결정을 가늠하는 척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규범 또한 기본이 되는 표준을 의미하고 있으나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표준은 어떠한 것을 판단하는 인정된 기준이라는 의미에서 이 역시 지표와는 의미적 차이를 지닌다고 보았다.

또한, Bauer(1966)는 지표를 고전적 의미로 우리의 가치와 목표에 비추어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통계, 통계계열 및 그 외의 모든 형태의 증거라고 하였으며(김대관, 2001), United Nations(2007)은 지표에 대해 최근의 상태를 파악하고 발생 가능한 상황과 문제를 예측하며 행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이를 위한 행동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표(indicator)는 한 가지의 기본적 변수 상태와 존재를 반영해 주는 측정치라는 점에서 한 가지 이상의 변수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같은 특성으로 어떤 현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정보 제공 역할을 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또한, 공공정책 수립 및 시행, 그리고 평가 등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에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줌으로써 목적을 구체화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김귀곤·김훈희, 1997). 공공정책 수립에 계획의 목표 설정과 미래 변화 예측의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대상의 현황이나 경향, 계획 목표들과의 관계 파악을 통해 계획목표와 계획의 문제점들을 시간적 변화와 공간적 분포를 바탕으로 이해시킴으로써 각종 계획요소들을 공간적으로 배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김향자·김현주, 2003). 따라서 지표는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 구성되는데 개념을 바탕으로 가장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몇 가지 목표나 서술을 하고, 그 하위에 평가할 분야를 구분한 후, 분야별로 항목을 구성하고 그 항목을 측정할 구체적인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다(김대관, 2001).

일반적으로 지표설정 단계는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단계는 지표설정 목적 확립으로서 지표의 유형과 목적을 사전적으로 고려하며, 2단계는 지표설정 모형을 정립하고 지표구조, 지표체계, 선정기준 등을 정한다. 그리고 3단계는 예비지표 설정으로서 평가할 분야를 설정하고 분야별 구체적 지표를 정하며, 4단계는 지표설정으로 전문가 조사를 이용하여 지표를 평가하고 보완한다(나종민, 2010). 이러한 지표가 좋은 지표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더 악화되기 전에 알려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있어야 한다(김주년, 2004). 아울러 실제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적절성, 실제로 달성 가능하고 시의적절하며, 필요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현실성, 구체적이고 과학에 기초한 신뢰성, 의사결정에 투입되었을 때 사용자가 이해 가능하고 유의미한 명확성, 시간이 지나 후 개선을 증명할 수 있고 서로 비교가 가능한 비교가능성 등이 있어야 한다(Wild, 2007).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의 상위차원을 공간중심적 접근차원과 자원중심적 접근차원, 수요중심적 접근차원, 관리중심적 접근차원 등 4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공간중심적 접근에 대해서 공자원(2011)은 접근성, 주변경관 및 연계관광자원, 관광지원·편의시설을 중요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한호성(2019)은 공간잠재력 속성을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 관광 인프라를 포함한 것을 공간적 속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관광자원의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관광자원의 공간배치에 따른 개

발 잠재력의 차이를 중시하며, 공간중심적 접근방법의 평가지표에는 접근성과 연계자원을 포함하였다.

자원중심적 접근에 대해 한호성(2019)은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해당 자원의 자체 특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하였으며, Swarbrooke(1995)는 인적 자원보다 관광 자원이 갖고 있는 매력물을 중심으로 그 자원의 성격과 특징, 적용대상, 범위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관광자원이 인적·물적 자원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관광자원의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관광자원의 이용가치와 비이용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여 개발과 보전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평가요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중심적 접근에 대해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해당 자원의 자체 특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평가지표는 가치와 매력성으로 구분하였다.

수요중심적 접근 방법에 대해 공자원(2011)은 관광자원의 잠재력 평가에 있어서 시장과 관광자의 요구를 우선하는 입장으로, 자원성이 풍부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공급중심형 개발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원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수요중심의 다원화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수요자인 관광객들은 점차 자연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교통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 상승과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학습 욕구 상승 등으로 변화하는 수요 중심의 방향으로 개발 잠재력 평가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요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수요중심의 접근 방법으로 정의하고 평가지표는 관광자원이 위치한 지역의 이미지와 안전성을 포함하였다.

관리중심적 접근방법에 대해 김철원(2000)은 관광산업에서 인적 의존도가 큰 이유는 인적 자원의 가치성과 희소성, 모방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며, 관광잠재력의 인적자원을 크게 기반인력, 종사원, 관광고용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관리 중심적 접근은 주로 인적자원관리 연구에서 세부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이 필요한 인력을 수급·개발·유지하여 이를 활용하고, 조직구성원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기법인 인적자원을 포함한다. 또한, 관리중심적 접근은 관광수용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관광수용력은 관광자원의 원상 회복력과 평균적 이용률에 기초하고 관광자원의 이용 및 남용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며, 관광자원의 고갈 없이 관광객 만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양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리 중심적 접근방법의 평가지표를 인적자원과 수용력으로 구분하였다.

〈표 2-5〉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상위차원과 평가지표

상위차원	평가지표	조작적 정의
공간중심적 접근	접근성	접근성은 관광자원이 속한 지역으로의 접근성, 관광자원 주변으로의 접근성이며, 여기에서의 접근성은 거리와 시간, 비용 등 총효용 등으로 평가한다.
	연계자원	관광자를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한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기본적인 시설로서 관광관련 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지원시설도 포함되며, 이러한 시설의 수와 특성, 이동가능 정도 등도 평가요인에 포함된다.
	관광자원의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관광자원의 공간배치에 따른 개발 잠재력의 차이를 중시한다. 공간중심적 접근 방법에서의 상위개념은 접근성과 연계자원으로 구분하였다.	
자원 중심적 접근	가치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로 구분되며, 이용가치는 입장료와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방법이며, 비이용가치는 보전가치로서 선택가치와 존재가치, 유산가치로 구분된다.
	매력성	관광자원의 어떤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 볼거리, 대상, 즐길거리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자원의 가치가 사람을 즐겁게 끌어당기는 힘(유인력)으로서 필수 서비스와 일반적 편익, 표적편익으로 구분하였다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해당 자원의 자체 특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상위개념은 가치와 매력성으로 구분하였다.	
수요중심적 접근	이미지	주관적인 의견이나 판단으로 대체된 객관적인 정보나 사실로서 객관적인 혹은 물리적인 대상의 속성에 대한 지각적 평가, 대상에 대한 지식 및 신념을 의미하는 인지적 이미지와 대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과 느낌인 정서적 이미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안전	불안전이나 위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편안하고 온전하여 걱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관광안전관리체계는 관광안전 위협요인 준비와 관광안전 관리 절차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시장과 관광자의 요구를 우선하는 입장으로, 자원성이 풍부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공급중심형 개발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원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수요중심의 다원화된 시각이 필요하다는 접근 방법으로 미래의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자와 시장성도 포함하여 평가하고 자원중심적 접근과 공간적 접근도 연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수요중심적 접근방법의 상위개념은 관광자원이 위치한 지역의 이미지와 안전성을 포함한다.	
관리중심적 접근	인적자원	크게 인적자원관리(기반인력, 종사원, 관광고용)와 행정역량(계획, 비전, 예산, 주민역량, 공무원 전문성, 외부전문가 참여) 등으로 구분
	수용력	일정한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의 활동범위로서, 인구밀도, 수용 가능한 관광객 수, 일정지역의 개발 속도와 규모 등을 설정하는 것
	주로 인적자원관리 연구에서 세부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이 필요한 인력을 수급·개발·유지하여 이를 활용하고, 조직구성원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기법으로 상위개념으로는 인적자원과 수용력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토대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의 상위차원을 공간중심적 접근차원과 자원중심적 접근차원, 수요중심적 접근차원, 관리중심적 접근차원 등 4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공간중심적 접근차원의 평가지표에는 접근성과 연계자원을 포함하였고, 자원중심적 접근차원의 평가지표는 가치와 매력성, 수요중심적 접근차원의 평가지표는 이미지와 안전, 관리중심적 접근차원의 평가지표는 인적자원과 수용력을 포함하였다.

이상의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의 상위차원과 평가지표를 정리하면 위의 <표 2-5>와 같다.

제3절 Delphi 기법과 AHP

1. Delphi 기법

델파이(Delphi)기법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3~4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통제된 피드백을 제공하여 전문가들과 합의를 이루는데 유용한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기법이다(이종성, 2001: 27). 델파이기법은 정책결정이나 사업기획을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방법으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거나 일정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수차례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얻어내는 방법이며, 통상적으로 대면방식의 그룹 활동과는 구별된다(이성웅, 1987). 델파이기법은 전문가적인 직관을 객관화된 수치로 나타내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영득, 2007).

델파이 분석은 익명성과 반복성, 통제된 피드백 그리고 통계적 집단반응이라는 4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는 전문가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참여하는 전문가로 하여금 외부의 압력 혹은 주류의 의견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함으로써 오류나 편향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는 반복되는 조사로서 전문가 그룹 내의 다른 전문가들의 이목에 상관없이 자신의 의견과 판단을 수정할 기회가 제공된다. 셋째는 반복적인 조사 전의 통제된 피드백은 선행된 조사결과에 대한 정제된 정보를 제시받음으로써 다른 전문

가들 간에 상호작용을 하도록 도와준다. 익명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평균과 분산 등 분포적 특성을 제시해 줌으로써 중요하거나 논쟁이 되는 항목의 정도를 서로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논쟁없이 합리적인 합의를 가능하도록 한다. 넷째, 이러한 반복조사를 통해 얻은 최종적인 조사결과의 통계적 평균으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수렴된다(홍정화, 2016).

델파이 기법을 진행하는 과정은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고, 3~4회 걸친 설문을 진행하며, 크게 4단계로 분류된다. 1단계에서는 연구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주제를 구체화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선정한다. 2단계는 1차 개방형 설문을 통해 자료 수집 후 폐쇄형 설문지로 구성하여 동일한 전문가 대상에게 설문을 보내어 2차 조사를 실시한다. 3단계는 2차 조사를 통해 수집된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한 후 다시 동일한 전문가 집단에 보내어 3차 조사를 실시한다. 4단계에서는 3차 설문결과를 토대로 최종 평가 항목을 선정한다.

조사대상은 참여하는 전문가의 대표성과 선정의 적절성, 전문적 지식능력, 참여의 성실성, 참가자의 수 등에 대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지리적으로도 고르게 분포된 합리적이면서 객관적이면서 편향되지 않은 사고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홍정화, 2016).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의 수는 정해진 규칙은 없으나 Anderson(1997)은 10~15명, Rowe & Wright(2001)는 5~20명의 전문가만으로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하였고, 안진성(2011)은 100명이 넘는 규모가 큰 경우의 전문가 집단을 운영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델파이 기법의 1차 설문은 지나치게 구조화되거나 세분화되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개방형 설문으로 구성하고 항목개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권태일, 2009). 1차 조사 때부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는 수정 델파이 기법(modified delphi technique)은 조사가 편리하고 적은 설문 횟수에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집하기에 한계가 있다(안진성, 2011).

2차 설문은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얻어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계적으로 수렴하고, 정리하여 구조화된 폐쇄형 설문지로 작성하여 1차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들에게 재평가하도록 요청한다. 2차 설문에는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나 중요도를 평가하게 하고 중요도는 리커트 5점 또는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수치화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조사 대상 전문가들의 합의수준을 확인하도록 한다(이종성, 2001).

3차 설문에서는 2차 설문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인 전문가 집단의 방향(group trends)에 대한 피드백을 전문가들에게 제시한다. 2차 조사결과에 대한 합의 항목에 대한 중앙값과 사분범위를 제공하여 각 항목의 중요도를 재평가하는데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특정 전문가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치우쳐 나타날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과 다른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피드백 과정을 마친 후 2차 조사결과를 정리한 3차 설문을 작성하여 2차 조사에 응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3차 조사를 실시한다.

3차 조사결과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4차, 5차 설문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델파이 조사의 정확도는 3차 조사까지 증가하다가 4차부터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2~3차 델파이 조사면 충분하다고 제안하고 있다(양용호, 2019). 마지막 단계는 3차 설문조사 결과를 최종평가하고 정리하는 단계로써 최종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정리하고, 통계기법으로 분석을 실시하거나 필요시, 대면조사를 통해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타당도(validity)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의도하는 목적에 맞게 얼마나 충실히 측정하였느냐의 문제이다(성태제, 1995). 델파이 방법은 반복적인 설문과 이전 설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전문가 집단이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허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안진성, 2011). 델파이 기법으로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해 켄달(Kendall's)의 W 검증을 많이 활용되고 있다(홍정화, 2016).

켄달의 W검증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일한 대상을 평가할 경우에 전문가들 간의 의견 일치성 정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서열척도와 등간·비율척도로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며, 0에서 1까지의 수를 갖는 W값은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의견 일치도를 보이고, 0에 가까울수록 의견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Schmidt, 1997). 켄달의 W검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에 각 항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호간에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켄달의 W값이 0.1이면 매우 약간 일치함(확신 불가능), 0.3이면 약간 일치함(약간 확신 가능), 0.5이면 어느정도 일치함(어느 정도 확신 가능), 0.7이면 강하게 일치함(확신 가능), 0.9이면 매우 강하게 일치함(매우 확신 가능)으로 설명할 수 있다(Schmidt, 1997; 이상선, 2014).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보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수에 따라 켄달의 W값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켄달의 W값은 참고항목으로 이용하며, 통계적 유의성을 활용하여 전문가간의 의견 일치성을 판단해야 한다(양용호, 2019).

2. 계층적 의사결정방법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은 자연 과학적 방법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인간의 판단을 통해 합리적으로 종합하는 방법으로써(오문향, 2013),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 기준이 다수이고 복잡한 경우에 여러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사결정 분석기법이다(김영득, 2007). 이 기법을 적용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주관적 판단에 의한 가중치 결정방법으로써 특정 대상에 대한 질을 측정하거나 평가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방법으로 입증됐다(조근태·김성준·김대식·조영우·이종인, 2003).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의 적용과정은 구조화가 안 되는 상황을 하위요소로 해체하여 각 구성 요소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를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검토하게 되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판단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한다(황광하, 2013). AHP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계층구조를 문제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두 가지 모두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주관적 판단을 합리적으로 표현하고 계량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계층적 의사결정모형을 4가지 원리에 의하여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한다(이상선, 2014).

첫째는 쌍대 비교하는 두 개의 동일한 기준 요소가 비교를 통해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내야 한다. 그리고 둘째는 동질성에 대한 중요성의 정도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해진 척도로 표시되어야 하며, 두 요소는 비교 가능해야 한다. 셋째는 독립성인데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고 각각의 특성이나 내용면에서 서로 독립적이어야 하고, 결정요소들 간의 중요성은 하위수준에 있는 의사결정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넷째는 기대성으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은 계층구조에 완전히 포함 되어야 하고, 의사결정권자가 고려하는 대안 및 평가 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인간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이 반영되어야 한다.

AHP 분석은 아래 <표 2-6>과 같은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조근태 외 4인, 2003).

〈표 2-6〉 AHP 기법 적용 절차

1단계	의사결정 문제 계층화(Hierarchy of Decision Problem)
2단계	평가기준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of Decision Elements)
3단계	변수의 상대적 가중치 추정(Estimation of Relative Weight)
4단계	계층별 상대적 가중치를 종합화(Aggregation of Relative Weights)

자료 : 조근태·김성준·김대식·조영우·이종인(2003). AHP를 이용한 미래유망기술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 : 농촌 개발 및 자원분야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9(3): 42.

1단계인 의사결정 문제의 계층화(hierarchy of decision problem)는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할 때 서로 관련된 의사결정 요인들로 계층화하여 문제를 분리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계층분석기법이라고도 한다. 계층의 최상층에는 가장 포괄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목적이 설정되고, 그 다음의 계층들은 의사결정에 대한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속성들로 구성된다(한창희·임창규·김민관, 2011: 80). 이들 속성들은 상호 관련된 의사결정 사항들의 계층으로 분류되어 의사결정의 구조화를 설정하게 되며,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것일수록 구체적으로 구조화 된다. 하나의 계층내 각 요소들은 서로 비교 가능하며, 계층의 최하층은 선택의 대안이 되는 의사결정 대안들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자원개발 잠재력 평가요인에 대한 계층화를 위해 상위개념과 평가요인, 세부항목이라는 계층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관광자원개발 잠재력 상위개념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관광자원개발 잠재력 상위개념은 ‘공간잠재력’, ‘인적잠재력’, ‘자원잠재력’, ‘수요잠재력’을 도출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상위개념에 대한 세부항목을 도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요인을 도출할 예정이다.

2단계는 평가기준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of decision elements)로서 다속성 의사를 결정할 때, 각 속성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정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각 속성들을 두 개씩 뽑아 쌍대 비교를 하고, 각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 기준들 간에 쌍대비교를 행하고 그 결과를 행렬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AHP 쌍대비교의 중요도에 대한 척도의 정의는 〈표 2-7〉과 같다.

〈표 2-7〉 AHP 쌍대비교 중요도 정의

중요도	구 분	척도의 정의
1	유사함 (Equal Important)	어떤 기준에 대해 두가지 활동이 서로 유사한 공헌도를 가진다고 판단됨
3	약간 중요함 (Moderate important)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하나의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약간 선호됨
5	중요함 (Strong Important)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하나의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강하게 선호됨
7	매우 중요함 (Very Strong Important)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하나의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매우 강하게 선호됨
9	절대적 중요함 (Extreme Important)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하나의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극히 선호됨
2, 4, 6, 8	위 값들의 중간값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비교하는 값들이 위의 값들의 중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함

자료 : 권태일(2008).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의 영향요인 우선순위 도출에 관한 연구: 델파이 기법(Delphi)과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적용.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6.

쌍대 비교과정에서 의사결정자의 평가기준 등에 대한 선호 정도를 계량화를 하기 위해 신뢰할만한 평가척도는 9점 척도로 보고된다. 본 연구에서도 9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작성된 쌍대비교는 행렬의 대각을 중심으로 역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쌍대비교 분석을 위해 Expert choice 2000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단계는 변수의 상대적 가중치 추정(estimation of relative weight)으로 한 계층 내에서 서로 비교대상이 되는 n개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W_i (i = 1, 2, \dots, n)$ 라고 하면 쌍별 비교행렬에서의 a_{ij} 는 $W_i/W_j (i, j = 1, 2, \dots, n)$ 로 추정할 수 있으며, a_i 와 W_i 사이에는 다음 식이 성립한다.

$$a_{ij} = W_i/W_j (i, j = 1, 2, \dots, n)$$

$$\sum a_{ij} \cdot W_i \cdot 1/W_j = n (i, j = 1, 2, \dots, n)$$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sum a_{ij} \cdot W_i = n \cdot W_j (i, j = 1, 2, \dots, n)$$

위 식은 선형 대수론에서의 고유치 문제와 같이 해석될 수 있는데 요소 a_{ij} 로 구성되는 행렬 A 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때,

$$A = \begin{bmatrix} \frac{W_1}{W_1} & \frac{W_1}{W_2} & \frac{W_1}{W_3} & \dots & \frac{W_1}{W_n} \\ \frac{W_2}{W_1} & \frac{W_2}{W_2} & \frac{W_2}{W_3} & \dots & \frac{W_2}{W_n} \\ \frac{W_3}{W_1} & \frac{W_3}{W_2} & \frac{W_3}{W_3} & \dots & \frac{W_3}{W_n} \\ \vdots & \vdots & \vdots & \dots & \vdots \\ \frac{W_n}{W_1} & \frac{W_n}{W_2} & \frac{W_n}{W_3} & \dots & \frac{W_n}{W_n} \end{bmatrix}$$

고유치 방법에 의하여

$$A \cdot w = n \cdot w$$

여기서, $W = [W_1, W_2, W_3 \dots, W_n]$ 는 행렬 A 의 우측 고유 벡터(n : 행렬 A 의 고유치)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런데 AHP에서는 평가하는 전문가가 정확한 W 를 모르며 쌍대비교에 의해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W 를 추정한다.

쌍대 비교행렬 A 의 각 요소에 대한 가중치 W 를 모를 경우에는, 이 행렬을 A' 라고 표기하고 이 행렬의 가중치 추정치 W' 는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근사적으로 구한다.

$$A' \cdot w' = \max \cdot w'$$

여기서 \max 는 행렬 A' 의 가장 큰 고유치로서 항상 n 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계산된 \max 가 n 에 근접하는 값일수록 쌍대비교행렬 A 의 수치들은 일관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일관성 정도를 다음과 같은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와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text{일관성 지수(CI)} = (\max - n) / (n - 1)$$

$$\text{일관성 비율(CR)} = (CI / RI) \times 100\%$$

위의 계산식에 의한 결과인 CR값이 0.1이내이면 쌍대비교는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독하고, 만약 일관성 비율이 0.1이상일 때는 CR값이 0.1이내가 될 때까지 재평가를 계속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일관성 비율이 0.1 미만인 응답만을 채택하여 분석하였으며, 0.1 이상인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피드백하고 재조사하고자 한다.

4단계는 계층별 상대적 가중치의 종합화(aggregation of relative weights)로 평가대상인 여러가지 대안들에 대한 종합순위를 구하기 위하여 결정 요인들의 상대적인 가중치의 종합화 단계이다. 대안들에 대한 우선순위 및 가중치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계층구조를 이루는 모든 의사결정 요소들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 및 상대적인 선호도를 종합하여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결정한다. 이렇게 구한 종합적인 중요도는 궁극적으로는 평가대상이 되는 대안들의 점수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대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안진성, 2011). 또한 도출된 각 대안의 가중치는 비율척도이므로 의사결정 상황이 대안들의 중요도에 의한 자원분배 문제이면 가중치에 의해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위차원, 평가지표, 하위속성의 상대적 가중치를 곱하여 복합적 가중치를 산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지표의 복합적 가중치는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의 중요한 지표임을 의미한다. 이는 전문가 집단들이 쌍대비교를 통해 중요도를 부여할 때 관광자원을 인지하고 측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합적 가중치가 높게 나온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에 필요한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설계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관광개발 잠재력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도출된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의 상대적 가중치를 파악하여 관광자원 개발 전략 수립시 가장 우선시 되는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경험과 직관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집한 후 정제하여 최종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을 도출하는 델파이기법을 활용하였다. 도출된 지표와 속성은 쌍대비교를 통해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검증할 수 있는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단계로 진행하였으며 1단계는 관광자원과 관광자원개발 잠재력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관광자원개발 잠재력 상위차원과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2단계는 관광자원개발 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 도출로서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 세부항목에 대해 관광개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와 개방형 설문을 통해 수집된 1차 설문을 바탕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피드백과 함께 2·3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3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지표와 하위속성, 세부항목을 도출하였다. 3단계는 델파이 기법을 통해 도출한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을 바탕으로 요인별 쌍대비교를 통해 평가지표와 하위속성간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검증할 수 있는 계층적 의사결정법(AHP)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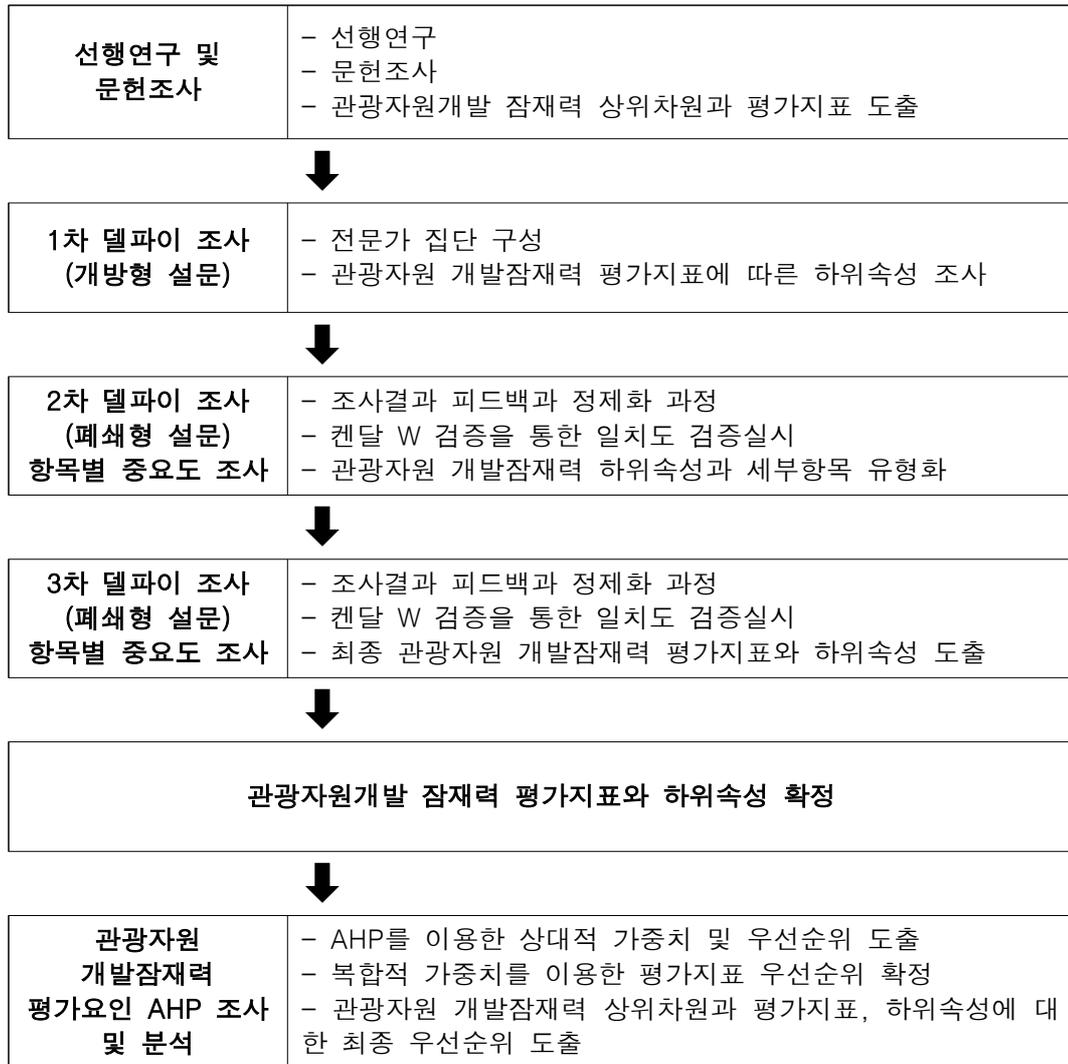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관광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전략 수립에 대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과제 1.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를 도출한다. 선행연구와 관련문헌을 검토하여

평가지표를 도출한 후에 델파이 1차 조사 분석을 통해 하위속성을 도출한다.

연구과제2. 델파이 기법을 통해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을 최종 도출한 후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지표와 속성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검증한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도식화하여 다음 [그림 3-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3-1] 델파이기법과 계층적 의사결정방법을 적용한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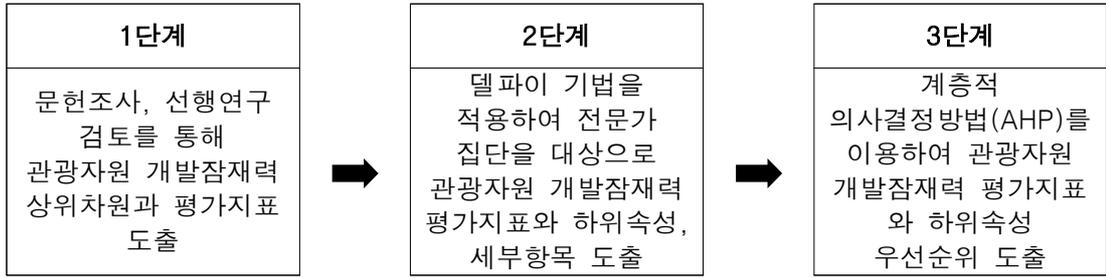
2.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 개발 과정

본 연구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이전에 관광자원 잠재력을 평가하는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을 개발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관광자원 개발 전략수립에 필요한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광자원 개발연구의 기초자료 제공과 함께 향후 확장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 개발과정은 다음 [그림 3-2]와 같다.

첫째,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에 대한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공간중심적 접근’과 ‘자원중심적 접근’, ‘수요중심적 접근’, ‘관리중심적 접근’ 등 4개의 상위차원과 8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4개의 상위차원과 8개의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관광관련 전문가의 델파이 기법을 통해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 세부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가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통찰력을 통해 정책적인 대안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법으로 전문가들의 솔직한 의견을 취합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피드백으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준금·정광호, 2014).

셋째, 상황이 불확실하거나 평가기준이 다양할 필요가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의 주관적인 입장을 수집하여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방법(키노시타 에이조·오오야 타가오, 2012)으로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 집단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방법인 계층적 의사결정방법인 AHP를 이용하여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였다(조근태·조용곤·강현수, 2003). 계층적 의사결정방법은 복잡한 상황에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으로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중요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의 상위차원과 평가지표, 하위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림 3-2)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 개발 과정

제2절 전문가 집단 선정

1. 델파이 조사 전문가 집단 선정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해당연구에 대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의견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 선정이 중요하다. 특히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꾸준히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패널 선정이 필요하다(전진아, 2018). 전문가 선정은 전문적 지식 능력과 대표성, 경력 등을 통해 전문성을 검증하고, 조사 참여의지와 능력,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오문향, 2013).

델파이 패널의 수에 대해서 평균 그룹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그룹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10명 이상의 패널이 필요하며 10~15명의 집단으로 구성된 패널로도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과 5명에서 20명의 전문가 활용을 권하는 연구, 약 15명에서 35명의 전문가를 패널로 활용한다는 연구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하는 전문가의 대표성과 선정의 적절성, 전문적 지식, 참여의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관광관련 학계에 종사하는 전문가, 주요 관광시설 실무자, 관광관련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 실무자들로 구성하며, 학계의 경우에는 관광관련 연구를 수행했거나 논문과 저서 등을 출판한 경험이 있는 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자들로 선정하였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실무자들은 관련기관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델파이 조사의 설문회수율이 대략 30~70%인 것을 감안하여(오미자, 2018), 델파이 전문가

집단을 학계, 공공기관, 민간기관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10명씩 30명을 선정하였다. 3개의 분야로 한정된 것은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과 관광공사 관리직을 포함하고자 공공기관을 포함하였다. 민간기관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투자하고 개발하는 업체와 관광자원 주변의 관광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관리직을 포함하였다. 또한 관광자원 관련 분야에서 연구를 한 학자를 포함하였다.

표본선정방법으로는 유의할당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의도적 표집은 비확률적 표본추출방법으로 연구자가 표본의 선택기준을 정해놓고 연구대상에 적합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델파이 1차 조사부터 3차 조사까지 전문가 집단 표집과 응답자 수는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델파이 단계별 전문가 집단 선정 및 응답 수

전문가 집단	선정기준	1차 조사		2차조사		3차조사	
		표 집	응 답	표 집	응 답	표 집	응 답
학계	관광관련 전공 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논문, 저서, 강의등의 경험이 있는 자	10	10	10	9	9	7
공공기관	관광관련 기관인 공사와 협회,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관리직	10	10	10	9	9	9
민간기관	관광지에서 관리직으로 10년 이상 경력자	10	10	10	10	10	8
계		30	30	30	28	28	24

〈표 3-2〉 델파이 조사 전문가 집단 리스트

구 분	소속	직책	학위	1차	2차	3차
학계	00 대학교	교수	박사			
	00 대학교	교수	박사			
	00 대학교	교수	박사			
	00 대학교	교수	박사			
	00 대학교	교수	박사			
	00 대학교	교수	박사			
	00 대학교	교수	박사			
	00 대학교	교수	박사			
	00 연구원	연구원	박사			
	00 연구원	연구원	박사			
계				10	9	7
공공 기관	00공사	팀장	박사			
	00공사	팀장	박사			
	00공사	과장	석사			
	00공사	대리	학사			
	00시청	주무관	석사			
	00시청	팀장	학사			
	00시청	주무관	학사			
	00시청	팀장	박사수료			
	00도청	주무관	학사			
	00사업단	부장	석사			
계				10	9	9
민간 기관	자연관광지	대표	박사			
	자연관광지	실장	학사			
	시설관광지	대표	학사			
	시설관광지	대표	학사			
	문화관광지	팀장	석사			
	00호텔	실장	학사			
	00호텔	부장	학사			
	00향토음식점	대표	석사			
	00기념품	대표	학사			
	00렌터카	대표	석사			
계				10	10	8
계				30	28	24

2. 계층적 의사결정방법 조사 전문가 집단 선정

계층적 의사결정법(AHP)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하진 않는다. 관광관련 연구에서의 계층적 의사결정법(AHP) 유효표본수의 동향을 보면 염진철·박한나(2003)는 12부, 정승준·한범수(2006)는 18부, 나종민(2010)은 18부, 오문향(2013) 15부로 대략 평균 20부 이내로서 유효표본의 수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계층적 의사결정법(AHP)은 쌍대비교를 위한 설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설문응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응답하는 전문가의 응답에 대한 일관성비율(C.R.)이 0.1 이하가 될 때까지 재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응답하는 전문가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응답의 일관성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표본의 수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느냐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응답결과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되는지가 분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본 연구의 계층적 의사결정방법에 참여하는 전문가 선정을 위해서 1차부터 3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24명의 관광관련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였다. 학계와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3개 분야별로 6명씩, 총 18명의 전문가 집단을 선정함으로써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평가요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였다.

〈표 3-3〉 계층적 의사결정방법 전문가 집단 선정과 응답 수

전문가 집단	선정기준	델파이 3차조사 참여자	AHP 조사	
			표집	응답
학계	관광관련 전공 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논문, 저서, 강의등의 경험이 있는 자	7	6	5
공공기관	관광관련 기관인 공사와 협회,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관리직	9	6	5
민간기관	관광지에서 관리직으로 10년 이상 경력자	8	6	4
계		24	18	14

〈표 3-4〉 계층적 의사결정방법 전문가 집단 리스트

구분	소속	직책	학위
학계	00 대학교	교수	박사
	00 대학교	교수	박사
	00 대학교	교수	박사
	00 대학교	교수	박사
	00 연구원	연구원	박사
	00 연구원	연구원	박사
공공기관	00공사	팀장	박사
	00공사	과장	석사
	00공사	대리	학사
	00시청	주무관	석사
	00시청	주무관	학사
	00사업단	부장	석사
민간기관	자연관광지	실장	학사
	문화관광지	팀장	석사
	00호텔	실장	학사
	00호텔	부장	학사
	00기념품	대표	학사
	00렌터카	대표	석사

계층적 의사결정방법은 2020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에 걸쳐 18부의 설문을 배포하여, 2차에 걸친 전화통화와 문자발송을 통해 총 14부의 설문을 회수하였다. 응답 일관성 비율이 0.1 이하인 14명의 응답자 결과만을 갖고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와 비교 하였을 때 14부의 유효 표본은 분석을 하는데 충분한 표본 수라 판단된다(이상민, 2014).

〈표 3-5〉 계층적 의사결정방법 최종 응답인원 선정

전문분야	실제응답인원	제외 인원 (C.R.> 0.1)	최종 응답인원 (C.R.< 0.1)
학계	6	0	6
공공기관	6	2	4
민간기관	6	2	4
계	18	4	14

3. 응답자의 특성

1차 델파이 개방형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과 2·3차 폐쇄형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 AHP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의 특성을 보면 다음 <표 3-6>과 같다.

1차 델파이 개방형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의 소속은 관광지과 음식점, 숙박시설 등 관광관련 민간기관과 교수 및 연구원 등 학계, 공무원과 공사 등 공공기관이 각각 10명(33.3%) 이 표집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0명(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9명(30.0%), 30대 8명(26.7%), 60대 3명(10.0%)으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 박사수료 이상이 14명(46.7%)으로 가장 많고, 학사 10명(33.3%), 석사 6명(20.0%)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력별로는 10-19년이 15명(50.0%)으로 가장 많고 20-25년 11명(36.7%), 26년 이상 4명(13.3%) 순으로 나타났다.

2차 폐쇄형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의 특성을 보면 민간기관은 10명(35.7%)으로 가장 많고 학계와 공공기관이 각각 9명(32.1%)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각 9명(32.1%)이며, 30대는 7명(25.0%), 60대는 3명(10.7%)으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 박사수료 이상이 13명(46.4%), 학사 9명(32.1%), 석사 6명(21.4%)로 조사되었다. 경력별로는 10-19년이 14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5년 10명(35.7%), 26년 이상 4명(14.3%) 순으로 조사되었다.

3차 마지막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공공기관이 9명(37.5%), 민간기관 8명(33.3%), 학계 7명(29.2%)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8명(33.3%)으로 가장 많고 40대 7명(29.2%), 30대 6명(25.0%), 60대 3명(12.5%) 으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 박사수료 이상이 11명(45.8%), 학사 8명(33.3%), 석사 5명(20.8%)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력별로는 10-19년 11명(45.8%), 20-25년 9명(37.5%), 26년 이상 4명(16.7%)으로 조사되었다.

계층적 의사결정방법인 AHP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의 소속은 학계와 공공기관, 민간기관이 각각 6명(33.3%)이며, 연령별로는 30대가 6명(33.3%), 50대 5명(27.8%), 40대 4명(22.2%), 60대 3명(16.7%)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 박사수료 이상이 7명(38.9%), 학사 6명(33.3%), 석사 5명(27.8%)으로 나타났으며, 경력별로는 10-19년이 8명(44.4%), 20-25년 7명(38.9%), 26년 이상 3명(16.7%)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6〉 델파이 조사와 AHP 응답자 특성

구분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AHP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속	학계	10	33.3	9	32.1	7	29.2	6	33.3
	공공기관	10	33.3	9	32.1	9	37.5	6	33.3
	민간기관	10	33.3	10	35.7	8	33.3	6	33.3
연령	30대	8	26.7	7	25.0	6	25.0	6	33.3
	40대	10	33.3	9	32.1	7	29.2	4	22.2
	50대	9	30.0	9	32.1	8	33.3	5	27.8
	60대	3	10.0	3	10.7	3	12.5	3	16.7
학력	학사	10	33.3	9	32.1	8	33.3	6	33.3
	석사	6	20.0	6	21.4	5	20.8	5	27.8
	박사수료 이상	14	46.7	13	46.4	11	45.8	7	38.9
경력	10년~19년	15	50.0	14	50.0	11	45.8	8	44.4
	20년~25년	11	36.7	10	35.7	9	37.5	7	38.9
	26년 이상	4	13.3	4	14.3	4	16.7	3	16.7
계		30	100.0	28	100.0	24	100.0	18	100.0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델파이 기법 단계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상위차원을 도출한 후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관 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과 하위속성에 대한 결과를 수집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설문조 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설문 발송 후에는 전화 및 문자, SNS,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2 회에 걸쳐 응답을 상기하도록 하였다. 응답이 누락된 항목에 대해서도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 락하여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1차 설문 구성을 위해 관광자원 및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에 대한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에 대한 4개의 상위차원과 8개의 평가지표를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4개의 상위차원과 8개의 평가지표에 대해 1차 개방형 설문과 함께 주관적 질문으로 각 상위차원과 평가지표별로 세부항목들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시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사항 등 전체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별도의 의견 제시 항목도 추가하였다.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확산적 인식을 예상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방형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1차 개방형 설문의 결과는 총 30명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총 30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델파이 1차 조사에서는 참여 전문가들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응답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2차 폐쇄형 설문 전에 1차 설문결과에 대해 피드백 될 것임을 통보하였다. 1차 설문은 2020년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 진행되었다.

2차 설문조사는 1차 설문결과를 분석한 후 정리하여 폐쇄형 설문으로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7점 척도(1: 매우 부적합하다, 7: 매우 적합하다)를 적용하였다. 또한 1차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제공하고 설문의 평가지표와 하위속성별 추가적 의견 제시를 위한 개방형 설문문항도 추가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 참여한 3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총 28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며, 설문지 배포는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하였다.

2차 조사 후 항목의 정제를 통해 수정된 하위속성과 세부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이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피드백을 통하여 의견수렴 후 확정하였다. 3차 조사는 2차 조사에 참여한 28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전문가 24명의 응답을 받았다. 3차 설문에서는 2차 설문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2차 설문조사 결과의 평균값과 정제된 항목, 소수 의견 등을 정리하여 전문가들이 응답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3차 설문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적용하였으며, 설문지 배포 및 회수는 2020년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였다. 델파이 방법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반복적인 설문과 이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보완을 허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안진성, 2011). 또한 전문가간의 의견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해 켈달의 W검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전진아, 2018).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켈달 W의 값을 검증 항목으로

이용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활용하여 전문가들의 의견 일치성을 판단하였다.

〈표 3-7〉 델파이 조사 응답률

구 분	기간	조사대상자	응답자	응답률
1차 개방형 조사	2020. 3. 9 - 3. 18	30	30	100.0%
2차 폐쇄형 조사	2020. 3. 30 - 4. 8	30	28	93.3%
3차 폐쇄형 조사	2020. 4. 20 - 4. 28	28	24	85.7%

2.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 분석단계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문헌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의 상위차원과 평가지표를 토대로 델파이 설문조사를 통해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의 하위속성과 세부항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하위속성과 세부항목을 토대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계층화된 의사결정방법인 AHP 기법을 적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관광자원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18부의 설문을 배포하여 이 중 18부의 설문을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평가지표의 하위속성별로 분류하여 체계화하고 최종적으로 도출된 하위속성의 세부항목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자기기입방식에 의하여 측정, 평가하고 이들 평가 값을 AHP기법의 적용을 통해 계량화하였다. 이 때 사용되는 분석방법으로는 상위개념에 있는 평가지표와 하위속성, 세부항목들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할 수 있는 쌍대비교 분석방법 위주로 수행하였다. AHP기법에서는 응답 일관성 정도를 비일관성 비율로 나타내며 비일관성비율 0.0은 응답한 전문가가 완전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쌍대 비교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비일관성 비율이 0.1을 넘는 전문가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대면 접촉을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재 응답을 요청해야 한다(이상민, 2014).

본 연구에서는 비일관성비율이 0.1 이하인 설문내용으로 분석하였으며 델파이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설문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2차에 걸친 문자발송과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를 도출하기 위해서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관광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총 3회의 설문지를 걸쳐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방법으로는 전화, e-mail, SNS, 문자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대면하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으며, 조사를 진행할 때마다 전 단계에서 전문가 집단들이 기술하였던 내용에 대해 피드백으로 제공하여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1차 개방형 설문결과는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응답 내용들을 분류하고 정리한 후에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빈도 수를 산출하였다. 내용 분석은 연구자가 연구하려는 평가지표의 내용을 가능한 정확하게 정의하고, 적절한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법이다(이종성, 2010). 2차와 3차 폐쇄형 설문결과는 SPSS(win ver 19.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으며, 각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순위를 산출하고 하위속성별로는 켈달의 W검증을 실시하여 전문가 집단들이 응답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에 대한 일치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였다.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에 대한 선행연구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의 상위차원과 평가지표, 하위속성, 세부항목을 바탕으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의 평가지표 우선순위에 대한 결과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델파이 기법의 조사에 응했던 전문가 집단을 포함하고 비밀관성 비율이 0.1 이하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계층화 의사결정방법인 AHP기법을 적용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은 엑셀 프로그램과 Expert choice 2000을 이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의 상위개념과 평가지표, 하위속성,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체계화하고 최종적으로 도출된 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 있어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자기기입식 방법에 의하여 측정, 평가하고 이들 평가 값을 AHP기법의 적용을 통하여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의 계량화, 위계화를 하였다. 이때 사용된 분석방법으로는 각 상위차원과 평가지표, 하위속성들의 상대적 중요도 또는 가중치를 분석할 수 있는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분석방법 위주로 수행하였다.

제 4 장 연구결과

제1절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평가지표 도출

본 연구의 목적인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선정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3차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을 도출하였다.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델파이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실명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지를 발송한 후 전화와 문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제출 요청을 하였다. 회수한 설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해석하기 어려운 응답에 대해서는 전화와 문자,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면서 내용을 수정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4개의 상위차원과 8개의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항목들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개방형 응답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30명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결과, 8개의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항목은 962개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 가운데 중복되거나 유사한 항목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게 다시 피드백 한 후 정리한 세부항목은 114개로 정리되었다. 114개 세부항목에 대한 공통 속성을 정리하여 전문가 집단들에게 피드백 한 후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8개의 평가지표에 대한 하위속성은 22개로 확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1차 개방형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 <표 4-1>과 같다.

공간중심적 접근차원은 '접근성'과 '연계자원' 평가지표로 구분되며, '접근성'에 대한 하위속성은 '공간적 격리'와 '활동기회의 크기', '초과효용' 등 3개의 하위속성과 14개의 세부항목이 포함되었다. '연계자원'에 대한 하위속성은 '관광관련 시설 규모'와 '지원시설 규모' 등 2개의 하위속성과 14개의 세부항목이 확정되었다.

자원중심적 접근차원에 대한 평가지표는 '가치'와 '매력성'으로 구분되며, '가치'에 대한 하위속성은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 등 2개의 하위속성과 5개의 세부항목이 포함되었다. '매력

성'에 대한 하위속성은 '필수 서비스'와 '일반적 편의', '표적편의' 등 3개의 하위속성과 14개의 세부항목을 확정하였다.

〈표 4-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상위차원	평가지표	하위속성	세부항목
공간중심적 접근차원 (2개)	접근성 (3개)	공간적거리 (4개)	관광목적지까지의 거리와 소요시간, 관광자원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
		활동기회의 크기(4개)	관광목적지까지의 이동교통수단 수, 관광자원까지의 이동교통수단 수, 관광목적지의 인구 수, 경제활동 규모
		초과효용 (6개)	관광목적지까지의 교통비용, 관광자원까지의 교통비용, 숙박시설의 비용, 식음료 비용, 쇼핑비용, 관광관련시설 비용
	연계자원 (2개)	관광관련 시설 규모 (8개)	숙박시설 객실 수와 종류, 식음료시설의 수와 종류, 쇼핑시설의 수와 종류, 안내시설의 수와 위치
		지원시설 규모 (6개)	상하수도 보급율, 쓰레기 처리규모, 치안시설 수, 소방 및 안전시설 수, 의료시설 수, 교통기반시설 규모
자원중심적 접근차원 (2개)	가치 (2개)	이용가치 (2개)	여행이용법, 조건부 가치측정법
		비이용가치 (3개)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
	매력성 (3개)	필수 서비스 (4개)	관광자원의 안정성, 안락성, 정보제공성, 내부 접근성
		일반적 편의 (4개)	관광자원의 사실성, 유희성, 경관성, 의례성
		표적편의 (6개)	관광자원의 독특성, 활동성, 상품화 가능성, 유희성, 교육성, 고유성
수요중심적 접근차원 (2개)	이미지 (2개)	인지적 이미지 (7개)	관광목적지의 기후, 자연환경, 역사문화환경, 이벤트와 축제유무, 주차 및 교통시설(혼잡), 주민환대성, 이국적 분위기
		정서적 이미지 (6개)	관광자원에 대한 분노와 사랑, 슬픔과 기쁨, 혐오와 부러움, 수치심과 자부심, 공포와 평온함, 불만과 만족

상위차원	상위개념	평가지표	세부항목
수요중심적 접근차원 (2개)	관광안전 (3개)	위협요인 (4개)	정치적 위험도, 범죄율, 질병 발생율, 교통사고 발생율
		관리조직 구성 (4개)	안전관련 정부 조직체 구성, 지방정부 조직체 구성, 관광기업 조직체 구성, 관련단체 조직체 구성
		관리절차 구축 (6개)	재난발생 억제 예방활동, 재난발생 억제 제도, 안전관련 대응 매뉴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홍보, 긴급구조 능력 시스템 구축, 피해복구를 위한 조사 및 사후평가
관리중심적 접근차원 (2개)	인적자원 (4개)	기반인력 (5개)	관광산업 규모, 인력비중, 대학 정원 수, 교육프로그램 운영 여부, 교육 이수자 수
		관광고용율 (4개)	고용자 수, 고용비율, 종사원 직업훈련 정도, 서비스 교육 시행율
		종사자 규모 (8개)	안내사 수, 해설사 수, 쇼핑 종사자 수, 숙박시설 종사자 수, 음식시설 종사자 수, 안내사 서비스 수준, 해설사 서비스 수준, 쇼핑 종사자 서비스 수준, 숙박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음식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행정역량 (9개)	관광예산 비중, 관광조직 규모, 발전계획 수립, 투자유치 지원, 홍보지원, 행정전문가 채용, 외부전문가 참여도, 주민참여도
	수용력 (3개)	물리적 수용력 (4개)	관광자원 단위면적당 사람 수, 관광자원 단위면적당 밀도, 관광자원 편의시설 점유율, 관광자원 이용대기 시간
		생태적 수용력 (4개)	동식물 비율과 개체 수, 수질과 토양 침식정도, 폐기물 정화시설 규모, 생태계 면적 및 녹지비율
		사회심리적 수용력 (6개)	환경에 대한 이용수준, 환경의 질 인식, 환경의 악영향 인식, 혼잡 인내수준, 경관관리 질적 최저수준, 관광자원 이용자의 행동과 태도

수요중심적 접근차원에 대한 평가지표는 '이미지'와 '관광안전'으로 구분되며, '이미지'에 대한 하위속성은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 등 2개의 하위속성과 13개의 세부항목이 포함되었다. '관광안전'에 대한 하위속성은 '위협요인'과 '관리조직 구성', '관리절차 구축' 등 3개의 하위속성과 14개의 세부항목을 확정하였다.

관리중심적 접근차원에 대한 평가지표는 '인적자원'과 '수용력'으로 구분되며, '인적자원'에 대한 하위속성은 '기반인력'과 '관광고용율', '종사자 규모', '행정역량' 등 4개의 하위속성과 26개의 세부항목이 포함되었다. '수용력'에 대한 하위속성은 '물리적 수용력'과 '생태적 수용력'과 '사회심리적 수용력' 등 3개의 하위속성과 14개의 세부항목이 도출되었다.

이상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에 대해 4개의 상위차원, 8개의 평가지표, 22개 하위속성과 114개 세부항목으로 정리되었다.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차 델파이 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된 총 114개의 세부항목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에게 피드백 한 후 의견을 수렴하여 8개의 평가지표와 22개의 하위속성을 도출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는 22개의 하위속성별로 114개 세부항목을 배치하여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한 폐쇄형 설문으로 작성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는 각 세부항목별로 중요도를 전문가 집단들이 평가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1차 조사에 참여한 3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였다. 2차 델파이 설문에는 전문가 집단 30명 중 28명의 전문가 집단들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도 설문 배포 후 전화와 문자, 이메일을 통해 조사의 중요성과 성실한 응답을 요청하였다. 중요도 응답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해 켄달 W 검증을 실시하였다. 켄달의 W 검증은 동일한 대상을 평가할 경우에 평가하는 전문가들 간의 일치성 정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또한 세부항목의 정제 기준에 대해서는 평균값 4점보다 낮은 중요도를 보인 세부항목을 제외하였다. 세부항목의 정제기준과 관련하여 오문향(2013)과 오미자(2017), 전진아(2018)은 평균값 5점 이하의 항목을 정제하였으며, 나종민(2010)은 평균값 4.5점 미만인 항목을 정제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오미자(2017)와 양용호(2019)는 요인 평균값보다 낮은 중요도를 보인 항목을 정제하였으며, 노봉호(2016)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하위의 8%를 제외시켰다. 이렇게 세부항목의 정제기준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내용과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 7점 척도에서 중간값인 4점(보통)을 넘지 못한 세부항목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균 4점 이하의 항목을 정제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각 상위개념별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중심적 접근차원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결과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켄달 W 검증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하위속성은 제외되었다.

〈표 4-2〉 공간중심적 접근차원의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 지표	하위 속성	세부 항목	M	SD	Mean Rank	순위	
접근성	공간적 거리	관광목적지까지의 거리	5.71	1.30	2.86	2	
		관광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	5.71	1.01	2.89	1	
		관광자원까지의 거리	4.96	1.45	2.00	4	
		관광자원까지의 소요시간	5.07	1.11	2.25	3	
	n=28, M=5.36, Kendall's W=0.163, Chi-square=13.706, p=.003**						
	활동 계획의 크기	관광목적지의 이동교통수단 수	3.89	1.37	2.84	2	
		관광자원까지의 이동교통수단 수	3.89	1.39	2.88	1	
		관광목적지의 인구 수	2.82	1.49	1.88	4	
		관광목적지의 경제활동 규모	3.35	1.25	2.41	3	
	n=28, M=3.49, Kendall's W=0.153, Chi-square=12.825, p=.005**						
	초과 효용	관광목적지까지의 교통비용	4.89	1.72	4.21	1	
		관광자원까지의 교통비용	4.42	1.42	3.16	4	
		숙박시설의 비용	4.67	1.98	4.30	2	
		식음료시설의 비용	4.57	1.93	4.07	3	
		쇼핑시설의 비용	3.64	1.90	2.57	6	
관광관련시설의 비용		3.96	1.85	2.68	5		
n=28, M=4.36, Kendall's W=0.254, Chi-square=35.513, p=.000**							
연계 자원	관광 관련 시설 규모	숙박시설의 객실 수	3.96	1.66	4.04	5	
		숙박시설의 종류	4.75	1.57	5.50	1	
		식음료시설의 수	3.75	1.50	3.46	7	
		식음료시설의 종류	4.75	1.35	5.41	1	
		쇼핑시설의 수	4.53	1.71	5.16	4	
		쇼핑시설의 종류	4.67	1.76	5.86	3	
		안내시설의 수	3.42	1.59	2.82	8	
		안내시설의 위치	3.85	1.58	3.75	6	
	n=28, M=4.21, Kendall's W=0.254, Chi-square=49.807, p=.000**						
	지원 시설 규모	상하수도 보급율	4.50	1.89	3.21	5	
쓰레기 처리규모		4.75	1.85	3.55	2		
경찰 및 치안시설 수		4.42	1.50	3.27	6		
소방 및 안전시설 수		4.85	1.40	4.04	1		
병원 및 의료시설 수		4.57	1.70	3.43	4		
교통기반시설 규모		4.67	1.33	3.50	3		
n=28, M=4.63, Kendall's W=0.032, Chi-square=4.423, p=.490							

* $p < .05$, ** $p < .01$

이는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에는 포함되지만, 전문가 집단간에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하위속성들로서 '연계자원' 평가지표 중 '지원시설 규모' 하위속성은 제외되었다.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4점 이하의 세부항목을 정제하였다. '접근성'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인 '공간적 격리'와 '활동기회의 크기', '초과효용', 그리고 '연계자원'의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인 '관광관련시설 규모'에 대한 켄달 W 검증 결과는 $p < .01$ 로 나타나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연계자원'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인 '지원시설 규모'의 켄달 W 검증 결과는 $p = 0.490$ 으로 나타나 유의수준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제외되었다. 또한, 세부항목별로 평균값 4점보다 낮게 조사된 '활동기회의 크기'의 4개의 세부항목과 '초과효용'의 2개 항목, '관광관련시설 규모'의 4개 항목은 제외되었다.

2) 자원중심적 접근차원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결과

자원중심적 접근차원의 2차 델파이 조사에서 '가치' 평가요인의 하위속성인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 '매력성' 평가요인의 하위속성인 '일반적 편익'과 '표적 편익'에 대한 켄달 W 검증 결과는 $p < .01$ 로 나타나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매력성'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인 '필수 서비스'에 대한 켄달 W 검증 결과는 $p = 0.746$ 으로 나타나 유의수준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제외하였다. 또한, 세부항목별로 평균값 4점보다 낮게 조사되어 '일반적 편익'의 세부항목인 '관광자원의 의례성' 항목은 제외되었다.

〈표 4-3〉 자원중심적 접근차원의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 지표	하위 속성	세부 항목	M	SD	Mean Rank	순위
가치	이용 가치	여행비용법	5.00	1.36	1.18	2
		조건부 가치측정법	6.00	0.94	1.82	1
	n=28, M=5.50, Kendall's W=0.643, Chi-square=18.000, p=.000**					
	비이용 가치	선택가치	5.96	0.88	2.36	1
		존재가치	4.82	1.33	1.41	3
유산가치		5.57	1.34	2.23	2	
n=28, M=5.45, Kendall's W=0.315, Chi-square=17.638, p=.000**						

(표 계속)

평가 지표	하위 속성	세부 항목	M	SD	Mean Rank	순위	
매 력 성	필수 서비스	관광자원의 안정성	5.17	1.27	2.63	1	
		관광자원의 안락성	5.00	1.05	2.36	3	
		관광자원의 정보제공성	5.14	1.29	2.63	2	
		관광자원의 내부 접근성	4.89	1.44	2.39	4	
	n=28, M=5.05, Kendall's W=0.015, Chi-square=1.227, p=.746						
	일반적 편익	관광자원의 사실성	4.50	1.77	2.20	3	
		관광자원의 유희성	5.78	0.99	3.13	1	
		관광자원의 경관성	5.67	1.02	3.04	2	
		관광자원의 의례성	3.85	1.62	1.64	4	
	n=28, M=4.95, Kendall's W=0.350, Chi-square=29.365, p=.000**						
	표적 편익	관광자원의 독특성	6.00	0.94	4.39	2	
		관광자원의 활동성	4.71	1.41	2.71	6	
		관광자원의 상품화 가능성	5.39	1.22	3.27	3	
		관광자원의 유희성	4.75	1.57	2.55	5	
관광자원의 교육성		5.32	1.27	3.38	4		
관광자원의 고유성		6.25	0.84	4.70	1		
n=28, M=5.40, Kendall's W=0.294, Chi-square=41.157, p=.000**							

* p<.05, ** p<.01

3) 수요중심적 접근차원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결과

수요중심적 접근차원의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이미지'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인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 '관광안전'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인 '위협요인'과 '관리절차 구축'에 대한 켄달 W 검증 결과는 p<.01로 나타나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관광안전'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인 '관리조직 구성'에 대한 켄달 W 검증 결과는 p=0.344로 나타나 유의수준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제외하였다.

또한, 세부항목별로 평균값 4점보다 낮게 조사되어 '정서적 이미지'의 4개 세부항목은 제외되었다.

〈표 4-4〉 수요중심적 접근차원의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 지표	하위 속성	세부 항목	M	SD	Mean Rank	순위	
이미지	인지적 이미지	관광목적지의 기후	5.14	1.50	3.73	5	
		관광목적지의 자연환경	6.10	0.87	5.70	1	
		관광목적지의 역사문화 환경	5.57	1.25	4.39	2	
		관광목적지의 이벤트와 축제	5.50	1.20	4.34	3	
		관광목적지의 주차 및 교통시설(혼잡)	5.32	1.09	4.02	4	
		관광목적지의 주민 환대성	4.64	1.63	2.71	7	
		관광목적지의 이국적 분위기	4.67	1.36	3.11	6	
	n=28, M=5.28, Kendall's W=0.261, Chi-square=43.901, p=.000**						
	정서적 이미지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분노와 사랑	3.64	1.94	3.48	4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슬픔과 기쁨	4.07	1.71	3.46	2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혐오와 부러움	3.50	1.64	3.11	5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수치심과 자부심	3.71	1.56	3.20	3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공포와 평온함	3.50	1.83	3.21	5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불만과 만족	5.32	1.63	4.54	1	
n=28, M=3.95, Kendall's W=0.116, Chi-square=16.193, p=.006**							
관광 안전	위협 요인	관광목적지의 정치적 위험도	5.21	1.66	2.80	2	
		관광목적지의 범죄율	5.50	1.13	2.75	1	
		관광목적지의 질병 발생율	4.96	1.83	2.61	3	
		관광목적지의 교통사고 발생율	4.46	1.77	1.84	4	
	n=28, M=5.03, Kendall's W=0.162, Chi-square=13.630, p=.003**						
	관리 조직 구성	안전관련 정부조직체 구성 여부	3.28	1.24	2.25	4	
		안전관련 지방정부 조직체 구성 여부	3.82	1.27	2.59	2	
		안전관련 관광기업 조직체 구성 여부	4.00	1.63	2.73	1	
		안전관련 관련단체 조직체 구성 여부	3.75	1.23	2.43	3	
	n=28, M=3.71, Kendall's W=0.040, Chi-square=3.328, p=.344						
	관리 절차 구축	재난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활동 수립	4.96	1.45	3.63	3	
		재난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 마련	4.85	1.40	3.46	4	
		안전관련 대응 매뉴얼 여부	5.35	1.44	4.41	1	
		안전관련 피해의 최소를 위한 홍보 여부	4.75	1.26	3.05	5	
긴급구조 능력 시스템 구축 여부		5.07	1.53	4.07	2		
피해복구를 위한 조사 및 사후평가체계		4.21	1.68	2.38	6		
n=28, M=4.86, Kendall's W=0.221, Chi-square=31.004, p=.000**							

* p<.05, ** p<.01

4) 관리중심적 접근차원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결과

관리중심적 접근차원의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인적자원'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인 '기본인력' 과 '종사자 규모', '행정역량', 그리고 '수용력'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인 '생태적 수용력'과 '사회 심리적 수용력'에 대한 켄달 W 검증 결과는 $p < 0.01$, '인적자원'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인 '관광 고용율'은 $p < 0.05$ 수준으로 나타나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수용력'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인 '물리적 수용력'에 대한 켄달 W 검증 결과는 $p = 0.590$ 으로 나타나 유의수준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제외하였다. 또한, 세부항목별로 평균값 4점보다 낮게 조사되어 제외된 세부항목은 '기본인력'의 '관광관련 대학 정원 수'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표 4-5〉 관리중심적 접근차원의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 지표	하위 속성	세부 항목	M	SD	Mean Rank	순위	
인적 자원	기본 인력	관광산업 인력규모	4.60	1.19	3.95	1	
		관광산업 인력 비중	4.00	1.33	3.02	3	
		관광관련 대학 정원 수	3.03	1.34	1.70	5	
		관광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부	4.46	1.26	3.63	2	
		관광관련 교육 이수자 수	4.00	1.33	2.71	3	
	n=28, M=4.02, Kendall's W=0.416, Chi-square=46.586, p=.000**						
	관광 고용율	관광관련 고용자 수	5.50	1.23	2.84	1	
		관광관련 고용비율	4.92	1.65	2.07	4	
		관광기업의 종사원 직업훈련 정도	5.39	1.31	2.61	2	
		관광기업의 서비스 교육 시행율	5.39	1.10	2.48	2	
	n=28, M=5.30, Kendall's W=0.094, Chi-square=7.897, p=.048*						
	종사자 규모	통역안내사 및 해설사 수	5.33	1.33	5.06	5	
		쇼핑 종사자 수	4.37	1.59	2.85	6	
		숙박시설 종사자 수	4.29	1.83	3.11	7	
		음식시설 종사자 수	4.22	1.62	2.74	8	
		통역안내사 및 해설사 서비스 수준	5.58	1.15	5.37	4	
		쇼핑 종사자 서비스 수준	5.59	1.04	5.43	3	
		숙박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5.66	1.03	5.65	2	
		음식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5.74	1.05	5.80	1	
	n=28, M=5.10, Kendall's W=0.472, Chi-square=89.250, p=.000**						

(표 계속)

평가 지표	하위 속성	세부 항목	M	SD	Mean Rank	순위	
인적 자원	행정 역량	관광관련 예산 비중	5.53	1.10	5.43	3	
		관광관련 조직 규모	5.28	1.51	4.75	6	
		관광관련 발전계획 수립 여부	5.39	1.10	4.93	5	
		관광관련 면세 혜택 여부	5.42	1.37	5.18	4	
		관광관련 투자유치 지원 여부	5.17	1.49	4.57	7	
		관광관련 홍보 지원 여부	5.57	1.25	5.93	2	
		관광관련 행정 전문가 채용	4.50	1.81	3.66	9	
		관광정책 외부전문가 참여도	5.07	1.33	4.20	8	
		관광정책 주민참여도	5.85	1.32	6.36	1	
n=28, M=5.31, Kendall's W=0.135, Chi-square=30.140, p=.000**							
수용력	물리적 수용력	관광자원 단위면적당 사람 수	5.25	1.62	2.66	2	
		관광자원 단위면적당 밀도	5.10	1.37	2.32	3	
		관광자원 편의시설 점유율	5.07	1.53	2.39	4	
		관광자원 이용대기시간	5.35	1.31	2.63	1	
	n=28, M=5.19, Kendall's W=0.023, Chi-square=1.918, p=.590						
	생태적 수용력	동식물 비율과 개체 수	4.14	1.53	1.91	4	
		수질과 토양 침식정도	4.46	1.23	1.96	3	
		폐기물 정화시설 규모	5.46	1.07	3.23	1	
		생태계 면적 및 녹지비율	5.28	1.11	2.89	2	
	n=28, M=4.83, Kendall's W=0.408, Chi-square=34.236, p=.000**						
	사회 심리적 수용력	환경에 대한 이용수준	5.60	1.13	4.09	1	
		환경의 질에 대한 인식	5.35	1.22	3.61	4	
		환경의 악영향에 대한 인식	5.46	1.17	3.91	2	
혼잡도에 대한 인내수준		5.03	1.40	3.32	5		
경관 관리의 질적 최저수준		4.57	1.34	2.41	6		
관광자원 이용자의 행동과 태도		5.39	1.31	3.66	3		
n=28, M=5.23, Kendall's W=0.158, Chi-square=22.083, p=.001**							

* p<.05, ** p<.01

5)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정제된 평가지표와 하위속성, 세부항목은 다음 <표 4-6>과 같다.

2차 델파이 조사는 각 평가지표에 대한 하위속성과 세부항목에 대한 중요도 검증차원에서 수행되었으며, 3차 델파이 조사에 사용될 하위속성과 세부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조사의 개방형 응답을 통해 유형화를 거친 세부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7점 척도로 조사하여 평균 4점보다 낮은 세부항목과 켄달 W 검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하위속성을 제외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 도출된 22개 하위속성, 114개 세부 항목은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정제과정을 통해 17개 하위속성, 80개 세부항목으로 정리되어 3차 델파이 설문에 활용하였다.

공간중심적 접근차원의 '접근성' 평가지표는 2개 하위속성 8개 항목, '연계자원'은 1개 하위속성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자원중심적 접근차원의 '가치' 평가지표는 2개 하위속성 5개 항목, '매력성' 평가지표는 2개 하위속성 9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수요중심적 접근차원의 '이미지' 평가지표는 2개 하위속성 9개 항목, '관광안전' 평가지표는 2개 하위속성 1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관리중심적 접근차원의 '인적자원' 평가지표는 4개 하위속성 23개 항목, '수용력' 평가지표는 2개 하위속성 1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표 4-6〉 2차 델파이 조사결과 항목 수

상위차원	평가지표	하위속성	1차 조사에서 도출된 세부항목의 수	2차 조사에서 도출된 세부항목의 수
공간중심적 접근차원	접근성	공간적 거리	4	4
		활동기회의 크기	4	0
		초과효용	6	4
	연계자원	관광관련 시설 규모	8	4
		지원시설 규모	6	0
자원중심적 접근차원	가치	이용가치	2	2
		비이용가치	3	3
	매력성	필수 서비스	4	0
		일반적 편의 표적편의	4 6	3 6
수요중심적 접근차원	이미지	인지적 이미지	7	7
		정서적 이미지	6	2
	관광안전	위험요인	4	4
		관리조직 구성 관리절차 구축	4 6	0 6
관리중심적 접근차원	인적자원	기반인력	5	4
		관광고용율	4	4
		종사자 규모	8	8
		행정역량	9	9
	수용력	물리적 수용력	4	0
		생태적 수용력 사회심리적 수용력	4 6	4 6
계			114	80

3.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2차 델파이 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된 17개 하위속성과 80개의 세부항목에 대한 내용을 전문가 집단에게 피드백 한 후 평가지표와 하위속성, 세부항목 분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3차 델파이 설문은 각 평가지표별로 하위항목과 세부항목을 배치하여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한 폐쇄형 설문으로 작성하였다. 3차 델파이 조사는 2차 조사에 참여한 28명의 전문가 중 의견 일치도가 벗어나는 응답자 4명을 제외한 24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였다.

3차 델파이 조사에서도 설문 배포 후 전화와 문자, 이메일을 통해 조사의 중요성과 성실한 응답을 요청하였으며, 배포한 전문가 집단 24명 모두 조사에 대해 응답하였다. 3차 델파이 조사에서도 전문가 집단 간에 중요도 평가에서 같은 의견이 도출되는지를 판단하는 검증방법으로 켄달 W 검증을 실시하였다. 델파이 3차 조사 결과는 각 상위차원별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중심적 접근차원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결과

〈표 4-7〉 공간중심적 접근차원의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 지표	하위 속성	세부 항목	M	SD	Mean Rank	순위
접근성	공간적 격리	관광목적지까지의 거리	5.54	1.31	2.85	2
		관광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	5.58	1.01	2.98	1
		관광자원까지의 거리	4.70	1.39	1.94	4
		관광자원까지의 소요시간	4.83	1.00	2.23	3
		n=24, M=5.16, Kendall's W=0.196, Chi-square=14.143, p=.003**				
	초과 효용	관광목적지까지의 교통비용	4.87	1.72	2.85	1
		관광자원까지의 교통비용	4.37	1.37	1.98	4
		숙박시설의 비용	4.54	1.93	2.69	2
		식음료시설의 비용	4.41	1.86	2.48	3
		n=24, M=4.27, Kendall's W=0.254, Chi-square=35.513, p=.000**				
연계 자원	관광 관련 시설 규모	숙박시설의 종류	4.58	1.50	2.38	3
		식음료시설의 종류	4.70	1.36	2.38	1
		쇼핑시설의 수	4.54	1.74	2.48	4
		쇼핑시설의 종류	4.67	1.80	2.77	2
	n=24, M=4.16, Kendall's W=0.028, Chi-square=2.051, p=.562					

* p<.05, ** p<.01

3차 델파이 조사에서도 켈달 W 검증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하위속성은 제외되었다.

공간중심적 접근차원의 3차 델파이 조사에서 '접근성'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인 '공간적 격리'와 '초과효용'에 대한 켈달 W 검증 결과는 $p < .01$ 로 나타나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연계자원'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인 '관광관련시설 규모'에 대한 켈달 W 검증 결과는 $p = 0.562$ 로 나타나 유의수준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제외하였다. 그러나, 세부항목별로 평균값 4점보다 낮게 조사되어 제외한 세부항목은 없었다.

2) 자원중심적 접근차원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결과

〈표 4-8〉 자원중심적 접근차원의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 지표	하위 속성	세부 항목	M	SD	Mean Rank	순위
가치	이용 가치	여행비용법	4.83	1.37	1.19	2
		조건부 가치측정법	5.87	0.94	1.81	1
	n=24, M=4.16, Kendall's W=0.625, Chi-square=15.000, p=.000**					
	비이용 가치	선택가치	5.83	0.86	2.31	1
		존재가치	4.70	1.33	1.38	3
		유산가치	5.54	1.38	2.31	2
n=24, M=4.59, Kendall's W=0.356, Chi-square=17.089, p=.000**						
매력성	일반적 편익	관광자원의 사실성	4.45	1.74	1.60	3
		관광자원의 유희성	5.58	0.92	2.27	1
		관광자원의 경관성	5.50	0.97	2.13	2
	n=24, M=5.35, Kendall's W=0.153, Chi-square=7.351, p=.025*					
	표적 편익	관광자원의 독특성	5.87	0.94	4.42	2
		관광자원의 활동성	4.62	1.43	2.79	5
		관광자원의 상품화 가능성	5.25	1.22	3.27	3
		관광자원의 유희성	4.58	1.55	2.52	6
		관광자원의 교육성	5.12	1.23	3.29	4
		관광자원의 고유성	6.12	0.85	4.71	1
n=24, M=5.36, Kendall's W=0.289, Chi-square=34.657, p=.000**						

* $p < .05$, ** $p < .01$

자원중심적 접근차원의 3차 델파이 조사에서 '가치'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인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 그리고 '매력성'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인 '표적 편익'에 대한 켄달 W 검증 결과는 $p < .01$, '일반적 편익'은 $p < .05$ 로 나타나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항목별로 평균값 4점보다 낮게 조사되어 제외한 세부항목은 없었다.

3) 수요중심적 접근차원에 대한 3차 델파이 조사결과

〈표 4-9〉 수요중심적 접근차원의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상위 개념	평가 요인	세부 항목	M	SD	Mean Rank	순위	
이미지	인지적 이미지	관광목적지의 기후	5.00	1.41	3.67	5	
		관광목적지의 자연환경	5.95	0.85	5.75	1	
		관광목적지의 역사문화 환경	5.41	1.24	4.40	2	
		관광목적지의 이벤트와 축제	5.33	1.16	4.33	3	
		관광목적지의 주차 및 교통시설(혼잡)	5.16	1.09	4.08	4	
		관광목적지의 주민 환대성	4.45	1.55	2.56	7	
		관광목적지의 이국적 분위기	4.58	1.38	3.21	6	
	n=24, M=5.13, Kendall's W=0.276, Chi-square=39.673, p=.000**						
	정서적 이미지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슬픔과 기쁨	3.92	1.63	1.25	2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불만과 만족	5.16	1.68	1.75	1	
n=24, M=3.83, Kendall's W=0.500, Chi-square=12.000, p=.001**							
관광 안전	위협 요인	관광목적지의 정치적 위험도	5.12	1.54	2.83	2	
		관광목적지의 범죄율	5.29	1.08	2.75	1	
		관광목적지의 질병 발생율	4.83	1.73	2.60	3	
		관광목적지의 교통사고 발생율	4.25	1.70	1.81	4	
		n=24, M=4.87, Kendall's W=0.170, Chi-square=12.276, p=.006**					
	관리 절차 구축	재난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활동 수립	4.87	1.48	3.71	2	
		재난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 마련	4.79	1.41	3.56	4	
		안전관련 대응 매뉴얼 여부	5.25	1.45	4.44	1	
		안전관련 피해의 최소를 위한 홍보 여부	4.62	1.27	3.08	5	
		긴급구조 능력 시스템 구축 여부	4.87	1.48	3.96	2	
피해복구를 위한 조사 및 사후평가체계	4.00	1.66	2.25	6			
n=24, M=4.73, Kendall's W=0.236, Chi-square=28.282, p=.000**							

* $p < .05$, ** $p < .01$

수요중심적 접근차원의 3차 델파이 조사에서 '이미지'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인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 그리고 '관광안전'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인 '위협요인'과 '관리절차 구축'에 대한 켄달 W 검증 결과는 $p < .01$ 로 나타나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세부항목별로 평균값 4점보다 낮게 조사되어 제외된 세부항목은 '정서적 이미지'의 1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4) 관리중심적 접근차원에 대한 3차 델파이 조사결과

관리중심적 접근차원의 3차 델파이 조사에서 '인적자원'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인 '기본인력'과 '종사자 규모', '행정역량', 그리고 '수용력'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인 '생태적 수용력'과 '사회심리적 수용력'에 대한 켄달 W 검증 결과는 $p < 0.01$ 로 나타나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0〉 관리중심적 접근차원의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 지표	하위 속성	세부 항목	M	SD	Mean Rank	순위	
인적 자원	기본 인력	관광산업 인력규모	4.41	1.10	2.96	1	
		관광산업 인력 비중	3.83	1.34	2.31	3	
		관광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부	4.33	1.27	2.77	2	
		관광관련 교육 이수자 수	3.83	1.30	1.96	3	
	n=24, M=3.87, Kendall's W=0.181, Chi-square=13.056, p=.005**						
	관광 고용율	관광관련 고용자 수	5.33	1.20	2.77	1	
		관광관련 고용비율	4.83	1.71	2.15	4	
		관광기업의 종사원 직업훈련 정도	5.33	1.34	2.71	1	
		관광기업의 서비스 교육 시행율	5.16	1.00	2.38	3	
	n=24, M=5.16, Kendall's W=0.078, Chi-square=5.604, p=.133						
	종사자 규모	통역안내사 및 해설사 수	5.04	1.22	4.83	5	
		쇼핑 종사자 수	4.13	1.57	2.85	7	
		숙박시설 종사자 수	4.21	1.73	3.17	6	
		음식시설 종사자 수	4.04	1.63	2.78	8	
		통역안내사 및 해설사 서비스 수준	5.43	1.16	5.43	4	
		쇼핑 종사자 서비스 수준	5.44	1.03	5.50	3	
		숙박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5.47	0.99	5.63	2	
		음식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5.56	1.03	5.80	1	
	n=24, M=4.91, Kendall's W=0.462, Chi-square=74.462, p=.000**						

(표 계속)

평가 지표	하위 속성	세부 항목	M	SD	Mean Rank	순위	
인적 자원	기반 인력	관광산업 인력규모	4.41	1.10	2.96	1	
		관광산업 인력 비중	3.83	1.34	2.31	3	
		관광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부	4.33	1.27	2.77	2	
		관광관련 교육 이수자 수	3.83	1.30	1.96	3	
	n=24, M=3.87, Kendall's W=0.181, Chi-square=13.056, p=.005**						
인적 자원	행정 역량	관광관련 예산 비중	5.37	1.09	5.40	3	
		관광관련 조직 규모	5.12	1.54	4.71	6	
		관광관련 발전계획 수립 여부	5.20	1.06	4.81	5	
		관광관련 면세 혜택 여부	5.21	1.35	5.00	4	
		관광관련 투자유치 지원 여부	4.91	1.44	4.29	7	
		관광관련 홍보 지원 여부	5.54	1.31	6.27	2	
		관광관련 행정 전문가 채용	4.45	1.79	3.75	9	
		관광정책 외부전문가 참여도	4.91	1.34	4.25	7	
		관광정책 주민참여도	5.75	1.39	6.52	1	
n=24, M=5.16, Kendall's W=0.156, Chi-square=29.938, p=.000**							
수용력	생태적 수용력	동식물 비율과 개체 수	4.01	1.50	1.90	4	
		수질과 토양 침식정도	4.37	1.27	2.00	3	
		폐기물 정화시설 규모	5.33	1.04	3.27	1	
		생태계 면적 및 녹지비율	5.08	1.01	2.83	2	
	n=24, M=4.69, Kendall's W=0.401, Chi-square=28.880, p=.000**						
	사회 심리적 수용력	사회 심리적 수용력	환경에 대한 이용수준	5.45	1.14	4.23	1
			환경의 질에 대한 인식	5.12	1.15	3.54	4
			환경의 악영향에 대한 인식	5.25	1.11	3.90	2
			혼잡도에 대한 인내수준	4.79	1.35	3.33	5
			경관 관리의 질적 최저수준	4.29	1.23	2.40	6
관광자원 이용자의 행동과 태도			5.16	1.27	3.60	3	
n=24, M=5.01, Kendall's W=0.163, Chi-square=19.513, p=.002**							

* p<.05, ** p<.01

그러나 '인적자원'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인 '관광고용율'에 대한 켄달 W 검증 결과는 p=0.133으로 나타나 유의수준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제외하였다. 또한, 세부항목별로 평균값 4점보다 낮게 조사되어 제외된 세부항목은 '기반인력'의 2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5)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정제된 하위속성과 세부항목은 다음 <표 4-11>과 같다.

<표 4-11> 3차 델파이 조사결과 항목 수

상위차원	상위개념	평가요인	2차 조사에서 도출된 항목의 수	3차 조사에서 도출된 항목의 수
공간중심적 접근차원	접근성	공간적 거리 초과효용	4 4	4 4
	연계자원	관광관련 시설 규모	4	0
자원중심적 접근차원	가치	이용가치 비이용가치	2 3	2 3
	매력성	일반적 편의 표적편의	3 6	3 6
수요중심적 접근차원	이미지	인지적 이미지 정서적 이미지	7 2	7 1
	관광안전	위협요인 관리절차 구축	4 6	4 6
관리중심적 접근차원	인적자원	기반인력 관광고용율 종사자 규모 행정역량	4 4 8 9	2 0 8 9
	수용력	생태적 수용력 사회심리적 수용력	4 6	4 6
계			80	69

3차 델파이 조사는 2차 조사의 폐쇄형 응답을 정제화한 후 하위속성과 세부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7점 척도로 조사하여 평가요인 평균값이 4점 이하인 세부항목과 켈달 W 검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하위속성을 제외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 도출된 8개 평가지표, 17개 하위속성, 80개 세부항목은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정제과정을 통해 7개 평가지표, 15개 하위속성, 69개 세부항목으로 정리되었다.

3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전문가 집단의 피드백과 회의를 거쳐 '수요중심적 접근차원' '이미지' 평가지표의 '정서적 이미지' 하위속성의 1개 세부항목을 '인지적 이미지'와 통합하여 '이미

지' 하위속성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관리중심적 접근차원' '인적자원' 평가지표의 '기본인력' 하위속성의 세부항목을 '종사자 규모' 하위속성과 통합하여 '인력규모' 하위속성으로 정리하였다. 최종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은 13개, 69개 세부항목으로 정리되었다.

4. 최종 관광개발 잠재력 평가지표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따라 다음 <표 4-12>와 같이 총 7개의 평가지표와 13개의 하위속성, 69개의 세부 항목을 포함한 최종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상위차원과 평가지표는 선행연구와 델파이 조사를 통해 4개의 차원과 7개의 평가지표로 도출하였다. 상위차원은 '공간중심적 접근'과 '자원중심적 접근', '수요중심적 접근', '관리중심적 접근'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공간중심적 접근' 차원은 '접근성' 1개의 평가지표, '자원중심적 접근'차원은 '가치'와 '매력성' 2개의 평가지표, '수요중심적 접근'차원은 '이미지'와 '관광안전' 2개의 평가지표, '관리중심적 접근'차원은 '인적자원'과 '수용력' 2개의 평가지표로 총 7개의 평가지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상위차원과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13개 하위속성과 69개 세부항목을 도출하였다.

'접근성' 평가지표에는 '공간적 격리'와 '초과효용' 등 2개의 하위속성이 포함되었으며, 각각 4개의 세부항목이 포함되어 총 8개 세부항목이 결정되었다.

'가치' 평가지표에는 '이용가치'와 '비용가치' 등 2개의 하위속성이 포함되었으며, 5개의 세부항목이 결정되었다. 또한 '매력성' 평가지표에는 '일반적 편익'과 '표적 편익' 등 2개의 하위속성이 포함되며 9개 세부항목이 결정되었다.

'이미지' 평가지표는 '이미지' 하위속성 1개가 포함되고 8개 항목이 결정되었으며, '관광안전' 평가지표는 '위협요인'과 '관리절차 구축' 등 2개 하위속성이 포함되며 10개 세부항목이 결정되었다.

'인적자원' 평가지표에는 '인력규모'와 '행정역량' 등 2개 하위속성이 포함되고 19개 항목이 결정되었으며, '수용력' 평가지표는 '생태적 수용력'과 '사회심리적 수용력' 등 2개 하위속성과 10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표 4-12〉 최종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

상위차원	평가지표	하위속성	세부항목
공간중심적 접근 (12)	접근성	공간적 격리	거주지에서 관광목적지까지의 거리 거주지에서 관광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 거주지에서 관광자원까지의 거리 거주지에서 관광자원까지의 소요시간
		초과효용	거주지에서 관광목적지까지의 교통비용 거주지에서 관광자원까지의 교통비용 숙박시설 이용 비용 식음료시설 이용 비용
자원중심적 접근 (11)	가치	이용가치	여행비용법 측정 조건부 가치 측정법 측정
		비이용가치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
	매력성	일반적 편의	관광자원의 사실성 관광자원의 유희성 관광자원의 경관성
		표적 편의	관광자원의 독특성 관광자원의 활동성 관광자원의 상품화 가능성 관광자원의 유희성 관광자원의 교육성 관광자원의 고유성
수요중심적 접근	이미지	이미지	관광목적지의 기후 관광목적지의 자연환경 관광목적지의 역사문화 환경 관광목적지의 이벤트와 축제 유무 관광목적지의 주차 및 교통시설(혼잡) 관광목적지의 주민 현대성 관광목적지의 이국적 분위기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불만과 만족
	관광안전	위협요인	관광목적지의 정치적 위험도 관광목적지의 범죄율 관광목적지의 질병 발생율 관광목적지의 교통사고 발생율
관리절차 구축		재난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활동 수립 재난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 여부 안전관련 대응 매뉴얼 여부 안전관련 피해의 최소를 위한 홍보 여부 긴급구조 능력 시스템 구축 여부 피해복구를 위한 조사 및 사후평가체계 여부	

(표 계속)

상위차원	상위개념	평가요인	세부항목
관리중심적 접근	인적자원	인력규모	관광산업 인력규모 관광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부 통역안내사 및 해설사 수 쇼핑 종사자 수 숙박시설 종사자 수 음식시설 종사자 수 통역안내사 및 해설사 서비스 수준 쇼핑 종사자 서비스 수준 숙박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음식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행정역량	관광관련 예산 비중 관광관련 조직 규모 관광관련 발전계획 수립 여부 관광관련 면세 혜택 여부 관광관련 투자유치 지원 여부 관광관련 홍보 지원 여부 관광관련 행정 전문가 채용 관광정책 외부전문가 참여도 관광정책 주민참여도
	수용력	생태적 수용력	동식물 비율과 개체 수 수질과 토양 침식정도 폐기물 정화시설 규모 생태계 면적 및 녹지비율
		사회 심리적 수용력	환경에 대한 이용수준 환경의 질에 대한 인식 환경의 악영향에 대한 인식 혼잡도에 대한 인내수준 경관 관리의 질적 최저수준 관광자원 이용자의 행동과 태도
4개 상위차원	7개 평가지표	13개 하위속성	69개 세부항목

제2절 AHP 조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AHP의 첫 번째 단계인 의사결정 계층도를 다음 <표 4-13>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가 최상위에 위치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4개의 상위차원이 제2계층에 위치하고 있다. 상위차원 아래에는 선행연구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정제된 7개의 평가지표가 자리하고 있으며, 최하위계층에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정제한 13개의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이 위치하고 있다.

〈표 4-13〉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 의사결정 계층도

목적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						
차원	공간중심적 접근	자원중심적 접근		수요중심적 접근		관리중심적 접근	
평가 지표	접근성	가치	매력성	이미지	관광 안전	인적 자원	수용력
하위 속성	공간적 거리	이용가치	일반적 편의	이미지	위험요인	인력규모	생태적 수용력
	초과효용	비이용 가치	표적 편익		관리절차 구축	행정역량	사회 심리적 수용력

AHP에는 두 가지 방식(mode)이 있는데, 하나는 분배 방식 혹은 우월 방식(distribute mode or dominance mode)이고 다른 하나는 이상적 방식(ideal mode)이다.

우월 방식은 의사결정자가 계층 하에서 모든 타 대안보다 독보적인 하나의 대안이 어떠한 정도인지를 고려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이상적 방식은 의사결정자가 주어진 기준에 대하여 각 대안이 얼마나 잘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할 때 사용된다(Millet & Saaty,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자 이상적 방식을 적용하였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으로 연구에서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하지는 않는다. 관광관련 연구에서의 AHP 유효표본 수에 대한 동향을 보면 염진철·박한나(2003)는 12부, 정승준·한범수(2006)는 18부, 나종민(2010)은 18부, 오문향(2013) 15부로서 대체로 유효표본의 수가 평균 20부 내외로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HP 활용에 있어서 유효표본 수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였느냐에 따라, 응답결과에 대한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가 분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관광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18부의 설문을 배포하여 전화통화와 문자, 이메일을 활용하여 18부의 설문을 회수하였다. 응답 일관성 비율이 0.1 이하인 응답자의 결과만을 갖고 분석하였으며, 선행 연구와 비교 하였을 때 15부의 유효 표본은 분석을 하는데 충분한 표본 수라고 판단된다(이상민, 2014).

1. 상위차원 상대적 가중치 및 우선순위

상위차원의 가중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4-14>와 같다. ‘자원중심적 접근’ 차원이 56.6%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다.

<표 4-14> 상위차원 우선순위 및 전체 대비 상대적 가중치

순위	상위차원	항목 수	상대적 가중치
1	자원중심적 접근	14	0.566
2	수요중심적 접근	18	0.258
3	관리중심적 접근	29	0.121
4	공간중심적 접근	8	0.055
계		69	1.000

주 : C.R. =0.044 <0.1

‘수요중심적 접근’ 차원은 25.82%, ‘관리중심적 접근’ 차원은 12.1%, ‘공간중심적 접근’ 차원은 5.5% 순으로 나타났다. 비일관성 비율(CR)은 0.044로 나타나,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평가지표 상대적 가중치 및 우선순위

평가지표에 대한 상위개념의 가중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4-15>와 같다.

‘자원중심적 접근’ 차원 중에는 ‘가치’ 평가지표가 69.7%로 ‘매력성’ 평가지표 30.3%에 비해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중심적 접근’ 차원 중에는 ‘이미지’ 평가지표가 77.3%로 ‘관광안전’ 평가지표 22.7%에 비해 상대적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중심적 접근’ 차원 중에는 ‘인적자원’ 평가지표가 56.5%로 ‘수용력’ 평가지표 43.5%에 비해 상대적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중심적 접근’ 차원에서는 ‘접근성’요인만 있기 때문에 상대적 가중치는 없다.

비일관성 비율(CR)은 0.00으로 나타나,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5> 평가지표 상대적 가중치 및 우선순위

상위차원	평가지표	상대적 가중치	내부 순위	C.R.
자원중심적 접근 (0.566)	가치	0.697	1	0.00
	매력성	0.303	2	
수요중심적 접근 (0.258)	이미지	0.773	1	0.00
	관광안전	0.227	2	
관리중심적 접근 (0.121)	인적자원	0.565	1	0.00
	수용력	0.435	2	
공간중심적 접근 (0.055)	접근성	1	1	0.00

주 : 평가지표는 상대적 중요도 크기 순서로 배열함

3. 하위속성 상대적 가중치 및 우선순위

상위차원과 평가지표에 대한 하위속성의 가중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4-16>과 같다.

상위차원 대비 하위속성의 상대적 가중치는 ‘이용가치’ 속성이 2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9.9%의 ‘이미지’ 속성, 15.2%의 ‘비이용가치’ 속성, 12.0%의 ‘표적 편익’ 속성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5.5%의 ‘인적자원’ 속성, 5.2%의 ‘일반적 편익’ 속성, 4.8%의 ‘공간적 격리’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 대비 하위속성의 상대적 가중치는 ‘자원중심적 접근’ 차원에서는 ‘이용가치’ 속성이 43.6%, ‘비이용가치’ 속성은 26.8%, ‘표적 편익’ 속성은 21.1%, ‘일반적 편익’ 속성은 9.2% 순으로 나타났다.

‘수요중심적 접근’ 차원에서는 ‘이미지’ 속성이 77.3%, ‘관리절차 구축’ 속성은 13.2%, ‘위협요인’은 9.5%로 나타났다.

‘관리중심적 접근’ 차원에서는 ‘행정역량’ 속성이 45.7%, ‘사회심리적 수용력’ 속성은 32.9%, ‘인력규모’ 속성 10.8%, ‘생태적 수용력’ 속성 10.6% 순으로 나타났다.

‘공간 중심적 접근’ 차원에서는 ‘공간적 격리’ 속성은 86.5%, ‘초과 효용’ 속성은 13.5%로 조사되었다.

하위속성 대비 상대적 가중치는 ‘가치’ 평가지표 중에는 ‘이용가치’ 하위속성이 62.5%로 ‘비이용가치’ 하위속성 38.5%에 비해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력성’ 평가지표 중에는 ‘표적 편익’ 하위속성이 69.7%로 ‘일반적 편익’ 하위속성 30.3%에 비해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평가지표에는 ‘이미지’ 하위속성만 있어서 가중치를 측정하지 않았다.

‘관광안전’ 평가지표의 ‘관리절차 구축’ 하위속성은 58.3%로 ‘위협요인’ 하위속성 41.7%에 비해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 평가지표의 ‘행정역량’ 하위속성은 80.8%로 ‘인력규모’ 하위속성 19.2%에 비해 높은 가중치를 보였다.

‘수용력’ 평가지표의 ‘사회심리적 수용력’ 하위속성은 75.6%로 ‘생태적 수용력’ 하위속성 24.4%에 비해 높은 가중치를 보였으며, ‘접근성’ 평가지표의 ‘공간적 격리’ 하위속성은 86.5%, ‘초과 효용’ 하위속성은 13.5%로 나타났다. 전체 비일관성 비율(CR)은 0.00으로 나타나,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6〉 평가요인 우선순위 및 상위개념 대비 상대적 가중치

상위차원	평가지표	하위속성	하위속성 대비 상대적 가중치	평가지표 대비 상대적 가중치	상위차원 대비 상대적 가중치	상위차원 우선순위
자원 중심적 접근 (0.566)	가치 (0.697)	이용가치	0.625	0.436	0.247	1
		비용가치	0.385	0.268	0.152	3
	매력성 (0.303)	표적 편익	0.697	0.211	0.120	4
		일반적 편익	0.303	0.092	0.052	6
수요 중심적 접근 (0.258)	이미지 (0.773)	이미지	1	0.773	0.199	2
	관광안전 (0.227)	관리절차 구축	0.583	0.132	0.034	9
		위협요인	0.417	0.095	0.024	10
관리 중심적 접근 (0.121)	인적자원 (0.565)	행정역량	0.808	0.457	0.055	5
		인력규모	0.192	0.108	0.013	11
	수용력 (0.435)	사회심리적 수용력	0.756	0.329	0.040	8
		생태적 수용력	0.244	0.106	0.013	11
공간 중심적 접근 (0.055)	접근성 (1.00)	공간적 격리	0.865	0.865	0.048	7
		초과효용	0.135	0.135	0.007	13

주 : 평가요인은 상대적 중요도 크기 순서로 배열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상위차원에서는 ‘자원 중심적 접근’이 가장 중요한 차원임을 알 수 있으며, 평가지표에서는 자원중심적 접근의 ‘가치’ 평가지표와 수요중심적 접근의 ‘이미지’ 평가지표, 관리중심적 접근의 ‘행정역량’ 평가지표, 공간중심적 접근의 ‘접근성’ 평가지표가 중요한 평가지표임을 알 수 있다.

하위속성별로는 ‘이용가치’ 요인과 ‘비용가치 요인’, ‘이미지’ 요인, ‘표적편익’, ‘행정역량’ 이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의 하위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위속성임을 알 수 있다.

제3절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 활용방안

평가지표의 적용은 지표의 유형에 따라 정성진단과 정량지표로 구분하고 총점은 100점으로 하위속성별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로 배분하였다.

〈표 4-17〉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의 적용

상위차원	평가지표	하위속성	평가점수	평가유형
자원 중심적 접근 (57점)	가치 (40점)	이용가치	25	정성
		비이용가치	15	정성
	매력성 (17점)	표적 편익	12	정성
		일반적 편익	5	정성
수요 중심적 접근 (25점)	이미지 (20점)	이미지	20	정성
	관광안전 (5점)	관리절차 구축	3	정량
		위협요인	2	정량/정성
관리 중심적 접근 (12점)	인적자원 (7점)	행정역량	6	정량
		인력규모	1	정량/정성
	수용력 (5점)	사회심리적 수용력	4	정성
		생태적 수용력	1	정량
공간 중심적 접근 (6점)	접근성 (6점)	공간적 격리	5	정량
		초과효용	1	정량/정성

1. 평가지표 측정방법

1) 자원중심적 접근(57점)

자원중심적 접근차원의 평가 점수는 57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가치와 매력성 평가점수는 관광목적지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활용한 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한다.

〈표 4-18〉 자원중심적 접근의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 적용

평가 지표	하위속성	세부항목	평가 유형	측정방법	점수산출	
가치 (40점)	이용가치 (25점)	1) 여행비용법	정성	TCM /CVM 측정 (비교대상 관광객 원의 가치를 금액 으로 측정한 후 높은 가치 관광객 원 대비 비중(%) 으로 상대 관광객 원 가치측정)	합계 금액 대비 높은 가치 비중 × 25점	
		2) 조건부가치측정법				
	비이용가치 (15점)	1) 선택가치	정성		합계 금액 대비 낮은 가치 비중 × 15점	
		2) 존재가치				
		3) 유산가치				
매력성 (17점)	표적 편익 (12점)	1) 사실성	정성	4점 매우 높음 3점 높은 편 2점 낮은 편 1점 매우 낮음		총합
		2) 유희성				
		3) 경관성				
	일반적 편익 (5점)	1) 독특성	정성	5점 매우 높음 4점 높은 편 3점 보통 2점 낮은 편 1점 매우 낮음	총합/6	
		2) 활동성				
		3) 상품화 가능성				
		4) 유희성				
		5) 교육성				
		6) 고유성				

가치는 총 40점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평가지표이다. 가치 평가지표의 이용가치 속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행비용법(TCM)과 조건부 가치 측정법(CVM)이다. 지불의사금액(WTP)으로 산출하며 설문조사를 통해 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한다. TCM과 CVM으로 측정한 총 금액을 합한 가치를 비교대상 관광자원 대비 비중으로 산출한 후 25점을 곱한 점수로 산출한다.

비이용가치 속성을 측정하는 방법 또한,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를 지불의사금액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한다. 선택가치와 존재가치, 유산가치의 총 금액을 합한 가치를 비교대상 관광자원 대비 낮은 비중으로 산출한 후 15점을 곱한 점수로 산출한다. 비이용가치는 이용하지 않을수록 높은 가치를 보여주기에 비이용가치가 높은 관광자원은 개발하지 말아야 하는 관광자원인 것이다.

매력성은 17점으로 표적편의 12점, 일반적 편의 5점으로 평가한다. 관광객 설문조사를 통한 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하며, 표적 편의는 각 항목당 4점 만점, 일반적 편의는 5점 만점으로 측정한다. 표적편의는 총합을 적용하고, 일반적 편의는 총합을 6으로 나눈 점수를 적용한다.

2) 수요중심적 접근(25점)

수요중심적 접근차원의 평가 점수는 25점으로 자원중심적 접근차원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미지는 설문조사를 활용한 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하며, 관광안전은 정량방법과 정성방법을 병행한다. 관광안전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비교대상 관광자원이 속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며, 같은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관광자원을 비교평가를 할 경우에는 같은 점수를 부여한다.

이미지는 20점으로 관광객 설문조사를 통한 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하며, 기후, 자연환경, 역사문화 환경, 즐길거리, 교통 혼잡도, 주민 환대성, 이국적 분위기, 자원개발 만족도 등 8개 항목에 대해 각 5점 만점으로 측정한다. 점수는 총합을 2로 나눈 20점 만점을 적용한다.

관광안전은 5점으로 관리절차 구축 3점과 위협요인 2점으로 측정한다. 관리절차 구축은 3점으로 재난 예방활동, 재난억제 제도, 안전대응 매뉴얼, 안전관련 홍보, 구조시스템 구축, 사후평가체계 구축 등 6개 항목에 대해 정량적 방법으로 구축되어 있으면 0.5점, 안되면 0점으로 측정하며 6개 항목의 총합으로 산출한다.

위협요인은 범죄율과 유행병 발생율, 교통사고 발생율은 정량적 방법으로 측정하며 범죄율은 0.5점으로 10만명 당 5대 강력범죄 발생비율을 각 범죄율마다 $0.1 - (\text{비율} \times 0.1)$ 로 산출

하여 총합을 적용한다.

유행병 발생율은 0.5점으로 1년간 발생한 지역의 유행병 환자 수를 인구로 나눈 비율로서 0.5-(비율 × 0.5)로 산출하여 총합을 적용한다.

교통사고 발생율은 0.5점으로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율을 0.5-(비율 × 0.5)로 산출하여 총합을 적용한다.

정치위험도(0.5점)은 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하며, 박범중(2016)과 임춘호(2010), 이선희(2015) 등의 연구를 토대로 정치안정도(정치제도, 리더십, 정치적 파업 발생 수, 불규칙 정권변화 발생횟수, 부채정도)와 사회안정도(양극화 정도, 인구증가율, 인터넷 활용율, 생활의 질, 실업율), 경제수준(GDP증가율, 인플레이션율, 1인당 에너지 소비량, 무역수지, 가계부채비율)을 적용하였다(박범중, 2016; 이선희, 2015; 임춘호, 2010).

총 15개 항목으로서 총 합계 75점을 150으로 나눈 점수를 적용한다.

〈표 4-19〉 수요중심적 접근의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 적용

평가 지표	하위속성	세부항목	평가 유형	측정방법	점수산출
이미지 (20점)	이미지 (20점)	1) 기후	정성	5점 매우 좋음 4점 좋은 편 3점 보통 2점 나쁜 편 1점 매우 나쁨	총합/2
		2) 자연환경			
		3) 역사문화 환경			
		4) 즐길거리(축제)			
		5) 교통 혼잡도			
		6) 주민 환대성			
		7) 이국적 분위기			
		8) 자원개발 만족			
관광 안전 (5점)	관리절차 구축 (3점)	1) 재난 예방활동 여부	정량	있다 0.5점 없다 0점	총합
		2) 재난억제 제도 여부			
		3) 안전대응 매뉴얼 여부			
		4) 안전관련 홍보 여부			
		5) 구조시스템 구축 여부			
		6) 사후평가체계 구축 여부			
	위협요인 (2점)	1) 정치 위험도(0.5점)	정성	정치안정+사회안정도+경제수준	15개 항목 총합/150
		2) 범죄율(0.5점)	정량	10만명당 5대 범죄 발생비율	0.1-(평균비율×0.1)합계
		3) 유행병 발생율(0.5점)		1년간 발생한 유행병 환자수를 인구로 나눈 비율	0.5-(비율×0.5)
		4) 교통사고 발생율(0.5점)		교통사고 발생율	0.5-(비율×0.5)

3) 관리중심적 접근(12점)

관리중심적 접근차원의 평가 점수는 12점으로 인적자원 7점, 수용력 5점으로 측정한다. 행정역량과 인력규모, 생태적 수용력은 정략적 방법으로 측정하며, 인력규모와 사회심리적 수용력은 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한다.

인적자원과 수용력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비교대상 관광자원이 속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며, 같은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관광자원을 비교평가를 할 경우에는 같은 점수를 부여한다.

행정역량은 6점으로 관광예산 비중과 관광조직 규모 비중은 평균 비중을 산출하여 1.1점을 곱한 점수를 적용한다. 평균 비중은 관광자원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과 조직 규모를 비교하여 높은 기초자치단체 대비 비중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관광발전계획, 관광개발 면세혜택, 투자유치 지원, 관광홍보 지원, 관광행정 전문가, 외부 전문가 참여,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과 조례 등의 유무로서 구축되어 있는 경우는 0.7점을 적용하여 총 합계점수를 적용한다.

인력규모는 1점으로 관광산업 인력 규모, 관광교육프로그램 운영 횟수, 안내사와 해설사 수, 쇼핑 종사자, 숙박 종사자, 음식 종사자, 안내사와 해설사의 수를 관광자원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수와 비교하여 높은 기초자치단체 대비 비중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6개 각 항목별로 비중 \times 0.1점을 적용하여 총 0.6점을 만점으로 한다.

안내사와 해설사 서비스, 쇼핑 종사자 서비스, 숙박종사자 서비스, 음식 종사자 서비스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이용한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며 5점 만점으로 측정한다. 총 합계 점수는 50점으로 나눈 점수를 적용한다.

사회심리적 수용력은 4점으로 환경이용 수준, 환경의 질 인식, 환경 악영향 인식, 혼잡 인내수준, 경관관리 질적 평가, 자원이용 태도 수준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용한 정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각 5점 만점으로 총 합계를 7.5점으로 나눈 점수를 적용한다.

생태적 수용력은 1점으로 동식물 비율과 수질 토양 침식비율, 정화시설 대비 폐기물 처리 비중, 생태계 녹지 비율에 대해 관광자원이 속한 기초자치단체를 서로 비교하여 높은 기초자치단체 대비 비중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4개 각 항목별로 비중 \times 0.25점을 산출하여 합계 점수를 적용한다.

〈표 4-20〉 관리중심적 접근의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 적용

평가 지표	하위속성	세부항목	평가 유형	측정방법	점수산출
인적 자원 (7점)	행정역량 (6점)	1) 관광예산 비중	정량	비중 평균 있다 0.7점 없다 0점	평균 비중 × 1.1점 합계
		2) 관광조직 규모 비중			
		3) 관광발전계획 유무			
		4) 관광개발 면세 혜택유무			
		5) 투자유치 지원 유무			
		6) 관광홍보 지원 유무			
		7) 관광행정 전문가 유무			
		8) 외부전문가 참여 여부			
		9) 정책 주민참여 여부			
	인력규모 (1점)	1) 관광산업 인력규모	정량	비교대상 관광목적지의 수를 측정한 후 가장 높은 관광자원 대비 비중(%)으로 상대 관광목적지 수 측정	합계 수 대비 비중 × 0.1점
		2) 교육프로그램 운영 횟수			
		3) 통역안내사/해설사 수			
		4) 쇼핑 종사자 수			
		5) 숙박 종사자 수			
정성	6) 음식 종사자 수	정성	5점 매우 만족 4점 만족한 편 3점 보통 2점 불만족한 편 1점 매우 불만족	합계/50	
	7) 안내사/해설사 서비스				
	8) 쇼핑 종사자 서비스				
	9) 숙박 종사자 서비스				
	10) 음식 종사자 서비스				
수용력 (5점)	사회 심리적 수용력 (4점)	1) 환경 이용 수준	정성	5점 매우 높음 4점 높은 편 3점 보통 2점 낮은 편 1점 매우 낮음	합계/ 7.5점
		2) 환경의 질 인식			
		3) 환경 악영향 인식			
		4) 혼잡 인내 수준			
		5) 경관관리 질적 평가			
		6) 자원이용 태도 수준			
	생태적 수용력 (1점)	1) 동식물 비율	정량	비중×0.25점	합계
		2) 수질 토양 침식 비율			
		3) 정화시설 대비 폐기물 처리비중			
		4) 생태계 녹지비율			

4) 공간중심적 접근(6점)

공간중심적 접근차원의 평가 점수는 6점으로 공간적 격리 5점, 초과효용 1점으로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한다. 공간적 격리에서 관광목적지까지의 거리와 시간은 관광자원이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관광목적지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

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도착하는 거리와 소요시간을 측정한다. 관광자원까지의 거리와 시간은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교통시설에서 관광자원까지의 거리와 소요시간을 측정한다. 거리는 최단거리와 최장거리의 평균거리로 측정하며 관광목적지와 관광자원까지의 거리의 평균 비중에 2.5점을 곱한 점수를 부여한다. 소요시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철도, 항공, 버스, 렌터카, 택시, 자가용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적용한 평균 시간에 대한 비중으로 측정하며 평균비중에 2.5점을 곱한 점수를 부여한다.

초과효용은 1점으로 관광목적지와 관광자원까지의 교통비용은 관광자원이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관광목적지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도착할 때 소요되는 교통비용으로 산출한다. 교통비용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철도, 항공, 버스, 렌터카, 택시, 자가용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적용한 교통비용에 대한 비중으로 측정하며 평균 비중에 0.25점을 곱한 점수를 적용한다. 관광자원까지의 교통비용은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교통시설에서 관광자원까지의 교통비용으로 측정하며 평균 비중에 0.25점을 곱한 점수를 적용한다.

숙박시설과 식음료 시설 이용 비용은 관광자원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숙박시설과 식음료 시설에 대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의 1인당 평균 비용을 적용하며 평균비중에 0.25점을 곱한 점수를 적용한다.

〈표 4-21〉 공간중심적 접근의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 적용

평가 지표	하위속성	세부항목	평가 유형	측정방법	점수산출
접근성 (6점)	공간적 거리 (5점)	관광목적지까지의 거리	정량	거리 평균 비중	평균 비중 × 2.5점
		관광자원까지의 거리			
		관광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		시간 평균 비중	
		관광자원까지의 소요시간			
	초과효용 (1점)	관광목적지까지 교통비용	정량	열차, 항공, 버스, 택시, 렌터카 평균 비용 대비 비중	비중 × 0.25점
		관광자원까지 교통비용			
		숙박시설 이용 비용	정성	관광목적지 1인당 평균 이용 비용 대비 비중	비중 × 0.25점
		식음료시설 이용 비용			

2. 평가진단 체계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 체계는 총 3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는 관광자원이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자료를 통해 정량 자료를 서면으로 측정하며, 2단계에서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한다. 3단계에서는 1단계와 2단계 자료를 취합하여 전문가 의견을 통해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을 평가하고 개발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는 기초자치단체의 정확한 정책방향 및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평가진단 단계별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전문 평가단을 활용해야 한다.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 방향은 자원중심적 차원과 수요중심적 차원, 관리중심적 차원, 공간중심적 차원을 고려한 평가방향을 제안하였다.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차원이 아닌 자원의 가치와 매력성을 기반으로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 지속적인 관리와 관광자원 주변의 공간에 고려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관광자원이 유인력과 매력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기본 이론에 충실한 자원중심적 개발잠재력 평가가 높은 중요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자원의 가치와 매력성을 고려한 개발을 통해 향후 난개발이나 중복개발을 막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4-22〉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 진단체계

단계	지표유형	하위속성	비고
1단계	정량진단	관리절차 구축, 위협요인, 행정역량, 인력규모, 생태적 수용력, 공간적 격리, 초과효용	기초자치단체 내 관련 자료
2단계	정성진단	가치, 매력성, 이미지, 사회심리적 수용력, 초과효용	관광객과 지역주민 설문조사
3단계	종합	1단계와 2단계에서 산출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관광자원 개발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판단	종합 판단

제 5 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지방자치체가 정착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지역의 역사성, 다양성, 문화성 및 개성 등을 활용한 지역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광자원화하면서 지역발전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호성, 2019). 관광자원 잠재력 측정은 관광자원이 지닌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고, 해당 자원의 성격과 가치를 분석하여, 관광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자원이나 생태자원 등으로 한정하여 연구되고 있어서 전체 관광자원에 대한 실재적인 잠재력 및 지표연구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공자원, 2011). 또한 관광개발을 하는데 있어 기존자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관광자원들은 많지만, 이것들에 대한 잠재적 가치에 대한 개발이나 효용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봉구·이익수, 2016). 특히,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함에 있어서 지역적인 독특성을 갖추지 못한 비슷한 형태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함에 따라 관광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관광자원 개발은 국가 관광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들을 도출하고 우선순위에 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관광자원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가하면서 관광자원 개발경쟁이 심화되면서 관광자원에 대한 훼손과 중복개발 우려가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평가 지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관광자원을 개발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표는 무엇인지? 중요한 지표들이 어떠한 수준에서 요구되고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상위차원과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세부항목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관광자원 개발과 전략수립의 기초자료 제공과 함께 향후 확장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관광자원과 개발잠재력에 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관광자원 개발잠재

력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광자원 개발정책 의사결정 연구와 기업의 관광산업 투자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개발 전문가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여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델파이 조사는 반복되는 조사와 피드백을 통해 평가요인을 유형화하는데 유용한 기법으로서 켈달 W 검증을 이용한 일치도 검증과 평균 중요도를 활용한 정제화 과정을 통해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도출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을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을 이용하여 속성별 가중치를 살펴봄으로써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AHP는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복잡한 상황의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전문가 집단을 이용한 AHP분석을 이용하여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상위차원과 평가지표, 하위속성과 세부항목간의 위계를 정립하고 평가지표와 하위속성간의 상대적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로 도출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의 가중치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관광개발 전략 수립의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델파이 기법과 AHP 방법을 이용하여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을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하였다.

첫째, 관광자원과 개발잠재력에 대한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해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상위차원과 평가지표를 도출함으로써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에 대한 학문적 토대를 구축한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상위차원과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으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의 하위속성과 세부항목을 1차 조사한다. 1차 델파이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항목을 정제화한 후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을 유형화하고 전문가 집단들에게 피드백함으로써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 세부항목을 도출한다.

셋째,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 세부항목을 유형화한 폐쇄형 2차 설문을 작성한 후 델파이 2차 조사를 실시한다. 2차 조사결과는 일

치도 검증과 정제화를 한 후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지표와 하위속성, 세부항목을 정리한다.

넷째, 정리한 평가지표와 하위속성,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폐쇄형 3차 델파이 설문을 작성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3차 조사결과도 일치도 검증과 정제화 과정,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정리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 세부항목을 최종 확정한다.

다섯째,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확정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에 대해 AHP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에 대한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여섯째, 델파이 조사와 AHP를 통해 도출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에 대한 가중치를 통해 관광자원 개발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목적과 연구과정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상위차원과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관광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을 활용하여 관광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분석(AHP)을 통해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상위차원과 평가지표, 하위속성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상의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상위차원과 평가지표 도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에 대한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에 대한 4개의 상위차원과 8개의 평가지표를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상위차원은 Burkart & Medlike(1987)와 Ritchie & Crouch(2003)의 연구를 토대로 한호성(2019), 이상민(2014), 공자원(2011)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공간중심적 접근차원과 자원중심적 접근차원, 수요중심적 접근차원, 관리중심적 접근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공간중심적 접근에 대해서 공자원(2011)은 접근성, 주변경관 및 연계관광자원, 관광지원·편의시설을 중요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한호성(2019)은 공간잠재력 속성을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 관광 인프라를 포함한 것을 공간적 속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관광자원의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관광자원의 공간배치에 따른 개발 잠재력의 차이를 중시하며, 공간중심적 접근방법의 평가지표에는 접근성과 연계자원을 포함하였다.

자원중심적 접근에 대해 한호성(2019)은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해당 자원의 자체 특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하였으며, Swarbrooke(1995)는 인적 자원보다 관광자원이 갖고 있는 매력물을 중심으로 자원의 성격과 특징, 적용대상과 범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관광자원이 인적·물적 자원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관광자원의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관광자원의 이용가치와 비이용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여 개발과 보전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평가요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중심적 접근에 대해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해당 자원의 자체 특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평가지표는 가치와 매력성으로 구분하였다.

수요중심적 접근 방법에 대해 공자원(2011)은 관광자원의 잠재력 평가에 있어서 시장과 관광자의 요구를 우선하는 입장으로, 자원성이 풍부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공급중심형 개발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원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수요중심의 다원화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수요자인 관광객들은 점차 자연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교통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 상승과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학습 욕구 상승 등으로 변화하는 수요 중심의 방향으로 개발 잠재력 평가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요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수요중심의 접근 방법으로 정의하고 평가지표는 관광자원이 위치한 지역의 이미지와 관광안전성을 포함하였다.

관리중심적 접근방법에 대해 김철원(2000)은 관광산업에서 인적 의존도가 큰 이유는 인적 자원의 가치성과 희소성, 모방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며, 관광잠재력의 인적자원을 크게 기반인력, 종사원, 관광고용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관리 중심적 접근은 주로 인적자원관리 연구에서 세부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이 필요한 인력을 수급·개발·유지하여 이를 활용하고, 조직구성원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기법인 인적자원을 포함한다. 또한, 관리중심적 접근은 관광수용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관광수용력은 관광자원의 원상 회복력과 평균적 이용률에 기초하고 관광자원의 이용 및 남용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며, 관광자원의 고갈 없이 관광객 만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양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리 중심적 접근방법의 평가지표를 인적자원과 수용력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토대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의 상위차원을 공간중심적 접근차원과 자원중심적 접근차원, 수요중심적 접근차원, 관리중심적 접근차원 등 4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공간중심적 접근차원의 평가지표에는 접근성과 연계자원을 포함하였고, 자원중심적 접근차원의 평가지표는 가치와 매력성, 수요중심적 접근차원의 평가지표는 이미지와 관광안전, 관리중심적 접근차원의 평가지표는 인적자원과 수용력을 포함하였다.

2.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 도출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상위차원에 대한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을 도출하기 위해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거나 일정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합의를 얻어 내는 방법인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위해 학계,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30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였으며,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의 4가지 상위차원과 8가지 평가지표를 설명하고 개방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1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30명의 전문가가 응답하였으며, 총 962개의 세부항목이 제시되었다. 수집된 자료 가운데 중복되거나 유사한 항목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게 다시 피드백 한 후 114개의 세부항목으로 정제화하였다.

114개 세부항목에 대한 하위속성을 평가지표별로 정리하여 전문가 집단에게 피드백을 한 후 의견을 수렴한 결과, 8개의 평가지표에 대한 하위속성은 22개로 확정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에 대해 4개의 차원과 8개의 평가지표를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하였고, 22개의 하위속성과 114개 세부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1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전문가 집단들에게 피드백 자료로 제공한 후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한 폐쇄형 설문으로 작성한 후, 1차 조사에 참여한 30명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30명의 전문가 집단 중 28명의 전문가 집단이 응답하였으며, 평가지표와 하위속성, 세부항목 정제를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 일치도를 검증하는 켄달 W검증과 중요도 평균값 4점 이하의 세부항목은 제외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정제과정과 전문가 회의를 거쳐 총 8개의 평가지표와 17개의 하위속성, 80개의 세부항목이 확정되었다.

2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전문가 집단들에게 피드백 자료로 제공한 후 7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폐쇄형 설문을 작성한 후, 2차 조사에 참여한 28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3차 델파이 조

사를 실시하였다. 3차 델파이 조사결과 28명의 전문가 중 24명이 응답하였으며 평가지표와 하위속성 정제를 위하여 켈달 W 검증을 실시하고, 세부항목 가운데 중요도 평균값 4.0점 이하의 세부항목은 제외하였다.

이상의 정제과정과 전문가 집단의 피드백을 통해 확정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는 7개, 하위속성은 13개 요인, 총 69개 세부항목이 도출되었다.

최종적으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의 4개 상위차원은 '공간중심적 접근'과 '자원중심적 접근', '수요중심적 접근', '관리중심적 접근'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이론적 고찰과 델파이 조사를 통해 7개의 평가지표가 확정되었으며, '공간중심적 접근' 차원의 평가지표는 '접근성', '자원중심적 접근' 차원의 평가지표는 '가치'와 '매력성', '수요중심적 접근' 차원의 평가지표는 '이미지'와 '관광안전', '관리중심적 접근' 차원의 평가지표는 '인적자원'과 '수용력'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3차에 걸쳐 실시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13개 하위속성과 69개 세부항목이 도출되었다.

3.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 상대적 가중치와 우선순위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상위차원 중에는 '자원중심적 접근' 차원의 가중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가장 중요한 평가 차원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을 평가할 때 관리적 측면이나 수요자 측면, 공간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관광자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자원중심적 접근 차원의 상위개념인 '가치'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자원의 가치가 높은 관광자원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수요중심적 접근에서는 지역의 '이미지'에 대한 평가지표가 중요하며, 관리중심적 접근에서는 '행정역량' 평가지표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지표의 하위속성별로는 '이용가치'속성과 '비이용가치'속성의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미지' 속성과 매력성의 '표적편익'도 중요한 속성으로 분석되었다.

제2절 연구결과 논의와 시사점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을 평가할 때 필요한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을 도출하고자 선행연구와 델파이 조사를 통해 4개의 차원과 7개의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13개의 하위속성을 도출하였다.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원중심적 접근과 수요중심, 관리중심, 공간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며, 자원중심적 접근은 가치와 매력성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수요중심적 접근은 이미지와 관광안전성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관리중심적 접근은 인적자원과 수용력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공간중심적 접근은 접근성 평가지표가 중요하다.

AHP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을 평가할 때는 수요와 관리측면, 공간측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원중심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특히 자원의 가치에 높은 중요도가 있다는 점에서 자원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치 평가지표의 하위속성인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 속성 모두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관광자원의 이용가치의 측정은 향후 관광자원 개발에 투입되는 투자가치와도 연관이 되며, 이용가치가 높은 관광자원일수록 투자가치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이용가치도 이용가치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간의 상관성도 매우 중요하다. 비이용가치가 높은 관광자원은 개발 우선순위에서 낮게 평가되어야 하며, 이용가치가 높은 관광자원을 우선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이전에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비이용가치 측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비이용가치 측정을 통해 선택가치와 보존가치, 유산가치가 높은 관광자원은 우선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보존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수요중심적 접근차원의 이미지 요인도 중요하게 나타남에 따라 관광개발 이전에도 관광목적지의 이미지와 관광자원에 대한 이미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을 높이는 평가지표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원의 성격과 매력성을 파악하여 표적편익을 높이고 홍보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와 관광자원의 긍정적 이미지 상승을 꾀할 필요가 있다.

관리중심적 접근차원에서는 '행정역량'이 중요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지방화 시대에서의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행정의 역량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에서 관광에 대한 관심과 관광개발 정책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때 관광자원에 대한 개발잠재력이 상승된다고 할 수 있다. 개발 이후의 지원보다는 현재 갖고 있는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관광자원의 가치와 이미지를 높이는 행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광자원 개발 후의 행정역할이 아니라 관광자원 개발 이전의 행정역량이 우선 작용된다는 점에서 관광자원 개발 이전부터 행정조직과 제도를 구축하는 행정역량을 높여야 한다.

그 외에 공간중심적 차원의 접근성에 대한 개선노력도 필요하다. 관광목적지와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은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개발잠재력을 조사하고 그 관광자원의 가치에 주목하며,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행정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때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은 상승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은 그 관광자원이 갖고 있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개발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 이미지 홍보와 더불어 표적편익을 통한 상품화, 행정역량을 통한 지원 정책이 마련됨으로써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론적인 시사점으로는 첫째, 앞의 선행연구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의 상위차원과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하위속성과 세부항목을 제시함으로써 관광자원 개발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평가지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요인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기존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연구는 도시관광이나 문화자원에 한정되어 연구되면서 종합적인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연구는 선행되지 못했다. 도시관광과 인문자원 중심의 관광개발 잠재력 평가 연구에서는 수요중심적 접근과 관리중심적 접근에 필요한 세부항목이 많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관광

자원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가 우선순위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는 향후 관광자원 유형별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분화된 후속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관광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관광자원 개발정책에 관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의 상위차원과 평가지표, 하위속성을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지역의 고유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개발전략 수립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관광자원 개발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할 때마다 지역주민과 기초자치단체간의 경쟁으로 인해 효율적인 관광자원 개발정책 수립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평가지표 제시는 관광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텔파이 패널을 전국의 관광전문가들이 고루 분포되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패널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관광자원과 잠재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상위차원과 평가지표를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셋째, 세분화된 관광자원 유형에 따른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지표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인지를 검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의 과정에서 제외된 평가지표와 하위속성, 세부항목들이 적절하였는지를 재차 살펴보고, 해당 평가지표와 하위속성을 대신할 수 있는 적절한 속성을 새로이 추가한 연구를 통해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지표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공자원(2011).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 잠재력 개발 평가지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서희(2020). '곧'이 아닌 '지금 당장!' 지원 외친 WTTC. 『여행신문』. 2020년 3월 23일. Retrieved from <http://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573>.
- 교통개발연구원(1990). 『관광진흥 중장기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 교통개발연구원.
- 권종현·정익준(2007). 기독교 성지순례 참가동기, 성지매력속성, 성지순례 만족 및 행동의도의 관계연구. 『관광·레저연구』, 19(4): 363-381.
- 권태일(2008).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의 영향요인 우선순위 도출에 관한 연구: 델파이 기법(Delphi)과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적용.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광식(1987). 접근성의 개념과 측정치. 『대한교통학회지』, 5(1): 33-46.
- 김귀곤·김훈희(1997). 도시지속성 지표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2(3): 175-196.
- 김낙수(2014). 도시 안전디자인 환경설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CPTED 적용방안 디자인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대관(200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표연구』. 서울: 한국관광연구원.
- 김병국·김필두(2006). 『지방자치단체 정책품질관리제도 도입 및 정착방안』.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사현(1997). 『관광경제학신문』. 서울: 일신사.
- 김선희(1999). 환경용량평가의 동향과 과제(하). 『국토: planning and policy』, 216: 102-105.
- _____ (2005). 관광지의 적정수용력 산정과 관리방안 연구: 광릉지역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0(3): 321-334.
- 김성수(2006).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승우(2000). 『환경경제학』. 서울: 박영사.
- 김영득(2007). 델파이와 계층적 분석기법을 이용한 노인체육정책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준·최승묵(2004). 『관광자원 개발사업 활성화방안: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용상·정성중·이봉석·심인보·김천중·이주형·이미혜·김창수(2004). 『관광학』. 서울: 백산출판사.
- 김정준(2009). 관광지 유형에 따른 관광동기, 관여도와 관광매력성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종은(1988). 『관광지리학』. 서울: 집문당.
- _____ (1998). 『현대관광론』. 서울: 삼광출판사.
- 김주년(2004).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지표(STDI)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 철(2016). 상황 요인에 따른 전략적 관리회계의 사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철원(2000). 『관광산업 경쟁력 평가모델 개발』. 서울: 한국관광연구원.
- 김충기·이준혁(2000). 고도 경주의 관광이미지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4(1): 41-56.
- 김태진(2010).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가 수용에 미치는 영향: 제주지역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환(2004).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 서울: 국토연구원.
- 김태훈(2019). 지역관광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정책요인, 지역관광환경요인, 지역거버넌스 요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학용(2002). 조건부시장가치평가법을 이용한 문화유산자원의 경제적 편익추정.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향자·김현주(2003). 『관광개발계획 지표 개발방안』.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향자·최자은(2017). 『지역관광자원 개발방향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현수(2013).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나종민(2010). 녹색성장시대의 관광개발 지표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극식(1997). 『세계자원무역론』. 서울: 명경사.
- 노정현·류재영(1994). 종합지역접근성 측정모형의 개발. 『지역연구』, 10(2): 61-71.
- 박범종(2016). 정치위험도 측정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9(2): 45-67.
- 박석희(1990). 자연경관 매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논문집』, 11(8): 481-495.
- _____ (1997). 『신관광자원론』. 서울: 일신사.
- _____ (2000). 생태관광의 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관광산업학회지』, 14(1): 67-89.

- 박석희·김상원(2000). 제주도 방문 관광객의 방문 전후 이미지 차이분석. 『경기관광연구』, 9(4): 125-146.
- 박의서(2006). 『관광이미지와 관광지 포지셔닝』. 고양: 한국학술정보.
- 박종찬·김성동(2006). 『관광자원론』. 서울: 갈채.
- 박현정(2000). 수도권관광자원 가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관광정책학연구』, 6(2): 1-23.
- 박홍철(2013) 국내 중소도시의 고용경쟁력에 관한 연구: 평가지표 설정 및 격차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선희(2007). 『북촌지역에 적합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성태제(1995). 『타당도와 신뢰도』. 서울: 양서원.
- 신무섭(2009).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예산 증대노력과 그 결과: 전북을 중심으로 한 예비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3(2): 1-21.
- 신의순(1992). 『자원경제학』. 서울: 전영사.
- 신종일(2017). 관동팔경의 관광행동에 관한 지불의사와 경제적 가치 추정.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원섭(2007). WEF의 국가관광경쟁력 평가와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관광정책』, 27: 20-32.
- 안진성(2011). 텔파이기법과 계층적 의사결정방법 적용을 통한 전통정원의 보존상태 평가지표 개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광호(2009). 『관광자원개발』. 한국관광공사(편), 55인의 관광학 전문인이 집필한 관광학총론. 서울: 백산출판사.
- 양덕순·강영순(2008).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분석: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75-93.
- 엄서호(1994). 관광단지평가틀 작성연구. 『여가생활연구』, 5: 38-62.
- _____(1998). 관광지 이미지 측정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1(2): 53-65.
- 엄수원(1998). 지역관광잠재력 및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토지연구』, 9(2): 166-201.
- 염명하(2009). 관광안전관리체계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규식·정연우·이동근·이왕기(2002).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 도시 수용력 평가 체계 수립. 『국토계획』, 37(5): 7-26.

- 오문향(2013). 델파이 기법과 AHP를 활용한 국가 간 관광산업 경쟁력 평가지표 개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미자(2018). 섬 관광목적지의 질적성장 평가지표 개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상훈·고계성(2000). 제주관광의 환경적응력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연구논집』, 11: 141-156.
- 유영심(2008). 관광가이드의 역할에 대한 만족과 관광지 매력성 지각간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설민·박진아·이충기(2012). 문화관광자원으로서 고궁의 매력속성과 만족도 및 충성도 간 영향 관계 분석: 경복궁 방문객을 대상으로. 『서울도시연구』, 13(1): 149-166.
- 이광우(2003). 자연자원내 관광개발의 편익가치추정에 관한 연구: 조건부가치추정법에 의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규홍(2017). 경영환경, 조직문화 및 경영전략이 관리통제시스템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봉석·심인보·이미혜·김창수·송재호(2001). 『관광자원론』. 서울: 대왕사
- 이상민(2014). 지역관광 잠재력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선(2014). 먹는샘물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춘(1999). 『관광자원론』. 서울: 백산출판사.
- 이선혜(2015). 정치적 위험이 FDI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웅(1987). 델파이기술 예측방법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주·최승담(2004). 도시관광개발의 특성과 향후 연구방향. 『국토연구』, 43: 53-68.
- 이윤식·김지희(2004). 참여정부의 정부 업무평가체계 구축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7(3): 189-216.
- 이윤원·권순석·이충섭(2010). 기업특성이 전략적 원가관리기법의 사용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15(3): 251-273.
- 이자영(2019). 마이스 키우면 지역 바뀐다, 부산 게임산업 키운 건 8할이 '지스타'. 『부산일보사』. 2019년 9월 24일, Retrieved from [http://www.busan.com /view/busan/view.php?code=2019092419203699996](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92419203699996).
- 이장주(1998). 지역축제의 이미지 측정척도 개발과 상용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장춘(1997). 『최신 관광자원학』. 서울: 대왕사.
- 이종성(2001).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이종성(2010).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통계방법』. 서울: 박영사.
- 이진식(2015). 도시 관광경쟁력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환봉(2007).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태도 연구: 안산시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상택·야은숙(1997). 관광특구의 관광잠재력 분석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9(1): 203-221.
- 임춘호(2010). 국가위험과 우리나라 FDI에 관한 연구: 확률모형과 Monte Carlo를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화순·남윤섭(2019).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관광개발 관련 국내 연구동향분석: 연구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3): 1851-1866.
- 장성수(1998). 관광지 개발잠재력 평가요인과 투자결정경로에 관한 구조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병권(1995). 국제 관광정책 환경의 변화에 관한 델파이 연구. 『관광학연구』, 18(2): 97-116.
- 장우석(2013). 농어촌 폐교의 복합자원화를 위한 잠재력 평가모델 개발.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효천·박구원(2007). KLCI 모델을 이용한 지역경쟁력과 관광산업의 상관관계 분석. 『동북아관광연구』, 3(1): 19-30.
- 전진아(2018). 한국와이너리의 관광자원 개발 연구: 델파이 기법과 계층적 의사결정방법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남식(2018).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에 있어서 협력적 계획모형 적용연구: 공유재적 특성을 가진 남해 다랭이 논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석중·이미혜(2002). 『관광개발론』. 서울: 대왕사.
- 정승훈(2019). 도시재생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부신뢰, 영향인식, 지지의 관계분석. 『관광경영연구』, 23(3): 223-245.
- 정연우(2004). 수용력 개념에 기초한 도시의 개발가능밀도 평가: 환경 및 시설수용력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연정·공기서(2007). 『문화재 가치추정에 관한 방법론 검토: 청주 상당산성을 중심으로』. 청주: 충북개발연구원.

- 정일호·강동진(2002). 『교통기술혁신이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건설의 지역파급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안양: 국토연구원.
- 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준금·정광호(2014).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 정지심(2016).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이미지 측정척도 개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형기(2007). 중소도시 관광인프라 구축 연구.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근태·김성준·김대식·조영우·이종인(2003). AHP를 이용한 미래유망기술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 : 농촌개발 및 자원분야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9(3): 41-46.
- 조근태·조용곤·강현수(2003). 『(앞서가는 리더들의)계층분석의사결정』. 서울: 동현.
- 지봉구(1997). 국립공원의 사회심리적 수용력에 관한 사례 연구. 『호텔경영연구논총』, 5: 145-167.
- 지봉구·이익수(2006). 충북지역 관광잠재력 평가를 통한 관광개발의 방향에 관한 연구. 『관광정책학연구』, 12(3): 139-157.
- 최규환(2004). 『관광입문』. 서울: 백산출판사.
- 최나리·김재원(2009). 가상적 가치평가법을 이용한 비시장 관광자원의 가치 추정. 『관광연구저널』, 23(4): 19-36.
- 최승담·박경렬(2005). 관광목적지로서 도시관광이미지 측정척도 개발. 『서울도시연구』, 6(1): 93-106.
- 최승담·박기홍(1996). 『국민관광지표개발』.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용복·부창산·김민철(2012). 차귀도 바다목장의 관광자원화와 발전방안. 『수산해양교육연구』, 24(3): 378-386.
- 최창식(2004). 도시내 접근성 향상에 따른 도시경제효과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키노시타 에이조·오오야 타가오(2012). 『전략적 의사결정기법 AHP』. 서울: 청람.
- 표성수·장혜숙(1994). 『여행사경영론』. 서울: 형설출판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관광공급지표 개발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 한범수(1996). 관광자원의 비시장가치와 그 결정요인: TCM과 CVM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창희·임창규·김민관(2011). B2B 전자상거래 보증 중계 서비스의 성과관리를 위한 KPI 가중치 설계에 대한 연구. 『경영과학』, 28(1): 75-90.

- 한호성(2019). 도시관광 잠재력 평가지표 연구: 경기도 부천시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순규(2012). 지방자치단체 예산정치행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방재정을 둘러싼 돼지여물통 정치행태분석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정화(2016). 한국와인의 지리적표시제 개발에 관한 연구: 델파이기법을 적용하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광하(2013). 계층화 의사결정방법(AHP)을 이용한 안경원 창업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분석. 『대한시과학회지』. 15(2): 137-146.
- 황보작(2012). 인적자원관리유형 인식과 노사협력수준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도시철도운영기업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창윤·박명희(2013). 『신관광자원의 이해』. 서울: 대왕사.
- Richards, Greg(2000). 『문화관광론』. 조명환 역, 서울: 백산출판사.

국외문헌

- Anderson, Douglas R.(1997). *Strands of system : the philosophy of Charles Peirce*. West Lafayette Ind. : Purdue University Press.
- Anderson, Douglas R., Peirce, Charles S. and Peirce, Charles S.(1995). *Strands of system : the philosophy of Charles Peirce*. West Lafayette Ind. : Purdue University Press.
- Bauer, R. A.(1966). Social indicators and sample surveys. *Public Opinion Quarterly*. 30(3): 339-352.
- Burkart, A. J. and Medlik, S.(1981). *Tourism: past, present and future*. (Ed. 2). London: William Heinemann Ltd.
- Coffey, R. E., Athos, A. G. and Reynolds, P. A.(1975). *Behavior in organizations: A multidimensional view*. Prentice Hall.
- Crouch, G. I. and Ritchie, J. B.(1999). Tourism, competitiveness, and societal prosperity.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44(3): 137-152.
-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2007).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Guidelines and methodologies*. UN.

- Dinnie, K.(2010). *City Branding: Theory and Cases*. Springer.
- Dwyer, L. and Kim, C.(2003). Destination competitiveness: determinants and indicators. *Current issues in tourism*. 6(5): 369-414.
- Gold, S. M.(1980). *Recreation Planning and Design*. New York: McGraw-Hill.
- Gunn, C. A.(1972). *Vacation scape: Designing Tourist Regions*. Austin: Bureau of Business Research. University of Texas.
- Gunn, C. A.(1994). *Tourism planning basics, concepts, cases*. Washington DC : Taylor & Francis.
- Gunn, C. A.(1979). *Tourism Planning*. New York: Crane. Russak & Company Inc.
- Hansen, W. G.(1959). How accessibility shapes land use.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25(2): 73-76.
- Hanson, S.(1980). Spatial diversification and multipurpose travel: implications for choice theory. *Geographical Analysis*. 12(3): 245-257.
- Hawkins, D. E., Shafer, E. L. and Rovelstad, J. M.(1980). *Tourism Planning and Development Issues*. Washington: Gerorge Washington Univ.
- Holloway, J. C.(1994). *The Bussiness of Tourism*. London: Pitman Pub.
- Jafari, J.(1974). The components and nature of tourism: The tourism market basket of goods and servic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3): 73-89.
- Knudson, D.(1984). *Outdoor Recreation*. New York: Macmillan.
- Kotler, P.(1983). *Principles of Market*.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 Kotler, P., Bowen, J. and Makens, J.(1998). *Marketing for Hospitality and Tourism*. NJ: Prentice Hall.
- Kwan, M. P. and Weber, J.(2003). Individual accessibility revisited: implications for geographical analysis in the twenty first century. *Geographical analysis*. 35(4): 341-353.
- Lavery, P. and Van Doren, C.(1990). *Travel and tourism: a North American-European perspective*. NJ: ELM Pub.
- LeLoup, L. T. (1988). From microbudgeting to macrobudgeting: Evolution in theory and practice. *New directions in budget theory*, pp.19-42.
- Liu, Z. H.(1994). Tourism development - a systems analysis. *Tourism: The state of the art*: 20-30.

- Millet, I. and Saaty, T. L.(2000). On the relativity of relative measures - accommodating both rank preservation and rank reversals in the AHP.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121(1): 205-212.
- Muraco, W. A.(1972). Intra-Urban Accessibility. *Economic Geography*. 48(4): 388-405.
- Murphy, P. E.(1982). Tourism planning in London: an exercise in spatial and seasonal management. *The Tourist Review*. 37(1): 19-23.
- Ritchie, J. B. and Crouch, G. I.(1993). *Competitiveness in international tourism: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nalysis*. World Tourism Education and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Calgary.
- _____(2003). *The competitive destination: A sustainable tourism perspective*. Cabi.
- Rowe, G. and Wright, G.(2001). Expert opinions in forecasting: the role of the Delphi technique. *Principles of forecasting*. Springer. Boston. MA: 125-144..
- Ryan, C.(1991). *Recreational tourism: A social science perspective*. London: Routledge.
- Shaw, G. and Williams, A. M.(1994). *Critical issues in tourism: A geographical perspective*. Blackwell Publishers.
- Starling, G.(1988). *The changing environment of business: a managerial approach*. Pws Publishing Company.
- Swarbrooke, J.(1995),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Visitor Attractions*, Butterworth Heinemann, Oxford.
- Wild, C. (2007). Introduction and Use/Applications of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ourism Destinations. *UNWTO Conference on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World Economic Forum(2009).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09*.

<ABSTRACT>

A Study on Evaluation Indicator for Development Potential of Tourism Resources

Goo Kim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wa-Soon Lim

For developing tourism resources, it is important to commercialize various tourism resources and contents existing in the region. In addition, tourists demand more special experiences. The evaluation for potential of tourism resources is important in that it realizes the potential of tourism resources and maximizes efficiency through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the resources. Many local governments are developing various local tourism resources, but they do not take advantage of the unique tourism resources of the region and just follow famous tourism resources, which wastes resources and reduces the country's tourism competitiveness. Therefor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research related to development potential of tourism resources by attempting a systematic approach to development of tourism resources and presenting a new evaluation Indicator for development potential of tourism resources. To this end, in this study, the evaluation Indicator for development potential of tourism resources was derived and detailed items were identified, then evaluation priority and basic data for strategy establishment were provided

regarding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tourism resources.

Because of the lack of prior studies on development potential of tourism resources, this study derived the evaluation Indicator for development potential of tourism resources and sub-attributes using the Delphi technique utilizing the expert panel an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Based on this process, the high level of development potential of tourism resources and the evaluation Indicator were derived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the evaluation Indicator for development potential of tourism resources and the sub-attributes were extracted using Delphi technique for the expert panel consisting of tourism experts. Using the extracted evaluation Indicator for development potential of tourism resources and sub-attributes, high-level of development potential of tourism resources, evaluation Indicator and the relative weight towards the sub-attributes were calculated through AHP for tourism exper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e high-level of evaluation Indicator for development potential of tourism resources was classified into four dimensions, which were space-oriented approach, resource-oriented approach, demand-oriented approach, and management-oriented approach. The evaluation Indicator of the space-oriented approach dimension included accessibility and connected resources. The evaluation Indicator of the resource-oriented approach dimension included value and attractiveness. The evaluation Indicator of the demand-oriented approach included image and safety, and the evaluation Indicator of the management-oriented approach included human resources and capacity.

Second, through the Delphi technique, seven for evaluation Indicator for development potential of tourism resources, 13 factors for sub-attributes, and a total of 69 detailed items were derived.

Third, among the high-level of development potential of tourism resources, the weight of the resource-oriented approach dimension was the highest, and it was confirmed that it is the most important evaluation dimension. This means that

when evaluating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tourism resources, the tourism resources should be approached centrally although the management, demand, and the spatial aspects are important.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ourism resources first that has high value of resources since the relative weight of the 'Value,' which is the upper concept of the resource-oriented approach dimension, was highest. In addition, in the demand-oriented approach, the evaluation Indicator for local 'Image' is important, and in the management-oriented approach, the evaluation Indicator for 'Administrative Competence' is important.

Implications are as follows based on the above results.

As shown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when evaluating development potential of tourism resources, above all the evaluation with resource-oriented focus is important although aspects of demand, management, and space are important. In particular, efforts to prioritize the value of a resource are required because of the high importance of the value of the resource. Therefore, if development potential of tourism resources focuses on the value of those resources and evaluates development priorities, and commercialization through targeted benefits and support policies through administrative competence as well as promotes local image,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potential will be increased.

Despite these result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Because of the lack of prior studies on the evaluation Indicator for development potential of tourism resources, the study has the limitation of conducting research to derive high-level and evaluation Indicator based on prior research on tourism resources and potential. In addition, the study has limitation in that the research on evaluation Indicator and sub-attributes according to the subdivided types of tourism resources was insufficient. Therefore, it needs to be attempted to evaluate Korea's development potential of tourism resources based on the evaluation Indicator for development potential of tourism resources derived from this study,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verify if the evaluation Indicator derived from this study can reflect the reality of each local government.

<부록 1> 1차 델파이 설문지

제주지역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요인 결정에 관한 연구(1차 설문)
<p>본 설문은 제주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 설문으로서 관광자원 유형을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으로 구분하고 각 자원에 대한 개발잠재력 차원을 자체 매력요인, 매력증폭 요인, 지원요인, 관리 및 정책요인 등 4개의 차원을 도출하였습니다.</p> <p>이번 1차 조사를 통해 해당분야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4개 차원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각 차원별로 3개 이상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실 때에는 측정이 가능한 지표로서 자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양적 척도와 질적척도 내용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p> <p>응답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전문가님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3월</p> <p style="text-align: right;">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김 구 드림</p>

성 명		성 별	남성 여성
연령	년생	관련경력	년
소속(직장)		직 위	
최종학력(전공)	()	학위	
연락처		이메일	

공간중심적 접근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차원 중 공간 중심적 접근은 광자원의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관광자원의 공간배치에 따른 개발 잠재력의 차이를 중시한다. 공간중심적 접근방법에서 접근성과 연계자원으로 구분하였다.

접근성은 관광자원이 속한 지역으로의 접근성, 관광자원 주변으로의 접근성이며, 여기에서의 접근성은 거리와 시간, 비용 등 총효용을 평가한다.

연계자원은 관광자를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한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기본적인 시설로서 관광자원 주변의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의 관광관련 시설 뿐만아니라, 상하수도시설, 공항, 도로, 경찰, 소방서 등과 같은 사회지원시설도 포함되며, 이러한 시설의 수와 특성, 이동가능 정도 등도 평가요인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 항목	
접근성	1.
	2.
	3.
	4.
	5.
연계 자원	1.
	2.
	3.
	4.
	5.

자원중심적 접근방법

자원중심적 접근방법은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해당 자원의 자체 특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가치와 매력성으로 구분하였다.

가치는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로 구분되며, 이용가치는 입장료와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방법이며, 비이용가치는 보전가치로서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로 구분된다.

매력성은 관광자원의 어떤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 볼거리, 대상, 이벤트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이것의 가치가 사람을 즐겁게 끌어당기는 힘으로 독특성과 활동성으로 구분하였다. 독특성은 자원의 지역적 특성이나 자원의 특성을 포함하며, 활동성은 자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체험을 의미한다.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 항목	
가치	1.
	2.
	3.
	4.
	5.
매력성	1.
	2.
	3.
	4.
	5.

수요중심적 접근방법

수요중심적 접근 방법은 관광자원의 잠재력 평가에 있어서 시장과 관광자의 요구를 우선하는 입장으로, 자원성이 풍부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공급중심형 개발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원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수요중심의 다원화된 시각이 필요하다는 접근 방법이다. 이러한 수요 중심적 접근은 현재의 수요자와 시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미래의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자와 시장성도 포함하여 평가하고 자원중심적 접근과 공간적 접근도 연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수요중심적 접근방법은 관광자원이 위치한 지역의 이미지와 관광안전성을 포함한다.

이미지는 주관적인 의견이나 판단으로 대체된 객관적인 정보나 사실로서 객관적인 혹은 물리적인 대상의 속성에 대한 지각적 평가, 대상에 대한 지식 및 신념을 의미하는 인지적 이미지와 대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과 느낌인 정서적 이미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인지적 이미지는 자연환경과 분위기를 포함하였으며 정서적 이미지(감정)는 부정적 이미지와 긍정적 이미지로 구분하였다.

관광안전은 불안전이나 위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편안하고 온전하여 걱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관광안전관리체계는 관광안전 위협요인 준비와 관광안전 관리조직, 관광안전 관리절차, 관광안전 관리정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 항목	
이미지	1.
	2.
	3.
	4.
	5.
관광 안전	1.
	2.
	3.
	4.
	5.

관리중심적 접근방법

관리중심적 접근방법은 주로 인적자원관리 연구에서 세부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이 필요한 인력을 수급·개발·유지하여 이를 활용하고, 조직구성원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기법이다.

인적자원은 크게 인적자원관리(기반인력, 종사원, 관광고용)와 지자체 역량(계획, 비전, 예산), 행정역량(주민역량, 공무원 전문성, 외부전문가 참여), 정책역량(의제 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경영환경(지역투자환경, 법제도환경, 세금감면 환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수용력은 일정한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역이 지탱할 수 있는 인간활동의 범위로서, 인구밀도, 수용 가능한 관광객 수, 일정지역의 개발 속도와 규모 등을 설정하는 것이고, 한계용량(marginal capacity)은 자연환경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절대적인 조건 하에서 자연능력의 한계로서 지하수 공급 가능량, 자연자원의 최대 이용능력, 환경기준 등을 설정하는 것이다. 물리적 수용력(관광객 밀도, 시설 점유율, 대기시간 등), 생태적 수용력(동식물 비율, 수질, 폐기물 등), 사회심리적 수용력(혼잡도, 환경 악영향 인식, 환경의 질 인식 등)으로 구분하였다.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 항목	
인적 자원 관리	1.
	2.
	3.
	4.
	5.
수용력	1.
	2.
	3.
	4.
	5.

제주지역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요인 결정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박사과정에서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제주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구대상으로 개발 잠재력 평가 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처리에만 활용되며 순수 학문적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입니다. 문항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하나 하나 정확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조사에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3월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김 구

1. 응답자 특성

성 별	①남성 ②여성	연 령(만)	
소 속 (직장)		직 위	
최종학위		전 공	
경력(년)		e-mail	

■ 관광자원에 대한 잠재력 평가는 관광자원이 지닌 잠재력을 현재화시키고, 해당 자원의 가치와 성격을 분석하여, 관광자원의 효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관광개발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개발대상 지역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차이와 관광객의 요구에 관한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영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고려된 가운데에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대상지역의 물리적 특성 차이가 결국 관광개발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 절대적인 이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개발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요인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평가요인의 접근차원을 ‘공간중심적 접근’, ‘자원 중심적 접근’, ‘수요 중심적 접근’, ‘관리 중심적 접근’으로 분류하였다.

II. 공간중심적 접근

■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차원 중 공간 중심적 접근은 관광자원이 속해있는 지역의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관광자원의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른 개발 잠재력의 차이를 중시한다. 공간중심적 접근방법의 요인으로는 접근성 요인과 연계자원 요인을 도출하였다. 관광자원을 개발할 때 어느 정도 중요하게 판단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요인의 적합성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근성 요인

접근성은 관광자원이 속한 지역으로의 접근성, 관광자원 주변으로의 접근성이며, 여기에서의 접근성은 거리와 시간, 비용 등 총효용 등으로 평가한다.

구분	요인	항목	공간중심적 접근의 적합성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접근성	공간적 격리	관광목적지까지의 거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까지의 거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까지의 소요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활동 기회의 크기	관광목적지의 이동교통수단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까지의 이동교통수단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목적지의 인구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목적지의 경제활동 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초과 효용	관광목적지까지의 교통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까지의 교통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숙박시설의 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음료시설의 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쇼핑시설의 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관련시설의 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연계자원

관광자를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한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기본적인 시설로서 관광자원 주변의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의 관광관련 시설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시설, 공항, 도로, 경찰, 소방서 등과 같은 사회지원시설도 포함되며, 이러한 시설의 수와 특성, 이동가능 정도 등도 평가요인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구분	요인	항목	공간중심적 접근의 적합성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연계 자원	관광 관련 시설	숙박시설의 객실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숙박시설의 종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음료시설의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음료시설의 종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쇼핑시설의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쇼핑시설의 종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안내시설의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안내시설의 위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원 시설	상하수도 보급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쓰레기 처리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경찰 및 치안시설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소방 및 안전시설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병원 및 의료시설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교통기반시설 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II. 자원중심적 접근

■ 자원중심적 접근방법은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해당 자원의 자체 특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가치 요인과 매력성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요인으로서 관광자원을 개발할 때 어느 정도 중요하게 판단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요인의 적합성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치는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로 구분되며, 이용가치는 입장료와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방법이며, 비이용가치는 보전가치로서 현재는 이용하지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선택가치, 현재와 미래에 이용할 가능성은 없지만 있는 것 자체의 만족감이 있는 존재가치, 이용할 가능성이 없지만 후손들이 즐길 수 있도록 보존해야 하는 유산가치로 구분된다.

구분	요인	항목	자원중심적 접근의 적합성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가치	이용 가치	여행비용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건부 가치측정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비이용 가치	선택가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존재가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유산가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매력성**은 관광자원의 어떤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 볼거리, 대상, 즐길거리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자원의 가치가 사람을 즐겁게 끌어당기는 힘(유인력)으로서 필수서비스와 일반적 편익, 표적편익으로 구분하였다. **필수 서비스**는 어떤 여행에 참여하거나 영구적인 관광대상을 관리 운영할 경우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서비스이며, **일반적인 편익**은 관광여행상품의 구성요소 중 여타의 관광 상품과의 차별성을 지닌 관광대상을 관광자의 요구에 맞추어 결합시킨 속성이 포함된다. **표적 편익**은 표적화된 편익을 통해 원거리에 있는 관광자를 유인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진 매력속성이다.

구분	요인	항목	자원중심적 접근의 적합성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매력성	필수 서비스	관광자원의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의 안락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의 정보제공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의 내부 접근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일반적 편익	관광자원의 사실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의 유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의 경관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의 의례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표적편 익	관광자원의 독특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의 활동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의 상품화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의 유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의 교육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의 고유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V. 수요중심적 접근

■ 수요중심적 접근 방법은 관광자원의 잠재력 평가에 있어서 시장과 관광자의 요구를 우선하는 입장으로, 자원성이 풍부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공급중심형 개발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원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수요중심의 다원화된 시각이 필요하다는 접근 방법이다. 이러한 수요 중심적 접근은 현재의 수요자와 시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미래의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자와 시장성도 포함하여 평가하고 자원중심적 접근과 공간적 접근도 연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수요중심적 접근방법은 관광자원이 위치한 지역의 **이미지 요인과 관광안전성 요인**을 포함하였다.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요인으로서 관광자원을 개발할 때 어느 정도 중요하게 판단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요인의 적합성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는 주관적인 의견이나 판단으로 대체된 객관적인 정보나 사실로서 객관적인 혹은 물리적인 대상의 속성에 대한 지각적 평가, 대상에 대한 지식 및 신념을 의미하는 인지적 이미지와 대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과 느낌인 정서적 이미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인지적 이미지는 자연환경과 분위기를 포함하였으며 정서적 이미지(감정)는 부정적 이미지와 긍정적 이미지로 구분하였다.

구분	요인	항목	수요중심적 접근의 적합성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이미지	인지적 이미지	관광목적지의 기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목적지의 자연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목적지의 역사문화 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목적지의 이벤트와 축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목적지의 주차 및 교통시설(혼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목적지의 주민 환대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목적지의 이국적 분위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정서적 이미지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분노와 사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슬픔과 기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혐오와 부러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수치심과 자부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공포와 평온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불만과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관광안전**은 불안전이나 위협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편안하고 온전하여 걱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관광안전관리체계는 관광안전 위협요인 준비와 관광안전 관리조직, 관광안전 관리절차, 관광안전 관리정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구분	요인	항목	수요중심적 접근의 적합성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관광 안전	위협 요인	관광목적지의 정치적 위험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목적지의 범죄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목적지의 질병 발생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목적지의 교통사고 발생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리 조직 구성	안전관련 정부조직체 구성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안전관련 지방정부 조직체 구성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안전관련 관광기업 조직체 구성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안전관련 관련단체 조직체 구성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리 절차 구축	재난발생 역제를 위한 예방활동 수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재난발생 역제를 위한 제도 마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안전관련 대응 매뉴얼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안전관련 피해의 최소를 위한 홍보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긴급구조 능력 시스템 구축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피해복구를 위한 조사 및 사후평가체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V. 관리중심적 접근

■ 관리중심적 접근방법은 주로 인적자원관리 연구에서 세부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이 필요한 인력을 수급·개발·유지하여 이를 활용하고, 조직구성원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기법이다. 관리중심적 접근방법은 인적자원 요인과 수용력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요인으로서 관광자원을 개발할 때 어느 정도 중요하게 판단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요인의 적합성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자원은 크게 인적자원관리(기반인력, 종사원, 관광고용)와 행정역량(계획, 비전, 예산, 주민역량, 공무원 전문성, 외부전문가 참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	요인	항목	관리중심적 접근의 적합성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인적 자원	기반 인력	관광산업 인력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산업 인력 비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관련 대학 정원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관련 교육 이수자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 고용율	관광관련 고용자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관련 고용비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기업의 종사원 직업훈련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기업의 서비스 교육 시행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종사자 규모	통역안내사 및 해설사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쇼핑 종사자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숙박시설 종사자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음식시설 종사자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통역안내사 및 해설사 서비스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쇼핑 종사자 서비스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숙박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행정 역량	음식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관련 예산 비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관련 조직 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관련 발전계획 수립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관련 면세 혜택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관련 투자유치 지원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관련 홍보 지원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관련 행정 전문가 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정책 외부전문가 참여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정책 주민참여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수용력**은 일정한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역이 지탱할 수 있는 인간활동의 범위로서, 인구밀도, 수용 가능한 관광객 수, 일정지역의 개발 속도와 규모 등을 설정하는 것이고, 한계용량(marginal capacity)은 자연환경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절대적인 조건 하에서 자연능력의 한계로서 지하수 공급 가능량, 자연자원의 최대 이용능력, 환경기준 등을 설정하는 것이다. 물리적 수용력(관광객 밀도, 시설 점유율, 대기시간 등), 생태적 수용력(동식물 비율, 수질, 폐기물 등), 사회심리적 수용력(혼잡도, 환경 악영향 인식, 환경의 질 인식 등)으로 구분하였다.

구분	요인	항목	관리중심적 접근의 적합성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수용력	물리적 수용력	관광자원 단위면적당 사람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 단위면적당 밀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 편의시설 점유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 이용대기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생태적 수용력	동식물 비율과 개체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질과 토양 침식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폐기물 정화시설 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생태계 면적 및 녹지비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회 심리적 수용력	환경에 대한 이용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환경의 질에 대한 인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환경의 악영향에 대한 인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혼잡도에 대한 인내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경관 관리의 질적 최저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 이용자의 행동과 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지역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요인 결정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박사과정에서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제주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구대상으로 개발 잠재력 평가 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처리에만 활용되며 순수 학문적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입니다. 문항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하나 하나 정확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조사에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4월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김 구

I. 응답자 특성

성 별	①남성 ②여성	연 령(만)	
소 속 (직장)		직 위	
최종학위		전 공	
경력(년)		e-mail	

■ 관광자원에 대한 잠재력 평가는 관광자원이 지닌 잠재력을 현재화시키고, 해당 자원의 가치와 성격을 분석하여, 관광자원의 효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관광개발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개발대상 지역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차이와 관광객의 요구에 관한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영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고려된 가운데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대상지역의 물리적 특성 차이가 결국 관광개발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 절대적인 이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개발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요인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평가요인의 접근차원을 ‘공간중심적 접근’, ‘자원 중심적 접근’, ‘수요 중심적 접근’, ‘관리 중심적 접근’으로 분류하였다.

II. 공간중심적 접근

■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차원 중 공간 중심적 접근은 관광자원이 속해있는 지역의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관광자원의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른 개발 잠재력의 차이를 중시한다. 공간중심적 접근방법의 요인으로는 접근성 요인과 연계자원 요인을 도출하였다. 관광자원을 개발할 때 어느 정도 중요하게 판단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요인의 적합성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근성 요인

접근성은 관광자원이 속한 지역으로의 접근성, 관광자원 주변으로의 접근성이며, 여기에서의 접근성은 거리와 시간, 비용 등 총효용 등으로 평가한다.

구분	요인	항목	공간중심적 접근의 적합성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접근성	공간적 격리	관광목적지까지의 거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까지의 거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까지의 소요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초과 효용	관광목적지까지의 교통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까지의 교통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숙박시설의 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음료시설의 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연계자원**

관광자를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한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기본적인 시설로서 관광자원 주변의 숙박, 식음료, 쇼핑 등의 관광관련 시설이 포함된다.

구분	요인	항목	공간중심적 접근의 적합성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연계 자원	관광 관련 시설	숙박시설의 종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음료시설의 종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쇼핑시설의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쇼핑시설의 종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II. **자원중심적 접근**

■ **자원중심적 접근** 방법은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해당 자원의 자체 특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가치 요인과 매력성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요인으로서 관광자원을 개발할 때 어느 정도 중요하게 판단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요인의 적합성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치**는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로 구분되며, 이용가치는 입장료와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방법이며, 비이용가치는 보전가치로서 현재는 이용하지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선택가치, 현재와 미래에 이용할 가능성은 없지만 있는 것 자체의 만족감이 있는 존재가치, 이용할 가능성이 없지만 후손들이 즐길 수 있도록 보존해야 하는 유산가치로 구분된다.

구분	요인	항목	자원중심적 접근의 적합성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가치	이용 가치	여행비용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건부 가치측정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비이용 가치	선택가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존재가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유산가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매력성**은 관광자원의 어떤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 볼거리, 대상, 즐길거리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자원의 가치가 사람을 즐겁게 끌어당기는 힘(유인력)으로서 필수서비스와 일반적 편익, 표적편익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인 편익**은 관광여행상품의 구성요소 중 여타의 관광 상품과의 차별성을 지닌 관광대상을 관광자의 요구에 맞추어 결합시킨 속성이 포함된다. **표적 편익**은 표적화된 편익을 통해 원거리에 있는 관광자를 유인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진 매력속성이다.

구분	요인	항목	자원중심적 접근의 적합성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매력성	일반적 편의	관광자원의 사실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의 유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의 경관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표적편 익	관광자원의 독특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의 활동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의 상품화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의 유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의 교육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의 고유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V. 수요중심적 접근

■ 수요중심적 접근 방법은 관광자원의 잠재력 평가에 있어서 시장과 관광자의 요구를 우선하는 입장으로, 자원성이 풍부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공급중심형 개발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원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수요중심의 다원화된 시각이 필요하다는 접근 방법이다. 이러한 수요 중심적 접근은 현재의 수요자와 시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미래의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자와 시장성도 포함하여 평가하고 자원중심적 접근과 공간적 접근도 연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수요중심적 접근방법은 관광자원이 위치한 지역의 **이미지 요인과 관광안전성 요인**을 포함하였다.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요인으로서 관광자원을 개발할 때 어느 정도 중요하게 판단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요인의 적합성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는 주관적인 의견이나 판단으로 대체된 객관적인 정보나 사실로서 객관적인 혹은 물리적인 대상의 속성에 대한 지각적 평가, 대상에 대한 지식 및 신념을 의미하는 인지적 이미지와 대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과 느낌인 정서적 이미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인지적 이미지는 자연환경과 분위기를 포함하였으며 정서적 이미지는(감정)는 부정적 이미지와 긍정적 이미지로 구분하였다.

구분	요인	항목	수요중심적 접근의 적합성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이미지	인지적 이미지	관광목적지의 기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목적지의 자연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목적지의 역사문화 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목적지의 이벤트와 축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목적지의 주차 및 교통시설(혼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목적지의 주민 환대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목적지의 이국적 분위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정서적 이미지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슬픔과 기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불만과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관광안전**은 불안전이나 위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편안하고 온전하여 걱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관광안전관리체계는 관광안전 위협요인 준비와 관광안전 관리절차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구분	요인	항목	수요중심적 접근의 적합성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관광 안전	위협 요인	관광목적지의 정치적 위험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목적지의 범죄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목적지의 질병 발생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목적지의 교통사고 발생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리 절차 구축	재난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활동 수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재난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 마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안전관련 대응 매뉴얼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안전관련 피해의 최소를 위한 홍보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긴급구조 능력 시스템 구축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피해복구를 위한 조사 및 사후평가체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V. 관리중심적 접근

■ **관리중심적 접근방법**은 주로 인적자원관리 연구에서 세부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이 필요한 인력을 수급·개발·유지하여 이를 활용하고, 조직구성원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기법이다. 관리중심적 접근방법은 인적자원 요인과 수용력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요인으로서 관광자원을 개발할 때 어느 정도 중요하게 판단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요인의 적합성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자원**은 크게 인적자원관리(기반인력, 종사원, 관광고용)와 행정역량(계획, 비전, 예산, 주민역량, 공무원 전문성, 외부전문가 참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	요인	항목	관리중심적 접근의 적합성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인적	기반 인력	관광산업 인력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산업 인력 비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관련 교육 이수자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 고용	관광관련 고용자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관련 고용비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기업의 종사원 직업훈련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기업의 서비스 교육 시행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구분	요인	항목	관리중심적 접근의 적합성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자원	종사자 규모	통역안내사 및 해설사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쇼핑 종사자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숙박시설 종사자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음식시설 종사자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통역안내사 및 해설사 서비스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쇼핑 종사자 서비스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숙박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적 자원	행정 역량	관광관련 예산 비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관련 조직 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관련 발전계획 수립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관련 면세 혜택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관련 투자유치 지원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관련 홍보 지원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관련 행정 전문가 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정책 외부전문가 참여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정책 주민참여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수용력**은 일정한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역이 지탱할 수 있는 인간활동의 범위로서, 인구밀도, 수용 가능한 관광객 수, 일정지역의 개발 속도와 규모 등을 설정하는 것이고, 한계용량(marginal capacity)은 자연환경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절대적인 조건 하에서 자연능력의 한계로서 지하수 공급 가능량, 자연자원의 최대 이용능력, 환경기준 등을 설정하는 것이다. 생태적 수용력(동식물 비율, 수질, 폐기물 등)과 사회심리적 수용력(혼잡도, 환경 악영향 인식, 환경의 질 인식 등)으로 구분하였다.

구분	요인	항목	관리중심적 접근의 적합성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수용력	생태적 수용력	동식물 비율과 개체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질과 토양 침식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폐기물 정화시설 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생태계 면적 및 녹지비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회 심리적 수용력	환경에 대한 이용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환경의 질에 대한 인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환경의 악영향에 대한 인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혼잡도에 대한 인내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경관 관리의 질적 최저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광자원 이용자의 행동과 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지역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요인 결정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박사과정에서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제주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구대상으로 개발 잠재력 평가 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처리에만 활용되며 순수 학문적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입니다. 문항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하나 하나 정확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조사에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5월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김 구

I. 응답자 특성

성 별	①남성 ②여성	연 령(만)	
소 속 (직장)		직 위	
최종학위		전 공	
경력(년)		e-mail	

■ **응답방법**

각 항목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왼쪽 항목과 오른쪽 항목 중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에 하나만 표시를 해주십시오.* **항목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서로 엉키지 않도록 유의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아래는 잘못된 사례입니다. **공간중심적 접근과 자원중심적 접근이 동일한 중요도이며, 공간중심적 접근은 수요중심적 접근보다 중요한 항목이면 자원중심적 접근은 수요중심적 접근보다 ⑦번에 표시해야 맞습니다.**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⑦	⑤	③	①	③	⑤	⑦	
공간중심적 접근	⑦	⑤	③	① ✓	③	⑤	⑦	자원중심적 접근
공간중심적 접근	⑦ ✓	⑤	③	①	③	⑤	⑦	수요중심적 접근
자원중심적 접근인	⑦	⑤ ✓	③	①	③	⑤	⑦	수요중심적 접근

■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의 공간중심적 접근의 상위개념은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은 **공간적 격리와 초과효용 요인**으로 구분되며 **공간적 격리 요인**은 관광목적지와 관광자원까지의 거리와 소요시간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초과효용 요인**은 관광목적지와 관광자원까지의 교통비용, 숙박시설의 비용, 식음료시설의 비용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요인으로서 관광자원을 개발할 때 더 중요하게 판단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상대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목적지까지의 거리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자원까지의 거리
관광목적지까지의 거리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
관광목적지까지의 거리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자원까지의 소요시간
관광자원까지의 거리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
관광자원까지의 거리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자원까지의 소요시간
관광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자원까지의 소요시간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관광목적지까지의 교통비용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자원까지의 교통비용
관광목적지까지의 교통비용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숙박시설의 비용
관광목적지까지의 교통비용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식음료시설의 비용
관광자원까지의 교통비용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숙박시설의 비용
관광자원까지의 교통비용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식음료시설의 비용
숙박시설의 비용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식음료시설의 비용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공간적 거리 요인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초과효용 요인

■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의 **자원중심적 접근**의 상위개념은 가치와 매력성입니다. 가치는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 요인으로 구분되며 **이용가치** 요인은 여행비용법과 조건부 가치측정법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비이용가치** 요인은 선택가치와 존재가치, 유산가치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요인으로서는 **관광자원을 개발할 때 더 중요하게 판단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상대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여행비용법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조건부 가치측정법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선택가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존재가치
선택가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유산가치
존재가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유산가치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이용가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비이용가치

■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의 **자원중심적 접근**의 상위개념은 가치와 매력성입니다. 매력성은 **일반적 편익과 표적 편익 요인**으로 구분되며 **일반적 편익 요인**은 관광자원의 사실성, 유희성, 경관성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표적편익**은 관광자원의 독특성, 활동성, 상품화 가능성, 유희성, 교육성, 고유성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요인으로서 **관광자원을 개발할 때 더 중요하게 판단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상대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관광자원의 사실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자원의 유희성
관광자원의 사실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자원의 경관성
관광자원의 유희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자원의 경관성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관광자원의 독특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자원의 활동성
관광자원의 독특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자원의 상품화 가능성
관광자원의 독특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자원의 유희성
관광자원의 독특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자원의 교육성
관광자원의 독특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자원의 고유성
관광자원의 활동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자원의 상품화 가능성
관광자원의 활동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자원의 유희성
관광자원의 활동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자원의 교육성
관광자원의 활동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자원의 고유성
관광자원의 상품화 가능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자원의 유희성
관광자원의 상품화 가능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자원의 교육성
관광자원의 상품화 가능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자원의 고유성
관광자원의 유희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자원의 교육성
관광자원의 유희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자원의 고유성
관광자원의 교육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자원의 고유성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일반적 편익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표적편익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가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매력성	

■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의 **수요중심적 접근**의 상위개념은 이미지와 안전입니다. 이미지는 **이미지 요인**으로 구성되며 관광안전은 **위험요인과 관리절차 구축 요인**으로 구분되며, **위험요인**은 정치적 위험도, 범죄율, 질병 발생율, 교통사고 발생을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관리절차 구축 요인**은 예방활동 수립, 제도 마련, 매뉴얼 여부, 홍보 여부, 시스템 구축 여부, 조사 및 사후평가 체계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요인으로서 **관광자원을 개발할 때 더 중요하게 판단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상대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관광목적지 기후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목적지 자연환경	
관광목적지 기후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목적지 역사문화 환경	
관광목적지 기후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목적지의 이벤트와 축제	
관광목적지 기후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주차 및 교통시설	
관광목적지 기후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주민 환대성	
관광목적지 기후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이국적 분위기	
관광목적지 기후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개발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관광목적지 자연환경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목적지 역사문화 환경	
관광목적지 자연환경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목적지의 이벤트와 축제	
관광목적지 자연환경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주차 및 교통시설	
관광목적지 자연환경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주민 환대성	
관광목적지 자연환경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이국적 분위기	
관광목적지 자연환경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개발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관광목적지 역사문화환경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목적지의 이벤트와 축제	
관광목적지 역사문화환경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주차 및 교통시설	
관광목적지 역사문화환경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주민 환대성	
관광목적지 역사문화환경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이국적 분위기	
관광목적지 역사문화환경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개발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관광목적지 이벤트와 축제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주차 및 교통시설
관광목적지 이벤트와 축제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주민 환대성
관광목적지 이벤트와 축제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이국적 분위기
관광목적지 이벤트와 축제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개발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주차 및 교통시설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주민 환대성
주차 및 교통시설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이국적 분위기
주차 및 교통시설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개발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주민 환대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이국적 분위기
주민 환대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개발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이국적 분위기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개발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정치적 위험도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범죄율
정치적 위험도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질병 발생율
정치적 위험도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교통사고 발생율
범죄율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질병 발생율
범죄율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교통사고 발생율
질병 발생율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교통사고 발생율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예방활동 수립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재난억제 제도 마련
예방활동 수립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대응 매뉴얼 여부
예방활동 수립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피해 최소를 위한 홍보 여부
예방활동 수립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긴급구조 능력 시스템 구축
예방활동 수립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피해복구 조사 및 사후평가
재난억제 제도 마련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대응 매뉴얼 여부
재난억제 제도 마련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피해 최소를 위한 홍보 여부
재난억제 제도 마련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긴급구조 능력 시스템 구축
재난억제 제도 마련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피해복구 조사 및 사후평가
대응 매뉴얼 여부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피해 최소를 위한 홍보 여부
대응 매뉴얼 여부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긴급구조 능력 시스템 구축
대응 매뉴얼 여부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피해복구 조사 및 사후평가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피해 최소를 위한 홍보 여부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긴급구조 능력 시스템 구축
피해 최소를 위한 홍보 여부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피해복구 조사 및 사후평가
긴급구조 능력 시스템 구축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피해복구 조사 및 사후평가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위험요인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리절차 구축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이미지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안전

■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의 **관리중심적 접근**의 상위개념은 인적자원과 수용력입니다. 인적자원은 **인력규모 요인**과 **행정역량 요인**으로 구성되며 용력은 **생태적 수용력 요인**과 **사회심리적 수용력 요인**으로 구분됩니다. **인력규모 요인**은 관광산업 인력규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부, 안내사 및 해설사 수, 쇼핑 종사자 수, 숙박시설 종사자 수, 음식시설 종사자 수, 안내사 및 해설사 서비스 수준, 쇼핑 종사자 서비스 수준, 숙박시설 서비스 수준, 음식시설 서비스 수준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역량 요인**은 예산, 조직, 발전계획, 면세 혜택, 투자유치 지원, 홍보 지원, 행정전문가 채용, 외부전문가 참여도, 주민 참여도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생태적 수용력 요인**은 동식물 비율과 개체 수, 수질과 토양 침식정도, 폐기물 정화시설 규모, 생태계 면적 및 녹지비율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회심리적 수용력 요인**은 환경 이용수준, 환경의 질 인식, 악영향 인식, 혼잡도 인내수준, 경관관리 질적 최저수준, 관광자원 이용자의 행동과 태도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요인으로서 **관광자원을 개발할 때 더 중요하게 판단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상대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관광산업 인력규모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광산업 인력규모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통역안내사 및 해설사 수
관광산업 인력규모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쇼핑 종사자 수
관광산업 인력규모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숙박시설 종사자 수
관광산업 인력규모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음식시설 종사자 수
관광산업 인력규모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안내사와 해설사 서비스 수준
관광산업 인력규모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쇼핑 종사자 서비스 수준
관광산업 인력규모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숙박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관광산업 인력규모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음식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관광교육 프로그램 운영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통역안내사 및 해설사 수
관광교육 프로그램 운영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쇼핑 종사자 수
관광교육 프로그램 운영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숙박시설 종사자 수
관광교육 프로그램 운영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음식시설 종사자 수
관광교육 프로그램 운영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안내사와 해설사 서비스 수준
관광교육 프로그램 운영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쇼핑 종사자 서비스 수준
관광교육 프로그램 운영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숙박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관광교육 프로그램 운영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음식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통역안내사 및 해설사 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쇼핑 종사자 수
통역안내사 및 해설사 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숙박시설 종사자 수
통역안내사 및 해설사 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음식시설 종사자 수
통역안내사 및 해설사 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안내사와 해설사 서비스 수준
통역안내사 및 해설사 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쇼핑 종사자 서비스 수준
통역안내사 및 해설사 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숙박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통역안내사 및 해설사 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음식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쇼핑 종사자 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숙박시설 종사자 수
쇼핑 종사자 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음식시설 종사자 수
쇼핑 종사자 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안내사와 해설사 서비스 수준
쇼핑 종사자 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쇼핑 종사자 서비스 수준
쇼핑 종사자 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숙박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쇼핑 종사자 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음식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숙박시설 종사자 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음식시설 종사자 수
숙박시설 종사자 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안내사와 해설사 서비스 수준
숙박시설 종사자 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쇼핑 종사자 서비스 수준
숙박시설 종사자 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숙박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숙박시설 종사자 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음식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음식시설 종사자 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안내사와 해설사 서비스 수준
음식시설 종사자 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쇼핑 종사자 서비스 수준
음식시설 종사자 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숙박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음식시설 종사자 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음식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안내사, 해설사 서비스 수준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쇼핑 종사자 서비스 수준
안내사, 해설사 서비스 수준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숙박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안내사, 해설사 서비스 수준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음식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쇼핑 종사자 서비스 수준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숙박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쇼핑 종사자 서비스 수준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음식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숙박 종사자 서비스 수준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음식시설 종사자 서비스 수준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관광관련 예산 비중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관련 조직 규모
관광관련 예산 비중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발전계획 수립
관광관련 예산 비중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관련 면세 혜택
관광관련 예산 비중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관련 투자유치 지원
관광관련 예산 비중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관련 홍보지원
관광관련 예산 비중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관련 행정전문가 채용
관광관련 예산 비중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정책 외부전문가 참여도
관광관련 예산 비중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정책 주민 참여도
관광관련 조직 규모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발전계획 수립
관광관련 조직 규모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관련 면세 혜택
관광관련 조직 규모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관련 투자유치 지원
관광관련 조직 규모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관련 홍보지원
관광관련 조직 규모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관련 행정전문가 채용
관광관련 조직 규모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정책 외부전문가 참여도
관광관련 조직 규모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정책 주민 참여도
관광발전계획 수립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관련 면세 혜택
관광발전계획 수립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관련 투자유치 지원
관광발전계획 수립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관련 홍보지원
관광발전계획 수립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관련 행정전문가 채용
관광발전계획 수립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정책 외부전문가 참여도
관광발전계획 수립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정책 주민 참여도
관광관련 면세 혜택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관련 투자유치 지원
관광관련 면세 혜택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관련 홍보지원
관광관련 면세 혜택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관련 행정전문가 채용
관광관련 면세 혜택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정책 외부전문가 참여도
관광관련 면세 혜택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정책 주민 참여도
관광관련 투자유치 지원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관련 홍보지원
관광관련 투자유치 지원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관련 행정전문가 채용
관광관련 투자유치 지원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정책 외부전문가 참여도
관광관련 투자유치 지원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정책 주민 참여도
관광관련 홍보지원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관련 행정전문가 채용
관광관련 홍보지원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정책 외부전문가 참여도
관광관련 홍보지원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정책 주민 참여도
관광관련 행정전문가 채용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정책 외부전문가 참여도
관광관련 행정전문가 채용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정책 주민 참여도
관광정책 외부전문가 참여도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정책 주민 참여도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인력규모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행정역량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동식물 비율과 개체 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수질과 토양 침식정도
동식물 비율과 개체 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폐기물 정화시설 규모
동식물 비율과 개체 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생태계 면적 및 녹지비율
수질과 토양 침식정도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폐기물 정화시설 규모
수질과 토양 침식정도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생태계 면적 및 녹지비율
폐기물 정화시설 규모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생태계 면적 및 녹지비율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환경에 대한 이용수준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환경의 질 인식
환경에 대한 이용수준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환경 악영향 인식
환경에 대한 이용수준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혼잡도 인내수준
환경에 대한 이용수준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경관관리 질적 최저 수준
환경에 대한 이용수준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경관자원 이용자의 행태
환경의 질 인식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환경 악영향 인식
환경의 질 인식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혼잡도 인내수준
환경의 질 인식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경관관리 질적 최저 수준
환경의 질 인식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경관자원 이용자의 행태
환경 악영향 인식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혼잡도 인내수준
환경 악영향 인식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경관관리 질적 최저 수준
환경 악영향 인식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경관자원 이용자의 행태
혼잡도 인내수준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경관관리 질적 최저 수준
혼잡도 인내수준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경관자원 이용자의 행태
경관관리 질적 최저 수준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경관자원 이용자의 행태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생태적 수용력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사회심리적 수용력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인적자원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수용력

■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는 **관리중심적 접근과 자원중심적 접근, 수요중심적 접근, 관리중심적 접근** 등 상위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요인으로서 **관광자원을 개발할 때 더 중요하게 판단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상대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공간중심적 접근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자원중심적 접근
공간중심적 접근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수요중심적 접근
공간중심적 접근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리중심적 접근
자원중심적 접근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수요중심적 접근
자원중심적 접근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리중심적 접근
수요중심적 접근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리중심적 접근

■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는 7개의 상위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평가요인으로서 **관광자원을 개발할 때 더 중요하게 판단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상대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항목(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비교항목(B)
접근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가치
접근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매력성
접근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이미지
접근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안전
접근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인적자원
접근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수용력
가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매력성
가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이미지
가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안전
가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인적자원
가치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수용력
매력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이미지
매력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안전
매력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인적자원
매력성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수용력
이미지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관광안전
이미지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인적자원
이미지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수용력
관광안전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인적자원
관광안전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수용력
인적자원	⑨	⑦	⑤	③	①	③	⑤	⑦	⑨	수용력

한번 처음부터 검토를 빠지거나 중복 응답한 항목이 없는지 한번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